아르센 뤼팽의 수십억

Les Milliards d’Arsène Lupin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39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07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Les Milliards d'Arsène Lupin » (1939)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es Milliards d'Arsène Lupin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7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저녁 무렵, 제임스 맥 알러미가 편집국에 들어섰다. 그는 미국 최대의 범죄학 전문지 '알로 폴리체'의 창간자이자 편집장이었다.

몇몇 동료 기자들이 그를 둘러싼 채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맥 알러미의 의견은 아직 확고하지 않았다. 전날 세 명의 어린아이가 희생된 끔찍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특수한 정황에 분노한 공중은 즉각 이 비극을 '삼둥이 학살'이라 명명했다.

맥 알러미는 잠시 아동 범죄 전반, 그리고 특히 전날의 만행에 대해 논했다. 그러곤 편집국 기자들 사이에 섞여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비서 패트리샤 존스턴을 향해 몸을 돌렸다.

"패트리샤, 우편 시간이다. 서명할 편지는 모두 준비됐나? 내 사무실로 가자. 괜찮겠지?"

"모두 준비됐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패트리샤가 말을 멈췄다. 낯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귀를 기울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선생님 사무실에 누군가 있습니다, 맥 알러미 씨!"

소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내 사무실에 누군가? 말이 안 돼. 복도 쪽 문은 자물쇠로 잠가뒀거든."

"하지만 사설 출입구는요, 선생님?"

알러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며 미소 지었다.

"이 열쇠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아. 여기 있네. 패트리샤, 넌 꿈꾸고 있는 게 틀림없어. 자, 일하러 가자. 필데스 씨, 기다리게 해서 미안."

그는 친근한 듯 자신의 측근 중 한 명의 어깨를 툭 치고 있었다. 그는 기자가 아니라, 일주일에 거의 매일 지사에 찾아와 그를 찾아오는 개인적인 친구, 필드스였다.

"시간은 충분히 가져요, 제임스 알러미." 변호사이자 어터니인 프레데릭 필드스가 말했다. "나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편 시간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거든요."

"갑시다, 맥 알러미." 맥 알러미가 말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내일 봐요. 그 사건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 두길 바랍니다."

그는 고개 숙여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비서와 프레데릭 필드스를 따르게 한 채, 편집국에서 나와 복도를 가로질러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넓은 사무실은 우아하게 꾸며져 있었지만, 비어 있었다.

"보시죠, 패트리샤.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monsieur,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잠겨 있던 이 문이 지금은 열려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녀는 사무실과 연결된, 더 작은 방으로 통하는 문을 가리켰다. 그곳에 금고가 놓여 있었다.

"파트리샤, 그 금고에서 거리로 이어지는 비밀 출구까지, 내가 가끔 이용하는 곳으로요. 두백 미터에 달하는 복도와 계단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열세 개의 문과 다섯 개의 철문이 있는데, 모두 자물쇠와 열쇠로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그쪽 출구를 사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파트리스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가느다란 눈썹이 살짝 찌푸려져 있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젊은 여자였다. 몸매는 조화가 잘 잡혀 있고 유연했다. 운동을 꾸준히 해온 사람임을 짐작하게 했다.

얼굴은 고전적인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있었다. 약간 불규칙하고, 어쩌면 다소 짧게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화장기 없는 피부는 매끄럽고 투명했다. 입술은 자연스럽게 붉게 물들어 있었고, 윤곽이 또렷했다. 입이 살짝 벌어져 반짝이는 이빨이 드러나 있었다.

넓고 지적인 이마는 금빛과 청동빛이 섞인 곱슬머리 아래에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이 매력을 더했다. 짙은 속눈썹 사이에 길고 회녹색의 눈이 빛났다.

그녀에게서 놀라운 매력이 풍겨 나왔다. 진지할 때는 깊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솔직한 웃음을 터뜨릴 때는 가볍고 무르익지 않은 아이 같은 매력이 되었다.

그녀 전체에서 건강함이 느껴졌다. 신체적·정신적 균형이 잡혀 있었고, 에너지가 넘쳤다. 삶을 사랑한다는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 여자였다. 그녀의 존재는 호감과 신뢰를 불러일으켰고, 우정과 사랑을 자아냈다.

그는 맥 알러미와 함께 지내며 서서히 몸에 밴 습관, 이제 반사적으로 드러나는 그 버릇대로, 방 안을 둘러보며 자신이 정리해 둔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책상 위에 놓인 메모장. 그녀가 보기에는 글씨가 거꾸로 되어 있었다. 연필로 쓴 두 단어가 보였다. 하나는 이름, '폴'. 다른 하나는 조금 더듬거리며 읽어낸 성, '시너'. 폴 시너. 분명 여자 이름이었다.

맥 알러미의 엄격한 생활 습관을 잘 아는 Patricia는, 그 남자에게 여자가 개입할 리가 없다고 단호하게 생각했다. 더군다나 그의 사적인 공간인 책상에 여자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적어둘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폴 시너는 대체 누구인가?

맥 알러미가 그녀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좋아요, 패트리샤. 당신 눈은 빠르군요. 하지만 설명은 간단합니다. 오늘 번역가가 가져온 프랑스 소설의 제목인데, 제 마음에 들거든요. 주인공 이름이 파울 시너입니다. 프랑스어로는 '파울라 라 페쉐레스(죄인 파울라)'라니, 훨씬 임팩트가 강하지요."

패트리샤는 맥 알러미의 설명이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더 자세한 것을 물어볼 수는 없었을까?

그때였다. 그녀의 생각은 갑자기 끊겼다. 전기가 순식간에 꺼져버린 것이다. 어둠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fuse(차단기)가 끊어진 것뿐입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마크 알러미의 서재로 들어가기 전, 대기실로 향했다. 대기실은 3층에 있는 사설 계단의 발코니와 연결되어 있었다. 1층에 남아 켜져 있던 전등들이 희미한 빛을 발하며 어둠을 비추고 있었다.

좁은 다용도실에 있던 그녀는 6단 접이식 사다리를 꺼냈다. 사다리를 펼친 뒤 벽에 기대어 세웠다. 그리고는 사다리를 타고 올랐다.

그때였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희미하고 갑작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순간,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가 분명 여기에 있었다. 그녀는 확신했다. 반쯤 어두운 곳에 숨어,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그녀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신비롭고, 모호하며,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녀는 그를 본 적이 없었지만, 그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는 맥 알러미의 비서였다. 하지만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비서였다. 그는 경호원이자, 첩자였다. 또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었다. 비밀스럽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수수께끼 같은 사내였다. 교활하고, 위험하며, 어둠의 자취를 남기는 사내였다. 패트리샤는 늘 그 존재와 집요한 시선을 눈치챘다. 그는 그녀를 불안하게 했고, 때로는 그녀의 용기에도 불구하고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사다리를 오르며 심장을 조여 올리는 두근거림을 억누르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다. 아마도 잘못 들은 모양이

었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납을 떼어내고 끊긴 전선을 새것으로 갈아 끼웠다. 그리고 차단기를 고쳤다.

빛이 쏟아져 나왔다. 전구 유리가 반쯤 흐릿하게 빛을 가렸지만.

그때 공중전이 벌어졌다. 그림자 속에 숨어 있던 존재가 Patricia 바로 아래로 튀어나왔다. 두 손이 젊은 여성의 무릎을 잡았다.

Patricia는 사다리에 위태롭게 흔들렸다. 의식을 잃을 뻔했지만,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녀를 받아준 두 팔이 그녀를 꽉 껴안았다. 떨어지는 순간을 막아주며. Patricia는 바닥에 누웠다. 말도, 움직임도 없는 채.

Patricia는 공격자가 매우 키가 크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거의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몸부림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 포효는 그녀를 이미 패배한 사냥감처럼 꼼짝 못하게 묶어두었다.

그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남자의 속삭임이 그녀의 귀에 닿았다.

“버티지 마, 패트리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소리 지르지 마!”

"노인 맥 알러미가 들을 수도 있어. 그리고 당신이 제 품에 있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믿겠죠. 그리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당신과 저는 서로 맞춰지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

"우리는 둘 다 야망을 채우고, 돈을 벌고, 권력을 잡으려 해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요. 하지만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요, 패트리샤. 알러미의 아들과 사귀는다고 해서 무언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알러미 주니어는 바보요, 무능한 인간이죠."

"노인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게다가 그는 친구 필데스와 함께 거대한 사업을 준비 중이에요. 필데스도 그와 비슷한 인간이죠. 하지만 그 사업은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거예요."

"패트리샤, 우리가 현명하게 움직인다면, 육 개월 안에 '알로-폴리스' 지는 우리의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지로부터 천만, 억 단위의 달러를 끌어낼 수 있어요. 구독료, 광고, 스캔들, 협박.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다만, 그것을 다룰 줄 알아야 하죠. 그리고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문제예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것은 저에게 힘이자 약점이에요. 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 모든 범죄와 모든 승리를 당신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는 어쩔 줄 몰라 떨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저를 놓아주세요… 지금 당장요. 이 일은 나중에 이야기해요. 다른 때에요. 누가 듣거나 엿듣지 않을 때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하나야. 우리의 합의, 너의 선의를 보여주는 표시가 필요해. 키스 하나면 너를 놓아주지."

패트리시아는 정신이 아찔했다. 남자는 술 냄새를 풍겼고, 그의 찌푸린 얼굴이 자신의 얼굴 바로 곁에 바짝 다가와 있는 것이 느껴졌다. 열정적인 입술이 그녀의 목과 뺨을 더듬거렸지만,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입술은 결국 그녀의 입술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파트리스야, 난 너를 사랑해. 우리 두 사람이 만들어낼 동맹을 배가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 알레르미 부자는 둘 다 무능하고 바보야. 하지만 난 네가 가진 모든 야망을 읽어내고, 그 야망이 이루어지고 넘어서는 것을 알지. 파트리스야, 나를 사랑해. 이 세상에는 내 자질과 두뇌의 힘, 그리고 나의 의지와 에너지를 가진 다른 남자가 없어. 아, 파트리스야, 넌 약해지고 있구나. 넌 내 말을 듣고 있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그는 사실대로 말했다. 비록 반발하고 혐오하면서도, 그녀는 기이한 당혹감과 어지러움에 사로잡혀 가장 끔찍한 결말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 남자는 낮고 은밀하게 비웃음을 터뜨렸다.

"자, Patricia, 너는 동의하는 거야…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지. 너는 절벽 끝에 서 있어. 불쌍한 아이여, 네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나 앞에서는 누구나 이 같은 당황과 절망을 느낀다. 나의 의지가 장애물을 지배하고, 넘고, 부수지… 그리고 우리는 거의 행복해진다. 운명을 내 손에 맡기는 것. 시인해 봐… 그리고 두렵지 마라. 나는 나쁘지 않단다. 비록 내 동료들과 적들이, 친구는 없지만, 나를 '야수(The rough)'라고 부른다고 해도… '야만인, 냉혹한 자, 자비 없는 자'라고 불린다고 해도."

Patricia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녀를 구할 사람은 누구도 없었다.

갑자기 잔인했던 손들이 풀렸다. '야만인'이 비명을 삼켰다. 끔찍한 고통에서 우러나온 신음소리였다.

"무슨 일이지? 너는 누구냐?" 그가 고통에 시달리며 신음했다.

낮고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신사입니다. 필드스 씨의 운전기사이자 친구죠. 그분은 제가 롱아일랜드로 모셔다 드리길 바랍니다. 거기 친척 댁에서 저녁을 먹고, 어쩌면 밤을 새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제가 이쪽을 지나다가 당신의 연설을 들었어요. Sauvage 씨, 말솜씨가 참 좋군요. 다만, 자신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오산이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울려왔다.

"오산입니다. 당신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저에게?"

"그렇다면 그 이름을 대보시오."

"주인? 저에게? 있다면 아르센 뤼팽뿐이겠군요. 혹시 당신, 아르센 뤼팽이십니까?"

"저는 질문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질문당하지는 않죠."

상대방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목이 메어 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결국, 왜 안 되지? 그가 뉴욕에 있다는 건 알고 있고, 알레르미와 필데스, 그리고 C.와 무슨 꾀를 꾸미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 그리고 그 팔을 비틀어 버리는 그 특유의 방식은 정말 그의 스타일이잖아. 가장 건장한 남자도 순식간에 무력하게 만드는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넌 뤼팽이 맞아?"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뤼팽이든 아니든, 나는 네 주인이야. 순종해."

"내가? 순종하다니? 넌 미쳤나 봐. 뤼팽이든 아니든, 내 행동은 너와 상관없어! 필데스는 알레르미의 사무실에 있어. 가서 만나. 나 좀 내버려 둬."

"일단, 그 여자한테는 손대지 마! 꺼져!"

"안 돼!…"

그리고 거대한 손이 다시 패트리샤를 향해 내려앉았다.

"안 돼!… 그럼 너한테는 불행이 닥칠 거야. 내가 다시 시작할게."

«와일드」가 비명 같은 신음을 터뜨렸다. 고통과 공포에 질린 그 비명은, 마치 그의 목숨을 앗아가려는 듯했다. 팔이 풀리며 몸이 무너졌다. 그는 관절이 풀린 인형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패트리샤를 구한 정체의 불명인 남자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그녀를 부축한 채 서 있었다. 숨이 가쁘고 몸이 떨리는 그녀가 속삭였다.

"조심하세요. 이 남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하지만 그는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무서워요!"

"위험에 처하면 나를 불러라.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반드시 너를 지켜주마. 여기, 은으로 만든 작은 호루라기를 받아라. 이건 마법이 걸린 호루라기야. 먼 곳에서도 들릴 정도로 소리가 크지. 위급할 때는 멈추지 말고 불어라. 내가 곧장 달려갈 테니까. 그리고 끝까지 조심해라. '야수'를 말이야. 그는 최악의 도둑이야. 내 의무라면 그를 즉시 법정에 넘겨야 해.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의무를 소홀히 하지. 정말 잘못됐어."

그는 유연한 키 큰 몸을 약간 숙였다. 우아한 미소가 걸린 단정한 얼굴로, 정중한 예의를 갖추며 패트리샤의 손을 입맞춤했다.

"정말 당신, 아르센 뤼팽이세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기 위해 속삭였다.

"그게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내 보호를 받지 않겠나?"

"아니요,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싶어서…"

"쓸데없는 호기심."

그녀는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알로 폴리스의 국장실로 돌아갔다.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사과하며, 잠시 기운이 빠졌었다고 설명했다.

"이제 괜찮아진 거지?"

맥 알러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군."

그가 어조를 바꾸며 덧붙였다.

"이제 좀 이야기할 수 있겠군.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이 일침에, 패트리샤는 흔들리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침착해졌다. 맥 알러미가 권하는 안락의자에 앉아, 그의 다

음 말을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파트리샤,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지 십 년쯤 됐군요. 그間 모든 하급 직무를 두루 거쳤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금으로부터 오 년 전, 경영진의 비서로 뽑은 이유를 아십니까?"

"물론 저를 그 자리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겠지요, 선생님."

"당연하지. 하지만 당신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었죠."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먼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친구 필드스 앞에서도 이런 말을 꺼내시더라도 화내지 마십시오. 저는 그에게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에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극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제 아들 헨리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 당신 곁에 스며들었죠. 당신은 너무 어렸고, 세상에 혼자라 외로웠습니다. 그는 결혼을 약속하며 당신을 유혹했습니다. 당신은 저항하지 못했고, 결국 그를 따랐습니다.

그 후 그는 당신을 버렸습니다. 돈이라는 대가로 모든 빚을 갚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신은 그 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결국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의 젊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패트리샤는 얼굴이 벌게진 채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더듬거렸다.

"계속 말씀하지 마십시오, 알르미 씨. 제 잘못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죽는 것이 나았을 텐데…"

"당신을 죽인 건, 한 젊은이가 당신을 장난감처럼 놀렸기 때문이었나요?"

"제 아들을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그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용서했습니다."

알르미가 격렬하게 몸을 움직였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제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제 곁으로 불러 협력자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눈에는 보償이었습니까?"

"네."

파트리샤가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죠. 만약 알았다면, 당신의 아들이 내게 바쳤던 돈도 내가 거절했듯이, 이 일도 거절했을 겁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선생님. 저는 일합니다. 여기서 퇴근한 뒤 저녁에는 다른 곳에서, 그리고 아침에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는 또 다른 곳에서 사본 작업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건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알르미가 눈썹을 찌푸렸다.

"너무 자존심이 강하군요."

"네,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야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알로폴리스의 국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방금 전에, 이 책상 위에서 당신 기고를 발견했습니다. 방금 편집국에서 이야기하던 어제 끔찍한 사건, 즉 삼둥이 살해 사건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패트리샤는 표정과 어조를 바꾸었다. 그녀는 재판관의 판단을 불안해하는 초보 기자처럼 보였다.

"이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선생님?"

"내용이 마음에 드십니까?"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이 살인 사건과 그 동기, 그리고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인물에 대해 말한 모든 내용은 아마도 정확할 겁니다. 적어도 매우 영리하고 논리적이지요. 당신은 뛰어난 식견과 상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출판해 주시겠어요?" 기쁨에 찬 젊은 여자가 물었다.

"아니요."

그녀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왜요, 선생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글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나쁘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방금…"

"글로는 형편없습니다. 하지만요, 마들렌." 알르미가 설명했다. "저에게 범죄 보도의 가치는, 그 안에 담긴 추리나 단서, 진실의 총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것들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달려 있죠."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패트리시가 말했다.

"곧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보죠."

그는 말을 멈췄다. 설명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결국은 간결하게 마무리했다.

"만약 내가 바로 맥 알러미라고 가정해 보자. 나는 어떤 어두운 사건에 휘말려,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늘 밤 살해당하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상황이 어떻든, 당신이 이 사건을 기사로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뤼팽이 계속했다.

"당신의 글은 지금 이 순간의 만남을 부각시켜야 한다. 독자가 이미 이 만남에서 무서운 결말의 서막을 느끼게끔, 그 만남에 비장미를 더해야 한다. 마지막 줄에 이르기까지, 독자에게 주는 강렬한 인상은 점점 더 커져야 한다."

"언론인이고 소설가인 자의 모든 기량은 바로 여기에 있다. 드라마를 준비하는 법, 무대 장치를 하는 법, 첫 번째 반전을 암시하는 법, 그리고 독자를 즉각적으로 사로잡는 그 무언가를 만드는 법 말이다."

"무엇으로? 그건 내가 말할 수 없는 일이다. 재능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 안에 단어를 통해 독자의 주의를 사로잡는 그 비밀스러운 소명이 없다면, 소설이나 기사를 쓰지 마라. 옷이나 코르셋을 만드는 쪽이 낫다."

"이해했지, 패트리샤 존스턴?"

"이해합니다, 선생님. 저는 우선 견습생처럼 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맞소. 기사에는 좋은 소재도 있지만, 마치 초등학교 여학생이 쓴 것처럼 다뤄졌어. 무엇이든 빛을 보지 못하고, 어느 하나 완성도가 떨어지지. 다시 써. 다른 것도 써. 내가 읽어볼 테지만, 제대로 된 기사 쓰기를 배우기 전까진 모두 거절하겠소."

그는 웃으며 덧붙였다.

"내가 관련된 범죄의 미스터리를 밝히는 기사로 쓰이진 않길 바라오."

패트리샤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급하게, 몇 년간 함께 일해 온 사람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는 어조로 말했다.

"선생님, 저를 당황시키시네요. 정말로 미래를 예견하시는 건가요…?"

"아무것도 명확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 일기장 성격상 아주 특별한 세계와 교류하게 되고, 우리가 실어 내는 기사들 때문에 원한과

복수를 사기도 합니다. 직업의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위험이죠.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당신 이야기를 합시다, 패트리샤. 당신의 상황과 미래에 대해요. 당신은 저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편하게 하고 앞날을 열 수 있도록 물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두 천 달러 어음에 서명했고, 당신은 창구에서 이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입니다, 선생님."

"당신이 저를 위해 해주는 일과 당신의 미래 가능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당신은 저를 그토록 신뢰합니까?"

"더 중요합니다. 당신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속마음을 털어놓고,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소. 패트리샤, 보시오. 남자에게는 어떤 나이가 오면 더 강렬한 자극과, 더 크고 복잡한 야망이 필요하거든. 우리, 필드스와 나는 바로 그 단계에 와 있소.

지나치게 단조로운 일상에 새로운 흥미와 힘을 불어넣기 위해, 우리는 대단하고도 미공개이며,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계획을 세웠소. 이 일은 우리의 모든 경험과 활동력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전투 본능과 높은 도덕성을 충족시켜 주지. 우리가 도달하려는 목표는 장엄

하오. 악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혐오하는, 엄격하고 순결한 청교도적 영혼을 가진 우리와 꼭 맞는 일이오.

곧 이 계획의 정체를 알려주겠소, 패트리샤. 당신은 우리 야망의 투쟁에 참여할 자격이 있거든. 필드스와 나는 곧 프랑스행일세. 우리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거야. 당신도 함께 오시오. 당신의 서비스는 내가 이미 익숙하오. 당신의 끊임없는 협력과 동행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오. 잘만 된다면, 이 여행은 바로… 우리만의 여행이 될 거요."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어떻게 말을 맺어야 할지 몰랐고, 오히려 끝내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젊은 부인의 두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고, 거의 수줍은 듯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신혼 여행입니다, 파트리시아."

파트리시아는 깜짝 놀라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 제안은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갑작스런 제의는 그녀를 감동시켰다. 그녀는 감격과 자부심에 겨워 눈물을 참지 못한 채, 노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이 제안은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인정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선생님? 우리 사이에 당신의 아들이 있으니까요."

그녀는 시선을 돌리며 그렇게 말했다.

노인은 잔뜩 찌푸렸다.

"내 아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삶을 살았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 생각일세."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그녀는 끔찍한 부끄러움에 떨며 속삭였다.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알르미 씨. 제가 아이를 하나 두고 있다는 것을요."

그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아이요?"

"네, 앙리의 아이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 제 평생 바치겠다고 맹세한 아들이죠. 이름은 로돌프요. 사랑처럼 아름다하고, 다정하며 영리합니다."

노인은 놀람을 억누르고는 흥분했다.

"그가 내 피를 물려받지 않았단 말인가? 내 아들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프레데리크 필데스가 끼어들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다.

알르미가 어두운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렇다면 필데스 씨, 내가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이오?"

"포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차분하고 현명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분명 이 상황은 모두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약함과 비도덕적인 행위로 해석될 것입니다."

맥 알러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소.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오. 사랑에 빠진 자를 위해 시간은 항상 일하니까. 하지만 패트리샤, 덧붙이자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과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점에 동의하죠?"

젊은 여자는 노인이 자신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에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이 움직였다.

"물론입니다, 알러미 선생님."

알로폴리스의 간부는 서랍을 열었다. 거기서 봉투를 꺼내 봉인한 뒤, 젊은 여성의 이름을 적었다.

"이 봉투 안에는 제가 당신을 위해 쓴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여섯 달 뒤, 9월 5일이 되어서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날은 문서에 적힌 지시를 정확히 따르셔야 합니다. 지시는 이미 지금 여기서 건네드렸으니 잘 숙지하십시오."

간부는 말을 이었다.

"이 봉투는 항상 지니고 다니거나, 안전한 곳에 숨겨 두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단 한 명도요!"

패트리샤는 봉투를 받아 들었다. 맥 알러미에게 고개를 숙이며 이마를 내밀어 그의 입맞춤을 받았고, 노년 필데스에게는 다정하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고는 이별 인사를 건넸다. 그 말은 곧 약속이었다.

"내일 봐요, 사장님. 내일 그리고 매일매일…"

그녀는 대기실을 가로질렀다. 맥 알러미와 필데스가 곧이어 그녀를 따라 나섰다.

계단 중간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1층과 2층 사이에서 두 남자가 줄지어 내려가고 있었다. 뒤에 있던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데다 몸이 좀 축 처진 외모였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재빨리, 그러나 몰래 앞선 남자를 따라잡으려 했다.

그가 앞선 남자를 따라잡자,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손끝에서 칼날의 찬광이 번쩍였다.

패트리샤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다.

그가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무기가 등 뒤를 향하는 찰나, 공격을 받던 남자가 몸을 낮추었다. 그는 공격자의 다리를 붙잡아 버티고, 이기지 못할 힘으로 그를 뒤로 젖혔다. 그리고 난간 너머로 그를 계단 샤프트 안으로 내던졌다.

공격자는 덩어리처럼 떨어졌다. 1층 바닥에 곤두박질친 그는 몇 단의 계단을 굴러내리며 신음소리를 지르곤 멈췄다.

알로폴리스 사장은 킥,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일이세요, 알르미 씨?" 파트리샤가 물었다. "비서가 그렇게 당황했는데, 당신도 그 친구의 든든한 후원자잖아요."

"그에게 아주 좋은 교훈이 됐소." 노인은 만족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야수'라는 녀석은 참으로 끔찍한 갱단장이오. 국민 제1의 원수라고 할까? 단 한 순간만 더 늦었더라면, 그는 동료를 칼로 찔렀을 거요. 정말 무서운 녀석이오. 하지만 그 이름, 나한테도 낯설지 않은데…… 당신도 마찬가집니다, 필드스 씨?"

"저도 그렇습니다." 필드스는 짧게 대답했다.

두 친구는 계단을 다시 올랐다. 막 알르미는 책상 위에, 자기가 관리하는 거대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넣어 두었던 큰 갈색 가죽 지갑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패트리샤가 계속 계단을 내려가 바닥에 닿았을 때, 두 싸움꾼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아쉽군.'

그녀는 생각했다.

'아마도 아르센 뤼팽일 그 남자를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는 건물을 나서며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려 애썼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저녁 무렵,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로에는 전기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른쪽으로 꺾어, 비교적 한적한 작은 공원에 앉아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이제 막 생각이 필요했다. 첫 번째 기자 생활이 실패로 끝난 데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녀의 상사는 그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상사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의 미래를 기대했다.

상사가 건넨 결혼 제안은 그녀의 과거를 용서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녀를 더 크고, 더 순수하게 만들어 주었다.

고아였던 Patricia는 자신을 싫어하고 무관심한 늙은 친척에게 억지로 거둬졌다. 그녀는 고독하고 가혹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아이다운 열정과 충동은 모두 강하게 억눌렸다.

그녀는 오직 빨리 독립하는 것만을 바라며 자랐다. 친척이 죽었을 때, 그녀는 막 공부를 마치고 있었다. 친척은 그녀에게 고작 몇 주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돈만 남겨주었다.

하지만 Patricia는 용감했다. 일은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능숙한 타자원이었고, 곧 작은 일자리를 얻었다. 그 수입은 충분치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안정적인 삶이었다.

그때 패트리샤는 가끔 토요일 밤에 들르던 모임에서 앙리 마 알레르미를 만났다. 그는 역시 매우 젊었고, 잘생겼으며, 진심이고 열정적으로 보였다.

그는 고립되어 있던 소녀를, 매혹적이면서도 순진한 패트리샤를 적극적으로 유혹했다. 패트리샤는 열정적으로 반응했다. 삶의 갈망과 행복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사랑이 자신을 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신뢰와 희망으로 몸이 떨리며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몇 달의 행복이 이어졌다. 그러자 배신과 방임, 그리고 그녀에게는 비열하고 찢어지는 듯한 갑작스러운 파국이 찾아왔다.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이제 자신이 아끼던 남자를 경멸해야 한다는 끔찍한 쓴맛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막 태어난 아이는 젊은 부인을 다시 삶으로 끌어당긴 새로운 끈이었다. 패트리시아는 유모대 속에 누운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미래 희망을 걸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바라고 있지 않았다. 대신 작은 로돌프에게 사랑과 야망의 모든 힘을 집중했다. 그 아이는 자신을 배신한 아버지에 대한 생생한 복수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그 아이를, 앙리 막 알레르미에게서 보았다고 믿었던, 진정하고 고결한 남자로 키우려 했다.

아직 어린 나이의 그녀였지만, 이제 그녀는 오직 어머니일 뿐이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젊은 여자는 악몽 같은 과거에서 벗어나, 다시금 삶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을 품고 있었다. 바로 아들을 최고의 운명을 이룰 만한 인물로 키우는 일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삶의 유일한 이유였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아무도 찾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도움을 얻게 되지 않았는가? 뜻밖에도 뜻밖의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 것이 아니던가?

노년의 맥 알러미는 그녀 자신과 로돌프에게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다. 그것은 헨리 맥 알러미, 즉 거짓말쟁이이자 비겁한 남자의 약한 지지를 대신할 힘이었다.

어둠이 내리앉은 저녁, 패트리시아는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보았다.

시간이 흘러갔다. Patricia는 몽롱한 생각에서 깨어나 일어났다. 그녀는 평소 저녁 식사를 하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혼자 사는 소박한 집으로 돌아가기 전 들르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 정면, 광장 너머 건물 1층에 낮은 작은 문이 열렸다. Patricia는 알고 있었다. 그 작은 문은 긴 복도와 수많은 계단을 통해, Mac Allermy의 금고가 있는 좁은 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Mac Allermy는 종종 이 출구를 이용해 신문사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 Mac Allermy가 Frédéric Fildes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두 남자는 Patricia를 보지 못한 채 광장을 가로질러 지나갔다. 그들은 메인 거리와 평행한 골목으로 사라져 갔다.

제2장

패트리샤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두 남자를 따라갔다.

그녀를 움직인 것은 평범한 호기심도, 사적인 이익도 아니었다. 다만 제임스 맥알러미가 남긴 말이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위험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었다.

그 말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지 않았던가?

패트리샤는 그 말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경계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를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의무는 아니었을까?

맥알러미와 필즈가 야간 출동을 떠나는 것은 분명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그녀로서는 행동해야만 했다.

두 친구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걸었다. 팔을 끼고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그들은 열띤 논쟁을 벌였다. 맥 알러미는 자유로운 손으로 가죽 손잡이가 달린 갈색 지갑을 단단히 쥐고 있었고, 프레데릭 필데스는 지팡이를 가지고 장난치듯 놀고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걸었다. 그리고 패트리샤가 비밀리에 좇아다녀도 아직 한번도 건너보지 못한 거리로 들어섰다. 반면 그들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마치 자신이 잘 아는 길인 양 자연스럽게 그 거리를 따라 걸었다.

드디어 그들은 넓고 네모난 광장을 돌아섰다. 광장 한쪽에는 기둥들이 늘어선 현관 같은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 아래로 상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 시각의 상점들은 모두 닫힌 판자로 된 창문을 달고 있었다.

여러 상점은 외관이 완전히 똑같았다. 배치도, 크기, 장식이 모두 동일했다. 상점 사이사이는 문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문을 통해 위층의 주거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막 알레르미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는 그중 한 상점의 문을 열었다. 파트리아는 아케이드의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계단의 첫 몇 단이 중간층으로 이어지는 것을 잠깐 보았다.

맥 알러미와 프레데리크 필데스가 계단을 올라갔다. 문이 닫혔다.

알로폴리스의 이사는 꼭대기에서 단 일 분 정도만 기다려야 했다. 다시 내려가야 했다. 패트리샤는 1층 가게가 밝아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창문 커튼에 뚫린 별 모양 구멍들로 새어 나온 빛이 가게 안을 환하게 비췄다.

그 후 몇 분 동안 고요한 침묵이 흘렀다.

열 시가 되었다. 곧이어 두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느긋한 걸음걸이로 아케이드 아래를 배회했다. 파트리는 숨어 있던 그림자 속으로 더 깊숙이 몸을 숨겼다.

두 남자는 가게 앞에 다다랐다. 그중 한 명이 손에 든 금속 물체로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러자 금속 셔터 안에 작은 문이 안쪽에서 열렸다. 두 남자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고, 문은 다시 닫혔다.

파리는 여전히 엿보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곧이어 네 명의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게으른 산책객처럼 느긋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도 가게 앞에서 멈춰 섰다. 유리창을 두드렸다. 작은 문이 열렸다. 네 명은 안으로 사라졌다.

그때 또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혼자였지만, 앞서 온 이들처럼 문을 두드린 뒤 안으로 들어섰다. 이어 또 다른 한 명이 들어섰다.

마지막으로, 키가 큰 남자가 한 명 더 들어왔다. 그는 챙이 푹 꺼진 모자와 회색 털 담요로 얼굴을 완전히 감추고 있었다.

파트리아는 몇 분간 아무도 더 오지 않는 것을 보고 세어보았다. 열한 명이었다. 맥 얼러미와 필드스도 포함해서였다. 이들은 다른 이들을 기다리기 위해 먼저 와 있었다.

도대체 다른 이들은 누구였을까?

이들은 왜 이곳에 모였을까? 계급과 신분이 천차만별인 듯 보이는 이들은 대체 누구였으며, 왜 이 멀리 떨어진 동네의, 겉보기에 버려진 듯한 가게 안에 밤중에 비밀리에 모인 것일까?

파트리는 자신의 상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바로 그가 말해 주었던, 프레데리크 필데스와 함께 관여하고 있는 그 거대한 기업일까? 맥 알러미의 최후가 죽음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그 모험적이고 위험천만한 사업 말이다.

파트리는 불안해졌다. 심지어 공황에 빠졌다. 지금 이 순간 맥 알러미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려다 말고,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가장 가까운 경찰서 주소를 물어보려 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에, 그리고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일에 자신이 개입할 권리가 있을까?

맥 알러미는 이 회의를 조직하며 모든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행동했다. 만약 그가 위험을 무릅썼다면, 그것은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그렇다면 패트리샤는 어떤 명분으로, 하필이면 사사건건 간섭하는 경찰을 동원해 그의 계획을 방해해야 할까? 상상 속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제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

젊은 여인은 모습을 드러내지도, 움직이지도 않은 채 기다렸다.

분류가 흘렀다. 한 시간. 두 시간.

드디어 철제 커튼문이 열렸다.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 나타났다. 이어 열 명이 밖으로 나왔고, 그들은 파트리아의 시선을 끌며 흩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철저히 숨어 있었다.

그녀는 목도리를 한 남자를 보았다. 프레데릭 필데스인 것 같았지만, 제임스 맥알러미는 눈에 띄지 않았다.

파트리아는 잠시 더 기다렸다.

그때 갑자기, 목도리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다시 가게 쪽으로 걸어갔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는 문을 두드리자, 낮은 문이 열리며 안으로 들어갔다.

사오 분 정도 지났다. 그사이 코트를 입은 남자가 작은 문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손에 맥 알러미의 갈색 가죽 지갑을 쥐고 있었다. 남자는 재빨리 그 자리를 떴다.

이 일은 패트리샤에게 수상하게 보였다. 왜 그 남자는 중요한 사건의 비밀이 담긴 귀중한 지갑을 들고 가는 걸까?

젊은 여성은 잠시 망설였다. 맥 알러미를 기다릴지, 아니면 코트를 입은 남자를 따라갈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남자를 쫓기로 했다. 빠른 걸음으로 몇 걸음 나아가자, 그녀는 이미 그의 뒤를 바짝 따라잡고 있었다.

남자는 급히 걸었다. 불안한 듯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뒤도 돌아보았다. 패트리샤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해야 했다.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까 봐 두렵고, 낯선 이 동네의 골목길에서 그가 사라질까 봐 더 두렵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달리기 시작했다.

패트리샤도 함께 뛰었다. 그리고 여러 골목이 연결된 광장에 도착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남자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패트리샤는 숨을 헐떡이며 발을 멈췄다. 결국 쫓아간 것이 헛수고였다는 뜻이었다.

자신의 서투름에 분하고, 조금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어깨를 으쓱이며 반응했다.

'나란 사람이 얼마나 영리하다고 생각했는지.'

참으로 초라한 탐정짓이었다. 몇 시간째 감시해 왔건만, 얻어진 결과는 고작 이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 신비로운 인물들이 모였던 가게의 주소조차 모른다는 사실을.

만약 다시 그곳을 찾아간다면, 그녀는 절대 그곳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아치형 복도가 있었지. 맞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그녀를 그곳으로 데려간다 해도, 그녀는 그 장소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녀의 노력으로 얻어진 유일한 결과는, 한 밤을 허비했다는 사실뿐이었다.

방황하는 마음, 자책감에 시달리던 그녀는 무작정 길을 나섰다. 번화한 대로변, 강렬한 조명 아래로 늘어진 술집들이 줄지어 섰다. 낯선 얼굴들이 오가던 곳이었다.

환성과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패트리샤는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다. 길을 묻기도 망설여졌다. 눈에 띄는 경찰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 흉측한 표정의 남자들이 그녀를 따라붙기 시작했다. 다가와 말을 걸려는 기색이었다. 그녀는 더 빠르게 달렸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물가에 가까워진 듯했다. 주변은 고요해지고, 사람도 사라졌다. 어둠이 짙어갔다.

그녀는 자재 더미가 쌓인 부두에 도착했다. 모래주머니와 석고 자루, 나무 더미, 그리고 빈 통과 가득 찬 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젊은 여성은 몸을 떨었다. 거친 손이 그녀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아! 드디어 찾았군, 패트리샤!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 이제 너를 놓치지 않겠다, 아름다운 여인아! 아니, 발버둥 칠 필요 없어!"

목소리도, 실루엣도 알 수 없는 공격자였지만, 젊은 여성은 그가 바로 '야수'라고 불리던 남자라고 확신했다. 오후에 이미 알로-폴리스의 계단에서 그녀를 습격한 바로 그 남자였다.

그녀는 몸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그녀를 꽉 쥐고 있는 손은 마치 철제 손처럼 단단했다. 남자가 비웃으며 다시 말했다.

"기회가 생긴 김에 말해 두마. 너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어. 조심해! 이제 간첩질을 하다니! 누구를 위해? 누구의 편을 들어? 바로 그 올르미 노파 말이야. 천만에, 아들이고 아버지고, 이 집안은 대대로 이런 짓만 한다는 거야?

잘 들어, 예쁜이. 오늘 밤 네가 들은 말을 입 밖에 내면, 너는 끝장이야. 정말로. 너와 그 작은 로돌프까지. 그 사랑스러운 아이도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 일이다, 단언하마! 그러니 침묵이야. 우리 일에 간섭하지 않으면, 우리도 네 일에 간섭하지 않겠지. 알겠지?

이 약속을 굳게 맺자고. 키스 하나, 예쁜이. 단 하나지만, 진심 어린 사랑의 키스!"

그는 그녀의 포위를 더욱 조였다. 도망치려 하는 입술을 붙잡으려 애썼다. 오후에 이어진 그 격렬한 몸싸움이 다시 시작되었다.

패트리샤는 미친 듯이 발버둥쳤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야수'가 자신을 질식시킬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남자는 거친 목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너 정말 바보야! 키스 한 번 해라. 그러면 너도 내 일에 끼워 주마. 돈은 많이 벌 수 있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엄청난 돈! 네 로돌프를 공작이나 왕자로 만들어 줄 돈이라고! 그런데도 거절한다니? 맥 알러미와 함께 일하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냐? 바보야! 정말 더러운 짐승 같으니라니!"

그녀는 분노한 고양이처럼 날카로운 손톱으로 그의 온몸을 긁어부수듯 했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였다.

"알베르! 좀 도와주게, 친구!"

그때 선원 차림의 거구 남자가 부두의 어둠에서 나타나 '야생인'의 부름에 달려왔다. 키가 여섯 피트나 되는 이 거구를幇手 삼아 '야생인'은 파트리샤를 제압해 두 동강 구부렸다.

"잡아, 알베르! 기다려. 이 작은 철창에 넣으면 발톱도 못 쓰게 하고 도망도 못 가게 할 거야."

그는 부두에 놓인 빈 통 하나를 눈치챈 뒤, 거구의 도움을 받아 젊은 여자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녀를 여전히 구부린 채로 통 속에 억지로 밀어 넣었다. 통 안에서 그녀의 머릿부분만 간신히 드러나 있었다.

"알베르트, 너는 그녀 곁에서 교대근무를 서. 만약 그녀가 비명을 지르거나 탈출하려고 들면, 머리를 한 대 내려쳐서 달팽이처럼 껍데기 속으로 숨어들게 해. 한 시간 뒤면 내가 돌아올 테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아직 반쪽짜리 일만 끝냈어. 나머지는 내가 마무리해야 해."

"쇠는 뜨거울 때 치는 법이지. 운이 우리 편이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 그리고 너도 내 몫에서 분담금을 받을 거야."

"곧 봐, 파트리시아. 만약 춥다면 내 방이 가까워. 오세앙 바(Bar de l'Océan)에 있어. 따뜻하게 데워주러 갈게."

"그리고 너, 선원아. 지시사항 기억나지? 머리를 한 대 치거나, 입을 막으려면 입맞춤을 해! 그녀가 그걸 아주 좋아한다고!"

그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가방 위에 내려놓았던 갈색 가죽 수건을 집어 들고는 자리를 떴다.

통 속에 갇혀 있던 패트리샤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공포와 혐오가 그녀를 열병처럼 떨게 할 뿐이었다. 곧 그 감정에 구역질이 섞여 들어왔다.

'소와주'호가 떠나자마자 선원은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에 너무 가까워지자, 그녀는 속이 메스꺼워지며 그의 숨결을 맡았다. 그곳에서는 술과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이거 좋아하나 보네? 그가 낮고 음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잘 어울릴 텐데. '소와주' 따위야, 내겐 상관없어. 네가 자진해서 주는 키스 하나면, 내가 통에서 꺼내주마."

"먼저 통에서 꺼내주십시오." 패트리샤가 간신히 내뱉었다. 그녀는 이 역겨운 무리를 잠재적인 구원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가 약속하나?" 그가 의심을 담아 재차 물었다.

"물론이지! 네가 내게 요구하는 건 그다지 많지 않잖아!"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어!" 그가 술에 취한 듯한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하지만, 난 너를 믿어!"

그는 통을 집어 들어 마치 서커스 훈련을 하듯 힘없이 뒤집었다. Patricia가 그 안에서 나와, 진흙투성이의 바닥에서 가볍게 점프하듯 일어섰다.

"자, 내 키스!" 거구가 팔을 벌이며 다가왔다.

그녀는 뒤로 뛰어 물러섰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다 줄게.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너무 춥잖아. 같이 가자. 그의 방이 어디 있지?"

그가 어둠 속에서 손짓했다.

"저기 붉은 빛이 보이는 거 알지? 바로 그곳이 '바르 드 로세앙'이야."

"내가 먼저 갈게. 따라와. 거기서 기다릴게."

그녀는 가볍게 달렸다. 해방감에 마음이 고조되어 피로감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른 걱정거리가 있었다. '야만인'의 마지막 말이 그녀를 무서워하게 만든 것이다. 그는 남은 일의 절반을 언급한 것일까? 그가 완수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누군가를 죽일 것인가?

그녀는 타운 거리로 달려가, 붉은 간판이 걸린 곳으로 들어섰다.

"커피 한 잔과 브랜디 한 잔. 전화기는 어디요?"

바텐더에게 주문한 후, 그녀는 전화 부스까지 안내를 받았다. 그리고 전화번호부를 뒤졌다.

그녀는 망설였다. 빠르게 생각했다. '누구에게 알릴까? 경찰? 아니… 먼저 필드스에게… 그는 집에 돌아갔겠지… 그리고 위험도 그곳에 있을 거야. 그래… 프레데릭 필드스에게.'

그녀는 손가락으로 디스크를 급하게 돌렸다. 저편에서 수화기가 들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알로…… 알로……"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 탓에 거칠게 떨렸다.

필드의 목소리가 주저하며, 불안한 어조로 답했다.

"알로…… 누구십니까? 마크 알레르미 님이십니까? '야생인'이 막 도착했습니다."

젊은 여자는 공포에 떨었다. 필드에게 알리다니…… 하지만 어찌 되겠는가. 노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하겠는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그 도둑놈이었다. 그녀는 즉각 대답했다.

"그게 바로 제가 그와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마크 알레르미 님의 부탁으로요."

곧 거칠고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생인'의 목소리였다.

"알로! 누구냐?"

"나야, 패트리샤……. 너에게 충고를 해주려고 전화했어. 도망쳐……. 네가 필드를 노리고 있다는 걸 경찰에 알렸어. 당장 사라져."

"아, 네가 구나." 목소리는 별다른 동요 없이 말했다. "그 멍청한 선원이 또 장난을 친 모양이군. 알았어, 내가 떠날게. 하지만 5분만 더 줘. 필즈 씨에게 할 말이 하나 더 남았거든."

패트리샤가 전율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명령조로 변해 차갑게 날카로웠다.

"조심해, 소비지. 나는 이미 다 말했어. 경찰은 자동차로 떠났어. 이미 이 집을 포위했을 거야. 네가 범행을 저지르면 전기의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명심해."

"내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마워." 목소리가 비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서둘러야겠군."

저편에서 고요함이 흘렀다. 그러다 갑자기,恸음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고통스러운, 죽음 직전의 비명이었다.

"악당!" 패트리샤가 숨을 헐떡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기절할 뻔했다. "악당, 그 녀석을 죽였어."

당황한 그녀는 전화를 끊고, 바텐더에게 돈을 던지며 도망쳤다. 선원이 다가오자 그녀는 그를 피했고, 밖으로 나가서는 제정신이 아닌 듯 달리기 시작했다. 운이 좋게도 빈 택시가 하나 보였다. 그녀는 그 택시에 뛰어올랐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프레데릭 필데스의 주소나 신문사의 주소를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주소를 전했다. 상처 입은 짐승이 자신의 굴로 피하듯,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그녀는 갑자기, 참을 수 없을 만큼 약해졌고, 죽을 만큼 지쳐 있었다. 누워 잠을 자고 싶었다. 그녀가 예감했던 그 비극, 이제 이미 끝나버린 그 비극을 잊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일어난 일들은 그녀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 밤은 잠들지 못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다 자정이 넘어선 뒤에는 완전히 잠이 깨어 있었다. 그 사건은 점점 더 무서운 괴담처럼 느껴졌다.

지갑이 훔쳐졌다는 사실은 그녀의 불안감을 더 키웠다. 하지만 그녀는 논리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만약 맥 앨러미의 지갑이 훔쳐졌다면, 그것은 오직 폭력적으로만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 말이다.

아니, 그녀는 프레데릭 필데스가 '야수'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맥 앨러미에 대해서는 단 한 순간도 걱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어떤 예감도 느끼지 못했다.

다음 날, 그가 신문사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깊었다. 사무실은 혼란에 빠졌고, 편집국은 발칵 뒤집혀 있었다.

그때야 그는 알게 되었다. 사주가 칼에 맞아 심장 한가운데를 찔렸다는 사실을. 그 일은 자유 광장에 있는 한 상점에서 일어났다.

자유 광장! 바로 그곳이, 아케이드가 있는 광장이었다.

그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침묵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몸을 굳혔다. 그 사건은 그녀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그녀는 가장 잔인한 자책감에 사로잡혔다.

마크 알레르미를 구할 수 없었을까? 뭘 할 수 없었을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나머지, 즉 경찰이 어떻게 신고를 받았는지, 형사들이 그 가게나 그 가게 주인, 혹은 그곳에서 열리던 모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나중에야 밝혀질 이런 디테일들은 모두 중요해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죄인처럼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저녁 신문들을 모두 챙겨 읽었다. 모든 신사가 이 살인을 보도했지만, 내용은 제각각이었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달랐고, 논평도 다양했다.

대개 피해자에 대한 설명은 틀려 있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었고, 그의 비참하고 신비로운 죽음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같은 신문들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살인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패트리샤에게는 그 소식이 놀라움이 아니었다. 그 살인이 자행되던 순간, 전화를 통해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지 않았던가.

사건은 변호사 프레데릭 필데스의 살인이었다. 곧 유럽행 배를 타야 했던 그는 전날 저녁, 집을 방문한 낯선 이에게 배를 찔려 죽임을 당했다. 살인자는 칼로 그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바로 '알로 폴리스' 사장의 피살 방식과 똑같았다.

신문들은 두 살인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두 피해자는 서로 잘 알고 있었고, 공통된 사업도 있었다. 도둑 집단이 그들의 죽음을 결정한 걸까. 같은 시간대에 두 사람을 처형한 걸까.

하지만 필드스에서는 금고가 강탈당했다. 5만 달러가 도난당한 것이다.

단독 범인의 단순한 강도 사건일까?

패트리샤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두 노인을 해친 것이 바로 같은 손길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었을까?

'야만인'은 거대한 범죄 조직의 두목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을까?

그녀는 반드시 그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것을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

이중 살인 사건이 일어난 날 다음 오후, 패트리샤는 헨리 알러미의 호출을 받았다. 제임스 맥 알러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그는 이미 경찰 신문사의 사장 자리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패트리샤는 그 신문사의 편집국장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젊은 여자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그 부름에 응했다. 헨리 막 알레르미는 서른 살이었다. 몇 년 동안 그를 보지 못했

던 패트리샤는, 이제 성인이 된 그에게서 자신이 젊음에 알았던 소년의 모습을 다시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서 열정은 이미 사그라져 있었다. 그들은 두 낯선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나눴다.

"자, 이모." 젊은 이사가 말했다. "아버지가 개인 일지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글귀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이어 말했다.

"패트리샤……. 뚜렷한 성격과 에너지, 그리고 조직 감각을 지녔다. 부이사로 제격일 것이다."

그는 젊은 여자를 바라보지 않은 채 덧붙였다.

"저는 아버지의 당신에 대한 의견을 가능한 한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신의 의사와 부합할 경우 말입니다."

파트리스는 같은 선에서 조심스럽게 답했다.

"제일 좋은 봉사는, 바로 당신의 아버지를 위한 복수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몇 시간 후면 저는 프랑스행 배를 탑니다. 이미 '일드프랑스'호의 좌석을 예약해 뒀어요."

헨리 맥알러미는 깜짝 놀란 듯 손을 저었다.

"프랑스로 가신다고요?"

"네. 당신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분도 곧 프랑스에 가실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여행이, 맥알러미 씨가 숨지신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봐요."

"증거라도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직감일 뿐이에요."

"신문이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단순한 직감 하나에 지나지 않는 이유로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단 말인가?" 헨리 알르미가 약간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행동을 취할 때는 종종 직감을 따라야 합니다." 파트리스카는 차분하게 답했다.

"하지만 경찰과 상의해야 합니다."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경찰에게 유용한 정보는 하나도 줄 수 없으니까요."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돈이 있나?" 젊은 여성의 결심이 의외라면서도 그를 압도한 헨리 맥 알르미가 다시 물었다.

"앞당겨 받은 이천 달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 앞으로 된 계좌에, 향후 제 활동에 대한 선금으로 넣어둔 돈입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해."

"더 큰 금액이 필요해 결과를 얻게 되면,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당연하지. 안녕, 미들모아젤."

그들은 더 이상 말 없이 헤어졌다.

패트리시아가 물러나려던 찰나,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여자가 예고 없이 들어섰다. 예쁘게 단장하고 검은 상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녀는 패트리시아를 보지도 않은 채 바람결에 흩날리듯 지나쳐 Henry의 품으로 달려들며 외쳤다.

"내 새 외투, 달링! 어때? 상복 치곤 잘 어울리지 않니?"

그녀는 Henry Allermy의 젊은 아내였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패트리시아는 혼자 '일드프랑스' 호에 올랐다. 두세 주 뒤, 친구가 아들 로돌프를 데려다 줄 예정이었다.

순간, 이 젊은 여성에게 항해는 큰 안식처가 되었다. 낯선 승객들 사이에서의 고독, 선상에서의 평온한 일상은 그녀에게 필연적인 위안을 안겨주었다. 인생에는 눈을 감아야만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다.

바다는 특정 시점의 혼란과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 고요함을 가져다준다.

첫 이틀 동안 패트리샤는 선실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왼쪽에는 소음이 없었다. 선실이 복도 끝자락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였다. 옆방 승객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늘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스투어드가 패트리샤에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다리 위를 산책하고 돌아온 그녀는 여행 가방과 서랍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방을 뒤졌다는 뜻이었다.

누가 그랬을까? 무엇을 찾기 위해?

패트리샤는 통로용 문에 달린 자물쇠를 확인하게 했다. 문 안쪽과 바깥쪽 모두에 자물쇠가 있어 단단히 잠겨 있었다. 자물쇠는 온전했고, 이중으로 잠겨 있었다.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도 누군가 통과했다.

다음 날, 또 한 번의 침입이 있었다. 파트리샤의 방이 다시 뒤집어졌다. 이제 그녀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자신이 없을 때 누군가 방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또다시 누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그랬을까?

그녀는 단서를 얻고자 배의 일상생활에 섞여 들어갔다. 승객들을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으며, 갑판에서

산보하고, 라운지를 오갔다. 듣고, 보았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방은 계속 뒤졌다. 파트리샤는 선장에게 항의했고, 선장은 선내 경찰에게 알렸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고 감시를 배치했다.

감시와 수색은 헛수고였다. 하지만 직접 조사한 결과, 바닥에 떨어진 향분 상자에서 새어 나온 자국이 단서를 제공했다. 그 발자국은 침입자가 바로 옆 선실 출신임을 Patricia에게 알려주었다.

그 선실에는 앤드루스 포브라는 이름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앤드루스 포브? Patricia에게 그 이름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하고 당황한 그녀는 그 이름 속에 '야수'의 정체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혹시라도? 알로폴리스 계단에서 '야수'와 맞서 싸워 그녀를 구해 준 남자의 정체가 아닐까?

그 옆 선실 승객이 단 한 번도 선실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을 사로잡은 의심을 털어내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동행을 부탁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근처의 전화 부스 문을 두드렸다.

서장은 먼저 문을 두드리고 협상하듯 말 걸다가, 결국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패트리시아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패트리시아는 안쪽을 바라보던 중, 낯선 승객의 얼굴을 보고는 놀람을 감추지 못했다.

"세상에, 당신이에요, 헨리?"

그녀는 경찰서장에게 잠시만 혼자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헨리 맥 알러미는 경찰서장이 있을 때는 차분함을 유지했지만, 일기장에서의 만남 때부터 보여준 무표정의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가 젊은 여성과 둘이 된 순간, 그는 창백해지고 혼란에 빠진 채 패트리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한 번도 그 사랑을 멈춘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비겁하게 버린 것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 이제 그녀는 없으면 살 수 없었다.

"나는 질투합니다." 그가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떠남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요? 그것은 구실에 불과합니다. 거짓말이죠. 당신 혼자 떠나는 게 아니에요, 패트리샤!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가는 거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아나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그를 데려오겠습니다. 당신만 중요합니다. 제 결혼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다른 이와 함께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차라리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당신의 배신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부당한 대우에 놀라 패트리샤는 분노하며 항변했다.

"하지만 배신한 건 당신이에요, 헨리!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제 모든 사랑을 바쳤죠. 당신과 우리 아이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이유도 설명도 없이,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죠. 종이 한 조각에 적힌 단 한 마디, '작별인사'. 당신을 죽이겠다고요? …하지만 로돌프가 없었다면 저도 이미 죽었을 거예요. 당신을 용서한다니, 절대요. 아니, 용서할 수 있는 건 오직 지나간 잔인한 과거뿐이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제 생각에서 쫓겨나 이제는 경멸할 가치조차 없는 낯선 사람처럼."

그녀는 단호했고, 경멸적이며, 용서하지 않는 태도였다. 헨리 맥 알러미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그는 일어나서, 같은 날 cabin을 바꾸겠노라, 다시는 그녀를 귀찮게 하지 않겠노라, 그리고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뉴욕으로 돌아가겠노라 약속했다.

"당신의 신문과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요." 패트리샤가 명령조로 말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니, 신문은 지루해요. 제 전문 분야가 아니죠. 편집자들은 서로 협력해서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저는 출국 전에 권한을 위임했어요.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아내분은요?"

"저는 그녀를 증오해요. 그녀를 제대로 알게 된 이후로요. 그녀는 저를 당신에게서 빼앗기 위해 저에게 강요했어요. 그녀는 제멋대로이고, 이기적이며, 경박하고, 변덕스러운 아이예요!"

"당신의 자리는 그녀 곁에 있습니다! 그녀와 결혼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의무입니다!"

그는 항변했다. 울부짖었다. 다시금 그녀를 애원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가 단호함을 꺾지 않자, 결국 그녀는 요구하는 모든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패트리시아는 자신의 선실로 돌아와서 생각했다. '비겁한 놈, 흔들리기 쉬운 허수아비 같은 인간.'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잘못 볼 수 있었을까? 저자를 사랑할 만한 남자라고 생각하다니.'

헨리 맥 알러미는 그녀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평온한 잠에 빠졌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그녀는 밤중에 갑판에서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 있었으며, 그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바다에 던져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로 앤드루스 포브라는 이름을 쓰던 승객은 자취를 감췄다.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희생자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누가 그를 바다에 던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싸움이 벌어진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쪽은 바다에 빠져나갔고, 다른 한쪽은 자취를 감췄다. 선원들과 승객들을 상대로 수색을 벌였지만 헛수고였다.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다.

하지만 패트리샤는 단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그 확신에는 아무런 증거가 따르지 않았지만.

그녀는 가해자가 바로 '야수'라고 믿었다. 아버지를 죽인 뒤, 아들도 처리해버린 그 남자 말이다.

패트리샤는 야수가 승객들 사이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녀는 모든 얼굴을 주의 깊게 살폈다.

하지만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어떻게 그 남자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는 극적인 상황 속에서 잠깐 모습을 보였을 뿐이었다. 그때는 정확한 관찰을 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젊은 여자는 비록 용감했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알 수 없으나 위안이 되는 느낌을 얻지 못했다면, 괴로움의 시간을 겪었을 것이다.

예, 한 번 그녀를 구해 준 그 사람은 필요할 때 다시 구해 줄 것이다.

그가 이프드프랑스 호에 타고 있을까? 왜 아닐까? 그녀를 구하고,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는 전능하지 않았던가?

그녀는 가능한 모든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느낌으로, 그가 준 은색 호루라기를 자비로운 부적처럼 목에 걸었다.

최소한의 경고에도 그녀는 그를 부를 것이고, 그는 올 것이다. 그녀는 확신했다.

이제 안심한 그녀는 나머지 여정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야생인'도, '구원자'도 그녀가 찾는 그 침묵의 깊은 그림자 속에 그대로 숨어 있었다.

선착장 다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쪽을 향해 서서 배를 떠나는 승객들을 살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각인된 두 남자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한 명은 음울하고 저속하며 두려운 존재로, 끈질기고 야만적이며 대담한 열정을 지닌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단호하면서도 친근했으며, 그 힘은 너무도 막강해서 그녀가 그에게 구원과 방어를 약속받았기에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패트리샤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반하고 있었다.

제임스 맥알러미의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계획은 그로 하여금 프랑스행 여행을 결정하게 했다. 그러자 그의 살인범인 '야만인'도 프랑스행 배를 타기로 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뉴욕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시작해 놓은 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속하기 위해 프랑스로 향하려던 것이다.

그는 아마 영국에서 밀항해 배를 내려 프랑스에 들어오려 할 것이다. 그래서 파트리샤는 르아브르에서 자동차를 빌려 부로뉴, 그리고

칼레로 향했다. 영국에서 들어오는 배들의 하선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저녁 무렵, 칼레에서 한 남자가 보행교를 건넜다. 그는 너른 래글란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썼으며, 회색 목도리로 얼굴 아래를 싹 감췄다. 오른손에는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다. 왼팔 아래로는 신문과 잡지 더미 사이에 포장지와 끈으로 단단히 묶인 한 덩어리를 껴안고 있었다. 그 크기가 맥 알러미에게서 훔친 지갑과 정확히 일치했다.

파트리샤는 신중하게 몸을 숨긴 채 그 도착을 지켜보았다. 그는 '야수'라 불리던 남자의 실루엣을 알아봤다. 그녀는 그의 발자취를 쫓았다.

그는 파리로 가는 열차를 탔고, 파트리샤는 바로 옆 칸에 올랐다. 파르에 도착하자 그는 노르역 근처의 큰 호텔에 투숙했다. 파트리샤도 같은 호텔, 같은 층에 방을 잡았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그녀는 확신했다.

온종일 그녀는 기다렸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곧바로 무효로 만들었다. 위층의 하녀를 사서 여행자의 동향을 알아냈다.

그의 일상은 간단했다. 오후 내내 잠을 잤고, 저녁은 방에서 먹기로 했다. 그는 갈색 가죽 지갑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았다. 손잡이는 단단한 가죽으로 되어 있었다.

이 마지막 단서는 패트리샤의 망설임과 두려움을 떨쳐버렸다.

그녀는 그 도둑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행동해야 했다. 지갑을 빼앗아야 했다. 지갑 안의 문서를 이용할 시간이 생기기 전, 혹은 그가 안전한 은신처로 옮기기 전에.

파트리는 화장도구 상자에서 보석처럼 작은 권총을 꺼냈다. 그녀는 여행할 때면 이 총을 반드시 지녔다. 새로운, 그리고 상당한 팁을 주자, 하녀는 열쇠고리 하나로 살인자의 방 문을 열어주었다.

파트리는 안으로 들어섰다. 뒤에서 문을 닫았다. 이제 그녀는 그 남자와 둘만 남았다.

그는 방금 저녁 식사를 끝낸 참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파트리는 그의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것을 보았다. 그 얼굴은 거칠고 짐승 같았다. 그녀는 지금까지 계단이나 선창의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을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모습은 놀라움 때문에 거의 코믹하게 보였다.

하지만 그는 금방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비웃으려 했다.

"패트리샤! 아니, 당신이지! 참으로 놀라운 만남이군요! 오랜 친구를 찾아와 주시다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어서 앉으시오. 과일이나 커피, 리큐르라도 드릴까요? 하지만, 먼저 포옹이라도 하지 않으실래요?"

그가 한 발짝 그녀 쪽으로 다가섰다.

패트리샤가 작은 권총을 겨누며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시오, 알겠죠?"

그는 웃었지만, 자제하며 멈춰 섰다.

"그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당신이 '열한 명'의 회의가 끝난 뒤 돌아온 가게에서 맥 알러미 씨를 죽이고 훔쳐간 갈색 가죽 지갑을 돌려주시오."

패트리샤가 명령조로 말했다.

그는 또 한 번 웃었다.

"지갑을 훔치기 위해 살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으니, 돌려줄 리가 없지 않소? 대체 그 지갑을 무슨 용도로 쓰려는 것이오?"

"이전 상사가 시작했던 일을 이어가야 해요. 필수 서류는 모두 이 지갑에 들어 있나요?"

"물론이죠. 그 서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서류를 저에게 주세요. 경찰이 당신을 쫓고 있잖아요. 언제라도 두 가지 살인죄로 체포될 수 있고, 그러면 서류는 우리 손에서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우리?"

"당신을 위해 일하겠다고 동의하신 건가요, 아름다운 패트리시아?"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의 신문사를 위해서요."

"그건 결국 당신의 옛 친구, 알르미 주니어를 위한 셈이군요."

패트리시아는 목소리를 낮추며 떨림을 억누르지 못한 채 말했다.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물에 던져졌어요."

소바주는 어깨를 으쓱였다.

"장난이냐? 누군가 물에 빠진 건 맞지만…… 그 '주니어'는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속이고, 삼등석 승객들 무리 속에 숨은 거야. 뉴욕에서 온 최신 전보를 읽어보지 않았니?"

"그럼, 실제로 익사한 사람은 누구지?"

"미국에서 쫓겨난 이탈리아 이민자야.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지. 아마 협박을 하려다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나를 당신에게서 구해 준 남자가 그를 바다에 던진 건가요?"

"그런 남자는 모르겠소."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당신은 아르센 뤼팽이다'라고 말했죠!"

"나는 확신하지 못했소. 그가 뤼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당신은 지갑을 돌려달라는 거요?"

"내가 거절하면 어때?"

"그럼 경찰에 넘기겠소."

"좋아요. 하지만 먼저 우리끼리 계산을 해두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야만인은 망설이는 기색이었다. 결국 그는 투덜거렸다.

"당신 총과 경찰 앞에서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소?"

"지갑을 줘. 어디에 숨겨뒀어?"

"이불 밑이야. 기다려, 곧 줄게."

작은 권총의 위협을 받으며 야만인은 침대로 향했다. 몸을 굽혔다가, 이내 번개처럼 날카롭게 옆으로 튀어 올랐다. 동시에 베개가 방 안을 날아다녀 패트리샤의 얼굴을 강타했고, 그녀는 손에 쥔 권총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도둑은 그 권총을 빼앗아 젊은 여자를 향해 다가섰다.

어둑한 방 안, 그녀는 그의 얼굴이 냉혹하고 짐승 같은 표정으로 변해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은제 호루라기를 입에 대었다.

"멈춰! 안 그럼 부를 거야!"

"그럼 누가 올 거란 말이야?" 도적들이 비웃었다.

"나를 지켜준 사람. 이미 당신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 사람이요."

"그 신비한 구원자 말인가?"

"네, 구원자. 아르센 뤼팽이요."

"당신은 그가 올 거라고 믿는구려?" 뒤로 물러서 있던 '야만인'이 말했다.

"당신도 믿고 있잖아요, 가니마르 형사.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죠!"

그는 억지 장난기를 부려 보았다.

"좋아, 나팔불어 봐라. 그가 오게. 내가 직접 만나볼까 봐."

하지만 그 마음은 반쯤에 불과했다. 그는 결국 그 젊은 여자를 내보내고 말았기 때문이다.

파트리샤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다시 한 번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필요하면 경찰에 알리더라도 좋았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잠을 잤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오가며 발소리들과 흥분된 목소리 소리에 깨어났다.

일어난 그녀는 방앗간 여종에게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야수'라고 부르던 남자가, 밤사이 몽둥이 한 대에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도 버리지 않았다.

그를 공격한 자는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여행객들이 오가느라 바쁜 와중에, 그 사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파트리스는 기자증을 내밀어 경찰서장의 예비 수사에 끼어들 수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호텔로 돌아온 그녀는, 상처 입은 남자가 그녀에게 어떤 이유로든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하녀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하녀는 보상을 조건으로, 습격당한 남자의 지갑과 수첩을 건네주겠다고 했다. 그건 하녀가 방의 라디에이터 뒤에서 주운 것이었다. 파트리스는 이를 받아들이고, 남자의 가방에 대해 물었다. 아무도 그 가방을 본 적이 없었다. 야생인을 습격한 자는 분명 가방을 가지고 도망쳤을 것이다. 아마도 그 가방을 노리고 습격한 것이 분명했다.

지갑 속에는 마이카 필름 아래에 숨겨진 사진이 들어 있는 작은 신분증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맥 알러미가 쓴 한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수첩 한 페이지에는 에드거 벡커라는 인물의 포트스머스 주소(세인트 조지 여관)가 적혀 있었다. 나머지 페이지는 비어 있었다.

패트리샤는 이 에드거 벡커가 아마도 '야수'를 습격한 자, 즉 지갑을 훔친 도둑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의 정체를 파악하고, 만약 전리품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 남자本人을 직접 만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곧장 르아브르로 돌아가 영국 해협을 건너 포트스머스까지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세인트 조지 여관을 쉽게 찾아냈다.

항구 근처 작은 여관이었다. 안은 떠들썩했다. 여관 주인은 붉은머리에 수다스러운 굵은 체격의 남자로, 젊은 여자에게 정보를 알려주었다. 몇 시간 전, 여기서 살인이 있었다고 했다. 여관에 기거하던 에드가 벡커가 살해당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짧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참이었다.

"소지품에 누런빛 가죽 지갑이 있었나요?" 패트리샤가 물었다. 흥분된 목소리를 억누르려 애썼다.

"네, 미스. 제가 직접 그의 여행 가방에서 봤습니다. 벡커가 올라가서 쉬고 있었죠.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목격자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세 시간 뒤, 하녀가 벡커를 목이 졸린 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갑은요?" 패트리샤가 재차 물었다.

"지갑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첩 하나를 찾았죠. 아, 경찰에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트를 주시면 십 프랑 드리지요." 젊은 부인이 말했다.

주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요. 저한테 필요도 없고, 어차피 벡커가 제게 돈을 빌린 상태잖아요. 경찰이 대신 주겠지요?"

그 노트는 '야생인'의 것과 비슷했다. 알르미 씨가 서명한 신분증 같은 카드가 들어 있었고, 같은 크기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네 건의 살인이 자행되었습니다. 뉴욕에서 두 건, 영국에서 한 건, 파리에서 한 건. 겉보기에는 이 사건들 사이에 공통점이 없습니다. 경찰도 뉴욕의 두 건을 제외하고는 결코 이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같은 범인이 저지른 일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트리스는 그때 맥 알러미와의 대화를 들려주었다. 어느 밤 거리 끝까지 그를 따라간 이유, 자유 광장 매장에서 열린 열한 시의 만남, 황갈색 가죽 지갑 절도, 프레데리크 필데스에게 한 비극적인 전화를, 유럽행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건의 다른 범죄에 대해 그녀가 알고 있던 사실들까지.

그 이야기 속에 깃든 기교라니! 추론의 명쾌함이라니! 첫 문장부터 피어오르는 분위기라니! 아, 그녀는 노련한 알러미의 수업을 충분히 배웠구나!

그 기사는 다음 한 페이지로 막을 내린다. 이 한 페이지가 글 전체의 힘을 집약하고, 그 의미를 온전히 드러냈다.

결국 이 회의는 오랜 기간 준비된 것이 분명했다. 열한 명이 모여, 매우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첫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세 명이 죽고, 한 명의 암살 미수가 발생했다.

이 일이 살인이나 절도, 혹은 추악한 일만을 낳는 것일까? 아니다. 이 계획은 두 남자의 머리에서 태어났다. 도덕성이 의심의 여 없고, 성격이 그 누구보다 깨끗한 두 친구, 맥 알러미와 변호사 프레데릭 필드스의 작품이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했다. 함정과 위험, 장애물이 가득했다. 두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불명예스러운 자들을 동기로 선택해야 했다. 사업가들의 기사, 만능 노예들, 온갖 종류의 갱단원들. 맥 알러미는 그들의 요구와 숨겨진 탐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음으로 이어지는 모험에 휘말린다고 상상해 보라."

그리고 바로 그 일이 벌어졌다. 두 신사는 즉각 살해당했다. 계획 성공에 필수적인 문서들은 도난당했고, 세계 각지로 사냥감처럼 풀어져 나간 무리들이 맹렬한 야망을 품고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그들을 열광하게 만들었고,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또 다른 두 명의 희생자가 나왔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다.

"가설이라고요? 증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내 증명은 결론을 낼 때 꺼낼 생각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단 하나의 증거'다. 하지만 그건 결코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단서다. 뉴욕 경찰이 그 위력을 충분히 인정해 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찾아낸 두 개의 신분증이다. '야만인'과 에드거 벡커의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단언한다. 맥 알레미 씨와 변호사 프레데릭 필드스의 서류 속에서도 같은 신분증이 발견되거나, 곧 발견될 것이라고.

사실, 이 기사가 뉴욕 경찰의 귀에 들어간 직후, 두 친구의 사체에서 수거한 서류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경찰의 시선에서 빗겨나 있던 두 개의 신분증이 발견된 것이다.

그곳에 적힌 내용은 이랬다.

프레데리크 필드스의 것.

제임스 맥알러미의 것.

증거는 명백했다. 네 명의 희생자 모두에게서 동일한 표시가 발견된 것이다. 비밀번호인가? 결속의 신호인가? 실제로 존재하는 여성의 이

름인가? 아니면 '죄인 파울'을 뜻하는 특유의 별명인가? 알 수 없었다. 완전히 수수께끼였다.

하지만 적어도 살아남은 일곱 공범들이 이 이름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추측할 수 있었다.

그 이름 앞에는 대문자 'M'이 붙었고, 뒤에는 어둠의 조직 내에서의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발견한 바로 그날 밤, 두 살해된 남자의 수첩들이 경찰 본부에서 사라졌다. 어떻게? 또 다른 수수께끼가 하나 늘어난 셈이었다.

제3장

발소 하나 내지 않고 숨을 죽인 채, 노모 비크투아르가 욕실 문틈으로 슬그머니 들어섰다. 주인은 다채로운 무늬의 가운을 두른 채 소파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눈도 뜨지 않은 채 그는 중얼거렸다.

"왜 그렇게 조심하느냐? 문도 크게 닫고, 접시도 깨고, 폭스트롯을 추거나 큰 북을 치든 말든 나는 내가 정한 시간까진 절대 깨지 않는다. 나중에 보자, 비크투아르."

그는 고개를 베개 속으로 더 깊이 파묻고는 안심하고 다시 잠들었다.

비크투아르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며 탄식했다.

"자고 있을 때야 그의 그 장난기 어린 미소도, 깨어 있을 때만 보이는 공격적인 에너지도 보이지 않잖아. 그 모습은 늘 나를 불안하게 만

들곤 했지. 수십 년 동안 그를 돌봐 온 젖먹이 엄마로서는 아직 그 기색에 익숙해지지 못했으니까."

그녀는 다시 중얼거렸다.

"아이처럼 깊이 잠들었네… 아, 미소 짓고 있어. 분명 좋은 꿈을 꾸고 있겠지. 양심이 평온하다는 게 얼굴로 드러나네. 얼마나 평온한지… 그리고 얼마나 젊은지. 오십이 가까웠다는 게 믿어지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잠자던 남자가 그녀의 말을 들은 것이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붙잡고 목을 조랐다.

"입 다물어라!" 그가 외쳤다. "네 나이를 근처 정육점 상인에게까지 알려주려는 건가? 그 녀석이 너를 구애하고 있다는 걸?"

빅투아르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무엇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목을 감싸고 있는 그 거인의 손은 결코 조이지 않았다.

"옆집 정육점 주인이요… 오, 그건…"

"내 나이가 터무니없다고 소리 지르며 나를 비방하는군."

"여긴 우리 둘뿐이에요."

"나도 있잖아. 나이는 서른도 안 된다는 걸."

"그럼 왜 터무니없는 숫자로 나를 상처 입히려는 거야?"

그는 소파에 다시 앉았다. 하품을 하고, 물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다정하게 유모를 입맞췄다. 그러고는 외쳤다.

"빅투아르, 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

"왜요, 내 사랑?"

"내 인생을 정리했기 때문이지. 더 이상 모험은 없어! 빅토르의 이야기와 칼리오스트로의 여정은 마지막이야. 지쳤어!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뒀으니, 이제 번거로움 없이 부호로서 누릴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여자들 문제도 끝장 내겠어. 사랑도, 정복도, 작은 파란 꽃도, 세레나데도, 초승달도 모두 충분해. 다 싫증났어! 단단히 다듬은 셔츠와 첫 번째 정장을 입혀 줘."

"나가는 거야?"

"그래, 호라스 벨몽트. 프랑스의 오래된 항해 가문의 유일한 후손이자, 트란스발로 이주해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부를 쌓은 사람이 오늘 밤, 은행가 앙젤만의 연례 대연회에 참석할 거야. 나를 치장해 줘, 노친석아!"

열한 시 반쯤, 오라스 벨몽은 생토노레 가의 호화 빌라 앞에 도착했다. 이 건물은 앵겔만 은행과 은행가의 거주지가 함께 있는 곳이었다.

그는 사무실용 동굴 사이를 지나 아치형 통로 아래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거주용 날개 건물들이 둘러싼 안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당 뒤로는 푸른 잔디밭이 이어졌고, 그 끝은 샹젤리제 거리까지 닿아 있었다.

이 마당과 잔디밭 위에는 두 개의 큰 천막이 쳐져 있었다.

배경 전체는 하나의 놀이공원이 차지하고 있었다. 회전목마와 그네, 갖가지 놀이기구가 있었고,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는 박람회 부스, 권투와 이색적인 레슬링을 위한 링까지 있었다.

눈부신 빛의 배경 속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들었다. 세 개의 오케스트라와 세 개의 재즈 밴드가 열광적인 연주를 이어갔다.

입구에서 앙겔만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얀 머리카락 아래서도 그는 아직 젊어 보였다. 얼굴은 또렷하고 붉으며, 마치 영화 속 미국 금융가처럼 카메라에 잘 맞는 인상을 풍겼다. 그는 세 번의 파산을 예술가처럼, 명예롭게, 그리고 품위 있게 처리하며 자신의 지위를 다져놓았다.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는 그의 아내, 아름다운 앙겔만 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수많은 팬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호라스는 은행가의 손을 꼭 쥐었다.

"안녕, 앙젤만."

앙젤만은 그 얼굴에 이름을 대지 못하는 듯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답했다.

"고마워, 친애하는 친구. 찾아와 주다니 정말 기특하군."

친애하는 친구는 잠시 물러서려는 기색을 보였다가 다시 돌아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 앙젤만?"

은행가는 몸을 살짝 떨며 억눌렀다. 같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글쎄, 잘 모르겠네. 너라는 이름이 너무 많잖아."

"나는 나를 장난감 삼는 걸 싫어하는 자네. 증거는 없어도, 자네가 나를 배신하는 것 같아."

"저를… 배신?"

강철 같은 손가락이 친근한 척 어깨를 꽉 쥐었다. 낮은 목소리가 날카롭게 쏴다.

"들으시오, 앙겔만. 내가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는 날, 너를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 내겠소.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거요. 하지만 그전까지,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소. 대신 네 충성을 담보로 삼을 것은 바로, 너의 놀라운 반려자요."

은행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는 공공장소, 그것도 자기 집에서였다. 그는 곧 자신을 수습하고, 세련된 미소를 되찾았다.

그때 호라세가 지나가더니, 이제 아름다운 앙겔만 부인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그는 위대한 귀족의 완벽한 여유와, 계산된 우아함으로 그녀의 손을 입에 대고 키웠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며 속삭였다.

"안녕하세요, 마리테레즈… 그러니까, 여전히 젊고, 여전히 매혹적이고, 여전히 순결하시군요?"

그는 장난스럽게 비꼰 것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같은 수준의 아이러니로 속삭였다.

"당신은요, 아름다운 어둠의 남자. 여전히 정직하시죠?"

"물론이지. 정직은 내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 중 하나야. 하지만 여자들이 내게 가장 매료되는 점은 아니지. 그렇지, 마리테레즈?"

"당신 참, 거만하네요."

마리테레즈는 어깨를 으쓱이며 살짝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자 뤼팽은 더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남편을 잘 감시해라, 마리테레즈. 내 말 믿어라. 꼭 감시해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당황한 듯 중얼거렸다.

"아, 그런 건 아니야. 아름다운 마리테레즈에게 배신할 리가 없지. 더 심각한 일이라니… 내 말 믿어라. 꼭 감시해야 해."

호라스는 미소를 띤 채, 스스로에 만족하는 듯한 표정으로 정원의 놀이 시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잠시 군중 속을 거닐었다. 그곳에는 예쁜 여자들이 많았다. 그가 알고 지내던 몇몇 여자에게는 미소를 건넸다.

그녀들은 미소를 되돌려주며 살짝 얼굴을 붉혔고, 그의 뒤를 눈으로 쫓았다. 그는 분명히 재미를 보려는 기세였다.

그는 회전목마를 한 바퀴 돌다가, 레슬링 부스 근처로 다가갔다. 분홍색 수영복과 호피 무늬 가죽 반바지를 입은 노련한 선수가, 거구이면서 오만하고 거친 프로 레슬러와 겨루다 손목이 골절되는 바람에 쓰러져 있었다.

호라스는 모자를 벗고 노선수에게 돈을 구걸한 뒤, 부스 안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그는 수영복 차림으로 링 위에 다시 나타났다. 그 덕분에 그의 물결치듯 유연하고 탄력 있는 근육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는 거대한 레슬러를 도전했고, 일본식 최상의 기술로 두 번에 걸쳐 그를 쓰러뜨렸다. 열광한 군중은 그를 환호로 맞이했다.

그가 정장을 차려입고 부스를 나올 때,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를 에워쌌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무용수들이 춤추는 pista 쪽으로 사라져 갔다.

군중이 동그랗게 둘러선 자리에서 한 쌍의 배우가 특히 주목을 끌었다. 그들은 마법사처럼 경이로운 신체 유연성을 자랑하며 공중제비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호라스도 그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키가 큰 한 남자가 다가와 호라스 앞을 가로막았다.

남자는 키가 유난히 컸다. 호라스는 더 이상 무대 위를 볼 수 없었다. 그는 발걸음을 옮겼지만, 남자는 잠시 후 따라 움직이며 다시 앞을 가렸다.

호라스가 항의하려던 찰나, 군중이 요동쳤다. 남자는 뒤로 물러나며 호라스의 발등을 밟았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그는 그 사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미안합니다, 신신당부하오." 호라스가 투덜거렸다.

그 남자가 돌아섰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청년이었다. 옷매무새는 말끔하게 다듬어졌고, 얼굴도 잘생겼다. 곱슬거리는 턱수염이 단단한 레반트인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호라스를 힐끗 보았지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춤이 막 끝났다. 관현악단이 곧바로 다른 곡을 시작했다. 탱고였다.

레반트인이 몇 발짝 떨어진 곳의 아름다운 여성에게 허리를 굽혔다. 그녀는 앵글로색슨족 특유의 우아한 자태를 지니고 있었다. 호라스는 이미 그녀의 물결치는 듯한 걸음걸이에 눈여겨본 바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청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완벽한 춤사위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기 위해 둥글게 모여들었다.

레반틴이 그 젊은 여성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자, 다시 호라스 벨몽트 앞에 서서 그를 압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호라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그는 레반틴의 팔을 낚아채고 힘껏 밀어냈다.

당황한 레반틴이 화가 난 듯 몸을 돌렸다.

"선생님……."

"참으로 무례한 놈이로군!" 벨몽트가 쏘아붙였다.

남자는 분노에 얼굴이 붉어지며 위압적인 어조로 말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확인했을 뿐입니다."

"저는 모욕을 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랐습니다."

레반틴이 위엄 있는 제스처를 취하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아말티 디 아말토 백작입니다. 선생님의 성함은?"

"오테유롱샹 공작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호라스 벨몽트의 냉소적이고 차분한 태도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분노한 레반틴은 다시 얼굴이 붉어지며 물었다.

"선생님의 주소는?"

"네. 중대한 일일수록, 그리고 이번 건은 분명 중대한 일이라 생각하네. 나는 늘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거든. 당신이 모욕을 당한 쪽이군. 좋소. 어떤 무기를 쓰겠소? 검? 권총? 도끼? 독이 발린 단도? 대포? 1430년형 활?"

주변에서는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낯선 남자는 이 장난기 많고 완고한 상대와 맞서면 자신이 우스꽝스러워질까 봐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고 차갑게 대답했다.

"권총입니다, 선생님."

"좋소. 가자."

그들은 과외 놀이 터 한쪽 구석에 있었다. 과녁과 물총, 그리고 계란 껍데기가 튀어 오르는 물줄기가 있는 곳이었다. 호라체는 제2제국 시대에나 쓰이던, 총알 두 발이 들어가는 긴 플로베르 권총 두 자루를 들어 올렸다. 그는 그 권총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장전되는 것을 확인한 뒤, 그중 한 자루를 암알티 백작에게 건네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계란 껍데기 두 개가 떨어지면, 명예는 지킬 수 있습니다."

레반틴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 장난에 굴복했다. 그는 권총을 받아 들고 오래瞄准했지만, 명중시키지 못했다. 호라체는 권총을 그의 손에서 빼앗아, 두 자루의 총을 팔을 쭉 뻗은 채 아무瞄准도 하지 않은 채 느긋하게 쥐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계란 껍데기 두 개가 떨어졌다.

군중이 함성을 지르며 환호했다.

"명예는 지켰습니다, 각하. 저희 두 조개껍질이 잔디밭 위를 굴러다녔습니다."

호라세가 손을 내밀자, 알마티 백작은 웃음을 터뜨리며 대꾸했다.

"잘했다, monsieur! 기지와 재주가 돋보인다. 내 기대 이상이다.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

"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호라세가 태연하게 선을 그으며 말했다. 그는 곧장 발걸음을 옮겨 군중의 호기심을 피했다.

그는 정원의 비교적 한적한 구석에서 잠시 산책했다. 그리고 곧장 출구 쪽으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한 손이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monsieur?"

여성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라세가 몸을 돌렸다.

"아! 아름다운 앵글로색슨 여성이시군요!"

그가 기쁨에 찬 어조로 외쳤다.

"미국인이요, 미망인이 아닙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호라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자,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상트르롱샹 공작이시면 충분하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당신의 이름을 모릅니다."

"정말요? 생각해보시죠. 뉴욕의 한 건물 계단에서 만난 적 있지 않나요? 기억나지 않나요? 게다가 저는 이미 한 시간 동안 당신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렇다면 감시라니요?"

"왜요?"

"당신이 바로 며칠째 찾고 있던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남자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요."

"미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남자는 언제나 저뿐입니다." 호라스가 여전히 우아하게 말했다. "자, 저는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팔을 감싸 안고, 자신이 왔던 비교적 한적한 곳까지 군중 사이를 이끌고 갔다. 정원의 나무들 아래, 그들은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 추우진 않죠?" 호라스가 물었다.

"전 추위를 타지 않아요." 그녀가 나체 어깨를 덮고 있던 가제 천을 치우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호라스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는 놀랐다.

"무슨 말씀이세요?"

"보게 해 주셔서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스 마르블 같은 분이죠!"

그녀는 살짝 붉은 얼굴로 눈썹을 찌푸리며 가제 천을 다시 어깨에 덮었다.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그녀가 차가운 어조로 물었다.

"물론이죠.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기쁠 테니까요!"

"그래,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미국 경찰 전문 거대 신문과 계약하고 있어. 그 덕분에 한 건의 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됐지. 그 사건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프랑스에서 벌어졌어. 맥 알레미 사건이라고."

"그 신문과의 협력 덕분에 기대 이상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나는 이제 두 달째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하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져버렸어. 할 말을 잃고 있을 때, 이틀 전에 경찰청으로 달려갔어. 이미 여러 차례 내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착한 형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 형사가 결국 이렇게 외쳤어."

"'아, 만약 마숑의 도움이 있었다면!'"

"'마숑?'" 호레이스가 물었다.

"이렇습니다." 가니마르 형사가 말했다. "우리는 그를 '특이한 인물'이라고 부릅니다. 때때로 우리와 함께 일하기도 하지요. 그의 이름은 물론이고, 진짜 얼굴도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에 나오는 인물인 것 같고, 매우 부유한 귀족이라고 합니다. 그는 항상 특이한 방식으로 행동하며, 놀랄 만큼 뛰어난 체력과 재주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정함을 지니고 있죠. 하지만 어디서 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앙젤만 남작이 내일 상트노레 거리 저택에서 매년 열리는 연례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파리 사회의 모든 이들을 초대하죠. 그 자리에도 그가 있을 것입니다. 그를 찾아내서 우리 사업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래서, 당신도 여기까지 왔군요?" 호라세가 물었다. "그리고 제가 마당에서 운동선수 한 명을 쓰러뜨리고, 헌금함을 돌리고, 달걀 껍질과 결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고는 '아, 바로 저 사람이지!'라고 생각한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 여성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미스. 저는 바로 그 '저 사람'이며, 당신의 모든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미국 사건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맥 알러미 사건 말입니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그에 관한 기사를 한 여성이 썼더군요."

"네, 바로 저입니다. 패트리샤 존스턴이요."

"감사합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하시는 말씀이시군요?" 패트리샤가 칭찬의 어조에 경각심을 느끼며 물었다.

"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사가 너무 잘 쓰였거든요. 문학적이라기보다는 너무 과장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범죄 사건을 다

룰 때, 꾸밈없이 솔직하게, 효과나 반전을 노리지 않은 직설적인 서사를 좋아합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된 반전이 있는 추리 소설은 저를 졸리게 만들죠."

그녀가 미소 지었다.

"제 비서 시절 알레르미 씨가 저에게 주던 조언과는 정반대군요. 하지만 그만두고, 제가 알아낸 사실을 말해 드릴게요."

그녀는 간결하게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눈을 떼지 않은 채 경청했다. 그녀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가 말했다.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제 설명이 기사보다 더 명확했나요?"

"아니요. 하지만 당신의 입으로 직접 들었으니까요. 당신의 입술은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그녀는 다시 얼굴이 붉어졌다. 불쾌한 듯 중얼거렸다.

"아, 프랑스인들… 언제나 똑같아요…"

"항상입니다, 마들모아젤." 그가 태연하게 말했다. "저는 여자에게 솔직하게 대화하기 전에, 먼저 그녀에 대한 제 생각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아름다움, 어깨, 입술에 대한 찬사를 드렸으니,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무엇이 당신을 망설이게 합니까?"

"포츠머스에서 네 번째 살인이 발생한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단서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파리에 온 지 이제 삼 개월째입니다. 삼 개월 동안 헛되이 찾아다녔죠."

"그건 당신의 잘못입니다."

"제 잘못?"

"네요. 우연히 당신에게 제공된 사실들에서, 당신은 진리의 일부만 끌어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사실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당신 말을 듣는 동안 제가 더 많은 걸 알아냈잖아요. 그러니 만약 당신이 막힌 게 있다면, 그건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소홀했던 거죠. 생각하기를 게을렀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소홀하고 게을렀다는 거죠?" 파트리시아가 약간 모욕감을 느끼며 물었다.

"당신은 폴 시네라는 이름에 대한 설명을 너무 쉽게 받아들였어요. '시네(Sinner)'는 '죄인'을 뜻하죠. 그래서 당신은 폴 시네를 '죄 많은 폴'이라고 결론 지었어요. 너무 단순한 설명이에요. 너무 쉬운 결론이

었죠. 당신은 현실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고, 과거에 아르센 뤼팽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해야 했어요. 그분을 아시나요?"

"그의 활약상을 읽어서는 알죠. 모두들 그렇듯 말이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잃고 있군요." 오라스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가 뭘 했다는 거예요?"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즐거움을 위해, 그는 자신의 이름과 성의 글자를 섞었다가 다른 형태로 재구성한 적이 두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는 잠시 동안 러시아 공작 파울 세르닌이 되기도 했고, 나중에는 포르투갈 귀족 루이스 페레나가 되기도 했죠.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서 호라스는 지갑에서 몇 장의 명함을 꺼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파울 세르닌'이라는 두 단어의 글자들을 하나씩 떼어, 각각의 작은 카드에 한 글자씩 적어 열한 장의 카드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그 카드들을 젊은 여성에게 건네며 말했다.

"순서대로 읽어보세요."

그녀는 열한 글자를 소리 내어 읽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외쳤다.

"즉, 아름다운 Patricia 양,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의 열한 글자가 바로 열한 글자로 된 이름과 성을 만들어내는 데 쓰였다는 뜻입니다. 바로 '폴 시너'라는 이름이죠."

"그렇다면 폴 시너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말씀인가요?" Patricia가 물었다.

Horace가 고개를 저었다.

"그렇습니다. 존재하지 않죠. 그것은 그저 통과와 신분을 확인하는 암호일 뿐입니다. 그 암호를 뉴욕의 무리에게 잘 맞춰주셨군요."

"그 암호는 실은 아르센 뤼팽이라는 이름을 감추고 있던 것인가요?"

"맞습니다."

"그 아르센 뤼팽이 이 사건에서, 물론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건은 그렇게 정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뤼팽은 평소에 평화로운 성향이라, 이미 저질렀네 네 건의 살인과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 조직이 뤼팽이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를 골치 아프게 만들려고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맥 알러미가 말한 대로, 도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죠.

그와 프레데릭 필데스 같은 정통주의자들에게는, 악당과 맞서서 그에게 재산을 돌려받게 하는 것보다 더 도덕적이고 칭찬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부를 전문가인 자신들이 손에 쥐게 되는 것이죠.

그 부를 훔치든, 그를 협박해서 빼앗든 말입니다."

«마피아 대 아르센 뤼팽». 내가 보기엔 이 새로운 십자군의 모토이자 지시사항은 바로 이것이다.

물론해야 할 대상, 즉 싸워 없애야 할 불신자이자 이방인, 그리고 사라센인은 바로 아르센 뤼팽 씨다.

예루살렘 정복을 위해 입대한 고드프로아 뒤빌롱, 리처드 코르데르, 성 루이 같은 십자군들은 바로 맥 알러미, 프레데릭 필드스, 그리고 야수다.

나와 똑같이 믿지 않느냐?

"당연하지요."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맥 알러미를 내가 아는 대로라면, 그는 자신이 보는 안티크라이스트, 즉 아르센 뤼팽을 무너뜨리기 위해 싸움에 뛰어들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제4장

파트리아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중얼거렸다. 마치 혼자에게 하는 말처럼.

"그래서, 마피아와 아르센 뤼팽이 맞선다고?!"

그녀는 고개를 들고, 호라스 벨몽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마피아라고…."

그녀가 되뇌었다.

"네, 당신의 결론은 정확해야 해."

"물론이죠." 그가 말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마피아는 지도자들이 꿈꾸는 '악과의 투쟁'이라는 위대한 목적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돈을 원하죠. 그래서 일단은 과거의 용병들처럼 자신의

서비스를 임대합니다. 복수를 원하는 개인이나, 보복을 피하려는 이들에게 고용되기도 하고, 성가신 고위 관료나 적대적인 장군, 너무 강경한 정치가를 제거하기로 결심한 정치 세력들의 돈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세간에서 떠도는 그 마피아가 바로 이런 건가요?"

"당신은 그 증거를 확보한 셈이군요?"

"당신도 그걸 손에 넣었을 겁니다. 경찰이나 일반 대중이나 모두 마찬가지죠. 당신이 찾아내어 세상에 알린 공범자들의 신원증과 식별증에는 모두 대문자 'M'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M'은 마피아(Maffia)의 첫 글자입니다. 그 뒤에는 'M'과 'A'가 이어지는데, 이는 맥 알러미(Mac Allermy)의 이니셜입니다. 그리고 'FF'는 프레데릭 필드스(Frédéric Fildes)의 이니셜이죠. 더구나 저는 맥 알러미의 비서 역할을 하던 남자, 당신이 '야수'라고 부르는 그 자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그는 결국 이 무리의 두목이 되었죠. 그의 이름은 마피아노(Maffiano)입니다. 팔레르모 출신의 시칠리아 사람인 그에게서 지도자들은 '마피아'라는 단어를 따냈습니다. 예전 시칠리아의 악당들이 자행한 범죄에 정치적 색채를 입히려던 그 조직, 바로 마피아 말입니다. 잊을 수 없는 불길한 기억을 남긴 마피아요."

"지금 프랑스에서 떠들썩하게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마피아를 말하는 건가?"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광범위한 용어로, 제 생각에는 악의 정신이 모든 형태로 나타난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마피아가 존재합니다. 각국에 흩어진 여러 조직들이 이 거대한 연맹에 속해 있죠. 그들의 목적은 절도와 살해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뉴욕에 조직의 핵심과 활동 거점이 있다는 것을요. 그곳은 유럽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맥 알러미와 프레데릭 필드가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범죄성을 모른 채, 그것을 선한 힘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제 정보에 따르면, 이 활동 거점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시실리인 마피아노가 이끄는 실행 요원들, 다른 하나는 두 친구가 만든 감사와 회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회비를 모으고, 무엇보다 이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죠.

일반적으로 이런 조직의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익 배분도 철저할 정도로 규칙적입니다. 계급과 서열에 따라 각자에게 할당된 몫이 정해져 있죠. 과거 해적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직의 법을 어기거나 실패할 경우, 벌칙은 하나뿐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리고 범인은 결코 도망치지 못합니다. 안전한 은신처도, 그를 보호해 줄 변장도 없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등에는 M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단도 한 자국이 박혀 있죠. 마피아의 표식입니다."

패트리샤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좋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모든 점에서 옳습니다. 하지만 파울 시네라는 이름이 가진 전체적인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저의 큰 실수를 생각할 때, 그 편지 속의 'M'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끔찍한 결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당신은 분명 특별한 정보를 입수했을 겁니다."

"당연하지." 호라스 버몬트가 인정했다.

"어떤 방식으로요? 배신한 회원 중 한 명이었나요?"

"맞아요. 아르센 뤼팽의 옛 동료가 배신한 거죠."

"그럼 당신 편 동료가 맞죠, 시인하세요!"

"마음에 드시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뤼팽의 옛 동업자였던 자가 뉴욕에서 갱단이 되었죠. 그이가 맥 알러미에게 고용되었는데, 아르센 뤼팽을 조종하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제게 경고하러 왔습니다.

저는 곧장 배를 타고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맥 알러미 주변을 두루 기웃거리며 중요한 파일을 하나 팔아치웠고요. 그 후로 저는 가입을 요청했죠."

"당신은 마피아에 가입한 거요!"

"그렇습니다. 상급 위원회까지요. 여기 제 신분을 증명하는 카드를 드리죠. 폴 시너, 번호 XI."

"참으로 놀랍군요." 젊은 여자가 탄성을 지르며 감탄했다. "이토록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이라니,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제야 이해가 가시죠?"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목소리는 오히려 더 크게 내며, 마치 이어지는 대화를 이어가는 양 말했다.

"결국, 마들렌 자매님. 남작부인은 자신의 초상화가 붉은 머리로 그려졌지만, 현재는 금발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화가는 소송을 걸 생각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패트리샤는 어이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냉정하게… 아니,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감시하고 있죠."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패트리샤는 크게 웃으며 높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벨몽트가 말했다.

그리고 속삭이듯 이어서 말했다.

"저기 저녁 차림새를 한 세 네 명 보이시죠? 바로 그곳, 손님들 틈에 섞여 있지만 왠지 수상하고, 은밀하고, 불길한 기운이 풍겨서 한눈에 도둑놈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네, 기억납니다." 젊은 여자가 억눌린 흥분으로 말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뉴욕에서 본 이들입니다. 살인 사건이 있던 날 밤, 리버티 광장 아케이드 아래에서 본 사람들이요."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당신입니다!"

"물론입니다." 호라스는 차분하게 말했다. "연맹이 처음 열한 명으로 시작했다는 걸 생각해보십시오. 분배 시점에 네 명, 혹은 세 명만 남게 되면, 그들만이 모든 전리품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맹원들은 스스로를 서서히 청소해 나가는 것입니다. 곧 successive한 제거 과정을 거쳐, 다음 9월 말 예정인 최종 정산과 해산 때는 단 한 명의 공범만 남게 될 것입니다. 자, 오른쪽을 보십시오. 다리가 길고 팔도 긴 그 큰 키의 남자를 아십니까?"

"아니요, 전혀요."

"방금 그와 춤을 추셨군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거절했어야 했는데…… 아! 저기가 멀어지는군요."

"알마티 디 알마토 백작, 마피아노 남작입니다."

"'야수'라고요? 공범 중 한 명? 그 사람이 지휘자라고 보시던?"

"네. 막 알레르미의 비서이자, 그의 모든 일을 도맡은 하수인이죠. 그림자 속에 숨어 당신을 괴롭히던 자. 막 알레르미와 프레데리크 필데스를 살해한 자."

"그리고 내가 파리 호텔에서 본 자리에서 맞기도 했던!"

"맞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부상을 입고도 살아남아, 당신의 기사가 나와 그의 역할을 폭로하기 전, 이미 병원을 빠져나갔죠."

용감한 젊은 여자였지만, 그녀는 오싹한 기운을 느꼈다.

"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 사람이 무서워요. 조심하세요, 제발!"

"당신도 조심해야 해요, 패트리샤. 그 남자가 당신을 쫓고 있다면, 결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는 위협이 될 테니까."

그녀는 불안감을 억누르려 애썼다.

'내가 뭘 두려워해야 하지?'

'나만큼이나.'

'하지만 나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당신은 적입니다. 뉴욕을 떠난 지 열 분 뒤, 유럽에 있는 모든 가맹점에게 같은 전보가 날아갔습니다. "패트리샤 존스턴, 비서가 1번과 2번 M의 복수를 위해 탑승한다"고요. 그 이후로 당신은

감시받고 있으며,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셈입니다. 오늘 밤, 죽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나갑시다. 저와 함께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밤을 저의 집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좋아요.' 그녀가 순종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제 안전만큼이나 당신의 안전도 걱정되는 일입니다. 뤼팽의 모든 거처를 모두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제가 그들에게 건넨 목록은 맥 알러미가 죽기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현재 제 주소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패트리샤.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댈게요. 존경하는 내 팔로 당신의 허리를 감싸 주게요. 네, 바로 그 느낌으로요. 이제 함께 떠납시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거나 서로를 보호하고 구하려는 비겁한 공범자처럼가 아니라, 열정에 취해 서로를 부드럽게 꼭 안는 연인처럼요. 자, 패트리샤, 갑시다!"

젊은 여성은 그의 말에 따랐다. 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겨 함께 떠났다.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로.

그들은 출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원의 한복판, 어둡고 적막한 구역을 지나던 찰나, 날씬하고 키 큰 남자의 실루엣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났다.

호라스 벨몽트의 손이 패트리샤의 허리에서 떨어졌다. 번개처럼 빠른 손동작으로 그는 손전등의 빛을 새로 나타난 남자의 얼굴에 쏘아 올렸다. 다른 한 손은 이미 그 남자의 목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호라스가 차갑고도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 바로 너야. 아마르티 디 아마르토, 마피아노 남작." 그가 장난기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야수'라고 불리는 너 말이지. 길 좀 비켜주게. 너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숲속에서 마주치기 싫은 얼굴이잖아. 여기에서도 너를 피하는 게 낫겠다. 너처럼 맥 알러미 형사, 네 상사를 죽인 자처럼 나도 죽일까 봐 두렵거든. 프레드릭 필데스 변호사 이야기까지 하면 더더욱이지."

그가 잠시 멈추더니 다시 말했다.

"그래, 좋은 충고 하나 해줄까? 패트리샤 존스턴은 놔두는 게 좋겠어."

도적은 뒤로 물러서는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뉴욕에서 그 여자를 우리한테 해로운 존재로 지목했거든요."

"좋아. 그럼 나는 파리에서 그 여자를 무해한 존재로 알려주마.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러니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마라, 마피아노. 만약 손댄다면…"

남자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너… 언젠가는…"

"오히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군, 친구. 네가 이득을 볼 테니까. 나한테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반대지."

"당신은 아르센 뤼팽이군요."

"그게 더 큰 이유야! 어서 가! 얼른 길을 비켜! 마피아노의 마피아 단속에 신경 쓰되, 우리한테는 신경 쓰지 마. 내 말 믿어, 그게 더 현명해."

도적은 잠시 주저하더니, 갑자기 그림자 속으로 파고들었다. 마치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호라스와 패트리샤는 정원을 나와 빈 큰 방을 가로질렀다. 패트리샤가 홀더에서 코트를 가져오는 사이, 호라스는 앙겔만 여작에게 인사를 하며 작별을 고했다.

"당신의 새로운 전리품이 아주 훌륭하군요." 앙겔만 여작이 비웃기보다는 서운한 어조로 속삭였다.

"정말 아름답군요." 호라세가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파리를 모르는 대서양 너머의 친구가 저에게 집까지 모셔다 달라고 부탁한 거죠."

"그거야말로!" "불쌍한 친구, 운이 없네요!"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때를 맞춰 찾아온다." 호라세가 교훈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녀가 눈을 마주쳤다.

"그래서 당신은 늘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이상입니다." 호라세가 답했다.

남작은 시선을 돌렸다. 패트리샤가 그들에게로 다가오고 있었다.

호라세가 젊은 미국 여성의 팔을 잡았고, 두 사람은 앙겔만 호텔을 나섰다.

보도 위를 몇 발자국 걷던 호라세가 동반자에게 말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밤은 집에 가지 마십시오, 패트리샤."

"그럼 어디에요?"

"내 집으로 갑시다. 저 자들은 화가 난 상태고, 당신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떤 짓도 불사합니다."

"가신은 하인들을 믿으십니까?" 젊은 여자가 물었다.

"나는 늙은 하녀 한 명만 두고 있습니다. 옛 젖모인 비크투아르죠. 그녀는 죽을 때까지 저를 위해 헌신합니다."

"충실한 비크투아르 말입니까?"

"네. 나는 그녀를 내 자신만큼 믿습니다. 오십시오!"

그녀를 차까지 데려간 그는 함께 탑승했다. 15분 후, 오라스는 아우퇴유의 사이공 대로에 있는 자신의 저택 앞에서 차를 세웠다.

거리의 철문을 열며 그는 비크투아르에게 알리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그들이 현관에 도착했을 때, 늙은 젖모는 나타나지 않았다.

벨몽트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상하다." 그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비크토아리가 현관등을 켜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다. 내가 집에 없을 때면 그녀는 절대 잠들지 않는데."

그가 불을 켜자마자 곧장 계단 매트로 몸을 낮췄다.

"사람들이 왔다. 여기 발자국이 있다! 올라갈까?"

급히 Patricia를 따라 그는 계단을 올라 두 번째 층까지 올라가 문을 열었다. 침실 안, 비크토라리가 소파에 누워 있었다. 입은 막히고 몸은 묶여 있었으며, 눈에는 눈가리개가 씌워져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달려가 Patricia의 도움으로 그녀를 풀어주었다. 비크토아리는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상처는 없지? 다친 곳은?" Velmont이 물었다.

착한 여자는 자신의 몸을 더듬어 보았다.

"아니, 없어…."

"무슨 일이 있었나? 너를 습격했지. 그들을 봤나? 어디서 왔나?"

"식당 쪽 출구로 나갔겠죠. 저는 여기에서 졸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제 머리에 뭔가를 던졌어요."

호라스는 이미 1층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큰 방 끝에는 부엌이 있었고, 그 부엌의 찬장 안쪽으로는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다. 그 계단은 땅속을 파고들어 마당을 내려다보는 통로로 연결되는 문으로 이어졌다. 그 문은 열려 있었다.

"이 개새끼들!" 호라스가 으르렁거렸다. "나를 감시했어! 모든 걸 알아챈 거야! 헛! 헛! 이 녀석들은 만만치 않은 상대군. 이들과 장난칠 생각은 추호도 없지."

그는 다시 돌아와 창문 앞 테이블에 앉았다. 파트리스는 뒤따라왔지만, 아직 어지러움에 시달리던 빅투아르는 위층에 남겨두었다. 젊은 미국인 여성은 호라스의 맞은편, 테이블 다른 쪽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말을 나누지 않았다. 둘 다 깊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침내 파트리스가 입을 열었다.

"저 마피아 무리는 아르센 뤼팽을 어떻게 털 생각인가? 재물은 손가방처럼 가볍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뤼팽은 자신이 가진 서류나 주식, 보석 같은 것들을 여기저기 팔아치우며 장사꾼처럼 굴었지. 그렇게 모은 현금은 꽤 되는 액수였고, 그 돈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그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 돈이 곧 발각될지도 몰라. 이제야말로 그들과 뤼팽의 대결이 시작되는 거야. 음, 나는 인정해야겠네. 상대방이 가진 카드도 만만치 않다는 걸. 그래도 뤼팽은 뤼팽이잖아!"

"그럼 뤼팽은 평온한 건가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적들은 많고, 손재주도 뛰어나며, 어떤 수단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충분히 증명했죠. 게다가 필요한 돈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자금으로 맥 앨러미와 프레데리크 필데스는 각각 십만 프랑을 가져왔고, 다른 이들은 이후 여러 가지 모호한 수단을 통해 그 금액을 두 배로 불렸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가장 큰 우군이 있는 셈입니다. 뤼팽은 더 이상 전선에서 싸우는 게 지겨워진 겁니다. 그는 휴식을 원하고, 평온한 삶을 원하며,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인생을 누리고, 자신이 이룬 성과의 열매를 즐기려 합니다.

그의 처지는 마치 승리를 거둔 후의 프랑스 원수들, 그리고 나폴레옹의 운명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할 때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는 지친 것입니다."

호라스 벨몽은 말을 갑자기 멈췄다. 그는 이미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 뤼팽이 정말 그렇게 부자야?" 파트리가 무심한 듯 물었다.

"음, 도무지 가늠이 안 가. 몇십억 정도 될까? 일곱, 여덟, 아니 아홉 억까지도 갈지 몰라."

"제법 나쁘지 않은 액수네."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그토록 많은 노력을 들였으니, 그만큼 그 돈에 집착할 권리가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 한 건당 천만 프랑씩, 총 일백 건에서 이백 건 정도 되는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각각이 모두 복잡한 계략이고, 지칠 줄 모르는 원정이며, 감수한 위험과 입은 상처, 끔찍한 투쟁, 그리고 좌절스러운 패배로 가득합니다.

그うえ에 나쁜 투자와 무너진 투기, 경제 위기까지 더해집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필요는 커지고, 연금도 내야 합니다. 뤼팽은 아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그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뤼팽은 남의 재산에는 관용을 베풀지만, 제발 그의 것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그것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의 부를 엿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격분합니다. 그는 그때 사나이가 되죠."

"참 신기하다." 패트리샤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중얼거렸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곤 생각지 못했어."

"저는 그냥 한 인간일 뿐이야. 인간이라면 어떤 일에도 낯설지 않지." 호라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훔친 것에 그렇게 집착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 미국 여성은 지적했다.

호라시는 어깨를 으쓱했다.

"왜 그래? 훔치는 건 벌어서 얻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그리고 위험도 훨씬 크지. 가진 것만으로도 냉혹한 심리가 생기기 마련이야. 나이가 들수록 그 심리는 더 깊어지지. 뤼팽은 대략 100억 프랑을 가지고 있어. 그래, 그가 직접 인정한 금액이지. 그러니 누구든 그의 재산을 노리지 않는 게 좋겠어."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지만, 곧이어 그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소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입모양을 손으로 가리며 말이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말도 마. 글자 하나도 입 밖으로 내지 마… 내 말 들리지?

"물론입니다." 그녀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게 내 뜻이야."

"무슨 일이에요?" 패트리시가 물었다.

그는 태연한 척 담배에 불을 붙였다.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으로 올라가는 푸른 연기의 고리를 바라보며, 이를 갈며 속삭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당신 반응은 보이지 마. 몸도 떨지 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말만 들어. 준비됐어?

"네." 그녀가 숨을 죽이며 대답했다. 상황의 중대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당신 바로 앞 벽에 거울이 걸려 있죠. 고개를 몇 센티미터만 들어 올리면, 그 거울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를 비춰 줄 겁니다. 제가 창문을 향해 서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거울과 창문이 보입니다. 왼쪽 아래 유리 조각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유리 조각에 구멍을 뚫어 놨죠.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무언가가 살짝 움직이는 것도 보입니다."

"그 움직이는 것은 총구입니다. 아세틸렌 총인데,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요. 밖에서 누군가 이 총으로 저를 노리고 있는 거죠. 보세요, 거울 위쪽 벽에 걸린 무기들. 거기서 아세틸렌 총이 하나 빠져나간 자리가 있죠."

"그리고 그 총으로 저를 노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피아노겠지. '사바주'나, 아니면 그와 손발을 맞추는 명수 중 하나일 거야. 절대 움직이지 마. 어이, 파트리시아. 기절할 생각은 아니지?"

"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은요?"

"나는 쾌감이라고. 조용히, 패트리샤. 담배 한 대 피워. 연기가 네 창백한 얼굴을 가릴 거야. 그 남자는 너를 감시하고 있지만, 자신이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이제 내 말을 들어. 너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1층으로 올라가. 내 방은 복도 맞은편에 있어. 내 방에는 자동 전화기가 하나 있지. 17번, 즉 경찰 긴급 출동 번호로 전화해. 사이곤 대로 23번지, 즉 이 곳으로 긴급히 사나섯 명의 요원을 보내달라고 해. 다小声으로. 그리고 2층에서 안전한 비크투아르를 걱정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문단속을 해.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을 막아. 누구도 열어주지 마… 누구도!"

"당신은요?" 패트리샤가 목소리에 불안감을 담아 물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방어할 의무도 없으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가세요, 파트리시아."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사랑하는 친구여,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군요. 제 조언을 듣자면, 지금 바로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 옛 젖먹이가 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옳아요." 파트리시아는 담담하게 답했다. "저도 정말 지쳤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친애하는 친구."

젊은 여성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고 느린 걸음으로 식탁을 떠났다.

호라스 벨몽은 스스로에게 만족했다. 위기에 대한 그의 침착함과 통제력은, 이전의 고백으로 다소 약해졌을지도 모를 그의 위엄을 이 젊은 여성의 눈앞에서 다시금 회복시켰다.

그는 총열이 움직이는 것을 눈치챘다. 누군가 어깨에 총을 거는 듯한 동작이었다. 그는 소리쳤다.

"가자, 마피아노! 쏴, 내 친구! 내 머릿속에 남은 그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너의 그 적은 두뇌를 태워버릴 테다!"

그는 재킷을 벗어던지고 가슴을 내밀었다.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소리는 전혀 없었다.

벨몽트 비명을 지르며 가슴을 짚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밖에서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발코니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 남자가 방 안으로 뛰어들려다, 벨몽트가 자신에게 겨누었던 권총에 어깨를 맞고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하지만 벨몽트는 기적적으로 온전히 일어났다.

"멍청이!" 그가 그 남자에게 말했다. "너 같은 바보는, 내 무장 목록에서 총과 탄약이 달린 것을 빼앗았으니, 게다가 네가 마피아에서 제일 가는 명사수니, '푹' 하고 내가 죽는 줄로 아나? 정말 바보 같은 소리야."

"내가 충분히 어리석은 줄로 아는 거야?" 그가 계속했다. "내가 외딴 저택에 혼자 산다고 해서, 언제든 습격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정말로 그런 놈들에게 무기를 주겠어? 아니, 나는 철제 관과 탄약을 주긴 했지. 하지만 그 탄약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어."

"무슨 말이에요?" 다른 한 명이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총알이지. 총은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야. 그러니 너는 바람만 쏘는 거야, 바보야! 공만 날려 보내는 거지. 그걸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친구야?"

말하면서도 벨몽은 벽난로 위에 걸린 총기류에서 두 번째 총을 꺼내 들고 창가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는 그림자를 눈으로 쫓았다. 마피아노의 실루엣이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자,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문했다.

'도대체 그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걸까?'

그리고 갑자기, 그는 1층에서 날카로운 휘슬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그가 아는 호출이었다. 패트리샤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었다.

'도둑들이 내 방의 비밀 출구를 알아챘을까?'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에게 절박함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계단 쪽으로 달려가 단숨에 세 계단을 올랐다.

첫 번째 문에 다다른 그는, 판막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으로 이미 격투가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 소음은 그가 몰래 드나들던 비밀 통로 입구에서 들리는 것이었다.

그는 분노에 찬 듯 문에 몸을 부딪쳤다.

방 안에서는 벽면의 상당 부분이 무너져 내렸고, 마피아노는 패트리샤를 끌어안고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어둠 속, 통로 입구 뒤쪽에는 두 동조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필요할 경우 즉각 개입할 태세였다.

힘이 다한 패트리샤는 더 이상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다. 그녀는 은으로 된 호루라기를 떨어뜨려 놓고, 약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그때, 벨몽이 문을 강타하는 거친 소리가 들렸다. 문이 비명을 지르는 듯 울렸다.

"아, 구원받았어! 그가 왔어!"

젊은 여자가 중얼거렸다. 간신히 힘을 내어 몸에서 벗어나려 했다.

마피아노가 더 강하게 조여왔다.

"구원?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문이 삐걱거렸다. 비밀 통로로 두 공범은 이미 도망친 뒤였다. 강도는 분노에 치밀었다.

"최소한 보상은 받아야지."

그가 갑자기 몸을 굽혀 젊은 여자의 입술에 키스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단지 그녀를 스칠 뿐이었다. 여자는 뒤로 몸을 젖혔고, 끔찍한 접촉에 혐오감을 느낀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할퀴었다.

"비루한 놈! 추악한 야수!"

그녀는 다시 붙잡은 남자에게 사투를 벌이면서 비명을 질렀다.

문이 갑자기 떨어졌다. 마피아노는 벨몽이 자신에게 돌진하는 모습을 보기도 전에 이미 일이 끝났다.

벨몽은 마피아노의 턱 아래로 치명적인 한 방을 날렸다. 마피아노는 파트리샤를 놓아버렸고,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이어진 격분한 주먹질들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고, 술기운도 식혀주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출구는 이미 닫혀 있었다.

그는 다시 방 중앙으로 돌아갔다. 권총을 꺼내 앉더니, 놓지 않고 총을 장전하고 있던 벨몽에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벨몽. 당장은 무기를 치워두자. 우리 같은 자들은 치열하고도 잔인하게 싸우지만, 사전에 설명을 나누지 않고는 서로 죽이지는 않지."

벨몽은 어깨를 으쓱였다.

"당신 방금 전, 내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죽이려 했잖아요. 어쨌든 당신 취향이 그러니 말은 합시다. 하지만 명쾌하게, 정확하게 말해 주시오!"

"좋소. 오늘 밤 앵젤만의 파티에서 당신은 내 아름다운 패트리시아를 당신 것으로 원한다고 했소.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소용없소. 그녀에게 당신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건지 알아두게."

"나는 내가 쥔 권리와 그녀가 내게 준 권리를 가져."

강도의 눈빛이 번뜩였다.

"나는 반대하오…"

"그렇다면 법원 집행을 통해 하시오!" 벨몽트가 비웃으며 잘라 말했다.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반대하는 것이 관례라오."

마피아노도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다.

"당신 미쳤소! 제발 좀 생각해보시오. 당신은 그녀를 단 두 시간밖에 모르잖소."

"그리고 당신은요?"

"네 해째다. 네 해째 나는 그 곁에 있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녀를 엿보고, 쫓아다녔지. 그녀가 알레르미 집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지, 패트리샤? 내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닌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녀는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지. 그녀를 갈망한다는 걸. 그녀가 내 전부가 되었다는 걸."

벨몽트가 비웃었다.

"말솜씨가 좋군. 하지만 그녀가 너에게 전부가 된다면, 너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말이야, 패트리샤?"

패트리샤가 혐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것도 못 해."

"보잖아, 마피아노! 어서 꺼져. 자리를 비켜 줘!"

"나? 절대 안 돼. 넌 그녀에게 낯선 사람일 뿐이야. 게다가, 넌 그녀의 삶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어?"

"그녀가 알레르미 부자와 아들 모두에게 사랑받았다는 건 알고 있나?"

"거짓말!"

"그녀가 아들, 헨리 알레르미의的情人이었다는 건 알고 있나?"

"거짓말!"

"진실 그 자체입니다. 그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죠."

벨몽트가 얼굴빛을 잃었다.

"당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패트리샤, 제발…"

"그가 진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이 거짓말할 생각조차 없다는 듯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아들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열 살이 된 아들 말입니다. 로돌프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 제 삶의 전부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그 아들을 그녀가 쉽게 떠날 수 없는 존재라고." 마피아가 덧붙였다. "그녀는 얼마 전 그 아이를 파리까지 데려왔다고."

도적의 어조가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호라세가 불안한 기색으로 물었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패트리샤? 아무런 위험에서도 안전한 곳에 있나요?"

그녀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다.

"네,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다시 그 아이 곁으로 돌아가세요, 패트리샤." 벨몽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멀리 데려가세요. 지금 당장."

마피아가 비웃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미 늦었어!"

패트리시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놀라 몸을 떨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무슨 뜻이죠? 오늘 아침에도 그 애를 봤어요!"

"응, 지브르니에서 봤지. 베르농 근처, 바보 같은 부인인 바바소르 부인 댁에서 말이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봐, 패트리시아. 아이도, 바바소르 부인도 없을 거야. 그 부인은 오늘 오후에 아이를 내게 데려다 줬어."

패트리시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은 나약한 자요! 비열한 인간이요!… 이 아이는 약해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해요!"

"돌봄은 받을 거야, 내가 장담하지. 내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주겠어." 마피아가 음울한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패트리시아가 비명처럼 외쳤다.

"아들러미 주니어의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권한을 받았소. 법원은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준 나를 치하할 거요." 마피아가 농담조로 말했다.

벨몽트의 거친 손이 그의 어깨를 짓이겼다.

"법정보다 먼저 경찰이 있다. 경찰이 너를 체포하고 책임을 물을 거야."

"경찰은 먼 데 있어." 갱단이 말했다.

"너 생각만큼 멀지 않아! 내게 전화로 경찰 구조대에 알렸어. 그들의 차가 5분 안에 도착할 거야. 자, 들어봐. 사이렌 소리야. 그들이 오고 있어. 상황 봐, 마피아노? 너의 손목에는 철제 차가 꽉 끼고, 감옥으로 가고, 재판을 받고, 단두대로 가는 거야."

"아르센 뤼팽의 체포도!"

"너 미쳤구나. 아르센 뤼팽은 경찰이 손댈 수 없는 존재야!"

갱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네가 뭘 제안하는 거야?"라고 물었다.

"아이의 위치를 말해 줘. 그러면 네가 두 번째 비밀 출구,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마. 서둘러라. 차들이 집 앞에 대기 중이야. 아이는 어디 있나?"

"패트리샤가 저와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녀는 제 조건을 알고 있죠. 그녀가 먼저 가라고 하면, 그 직후에 저는 그녀의 아들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저는 죽는 게 더 낫습니다." 패트리샤가 낮게 말했다.

그때 1층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벨몽트가 외쳤다.

"저희가 왔습니다!"

그는 벽의 나무 장식을 두드렸다.

"이것을 누르면 현관문이 열립니다. 누르겠습니다, 마피아노 님?"

"망설이지 마." 마피아노가 말했다. "하지만 그럼 패트리샤는 아들의 위치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벨몽트가 돌출된 부분을 누르자, 아래층에서 남자들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번개처럼 빨랐다. 마피아노는 창문 중 하나로 뛰어갔다. 창문을 열고 난간을 넘어 사라졌다.

"정확히 내가 원하던 대로야." 벨몽트가 비웃으며 말했다. 그는 총을 다시 쥐었는데, 그 총은 개머리판 위에 특별한 장치가 달려 있었다.

밤의 그림자가 정원을 덮었고, 다른 정원들이 이어져 꽤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네 번째 벽을 넘기 위해 세 개의 낮은 벽을 넘어야 해. 네 번째 벽은 높아서 사다리가 필요하지. 미리 준비해 둔 사다리를 이용해 빈 거리로 내려가 도망칠 수 있어."

"만약 그 사다리를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요?" 패트리샤가 물었다.

"준비해 뒀어요. 여기에서도 기둥이 보이거든요."

젊은 여자가 신음했다.

"그가 도망가면, 저는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때 아래에서 경찰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비크투아르가 방에서 내려오고 있었지만, 호라세가 이미 그들을 향해 외쳤다.

"계단입니다,各位! 1층에 있는 정면 문으로!"

그는 창문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총을 어깨에 메었다.

"죽이지 마세요, 간청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제 아들은 실종될 테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다리가 저릴 뿐입니다."

방아쇠가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거친 폭발음은 없었다. 총성도 없었고, 그저 가느다란 휘파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정원 끝에서 고통에 찬 비명이 터져 나왔고, 이어 신음 소리가 이어졌다.

벨몽트는 발코니를 넘어서 Patricia를 도왔다. 그녀는 벽면에 고정된 철제 발판 사다리를 타고 땅으로 내려갔다.

세 개의 낮은 벽은 쉽게 넘었다. 하지만 네 번째 벽은 훨씬 높았다. 벽 아래에는 누군가가 바닥에 누워 허둥지둥하고 있었다. 벨몽트가 손전등 빛을 비추자, 그人是 마피아노였다.

"너야, 마피아노? 오른쪽 종아리가 좀 상했지? 괜찮아. 내 총알은 항상 고압증류기에서 소독했거든. 붕대도 가지고 있어. 다친 다리를 내밀어 봐. 은총의 손길이 너를 치료해 줄 테니까."

Patricia는 능숙하게 마피아노의 가벼운 상처에 붕대를 감았다. 그 사이 벨몽트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마피아노의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다.

"됐어!" 그가 기쁨에 차 외쳤다. "잡았네, 친구. 이미 패트리샤를 통해 네 동업자 카드를 받아냈고, 여기 뉴욕에서 네가 훔친 맥 알러미와 필드스의 카드도 있다."

그는 몸을 더 기울이며 차갑게 말했다.

"아이를 돌려줘. 대신 네 카드를 주마."

"내 카드?" 마피아노가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나한테 그건 별 볼일 없어!"

"잘못됐군, 친구. 네겐 그 카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 그 카드에는 네가 조직에서 차지한 순번이 적혀 있고, 그걸로만 네가 약탈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거든. 정해진 시한에 그 카드를 내놓지 못하면, 너는 동업자도, 수익 분배자도 아니야. 결국 넌 끝장난 거지, 친구!"

"말이 안 됩니다!" 마피아노가 반박했다. "저희는 저기서 저를 잘 압니다. 제 명함이 도난당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증명이 필요합니다. 패트리샤의 증언이거나 제 증언이요. 둘 다 얻지 못할 겁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거죠."

"저는 두 분을 모두 아이를 통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제가 가져갈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환을 해야죠. 공평한 거래입니다."

상처 입은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좋아요."

"잘 이해한 거죠?" 벨몽이 재촉했다. "오전 아홉 시까지 아이가 여기, 건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카드를 불태우겠습니다."

"바보 같으니라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 내 다리를 망가뜨렸잖아. 움직일 수도 없어."

"맞습니다. 패트리샤가 당신 상처를 다시 감아줄 거예요. 그다음엔 편히 쉬세요. 내일 밤, 우리가 데리러 올 테고, 우리 세 명이 함께 아이를 구출하러 갈 거예요. 괜찮죠?"

"물론이죠!"

패트리샤와 벨몽은 그를 큰 담장 옆에 붙어 있는 작은 창고로 옮겼다. 창고 안에는 정원용 의자와 소파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그를 소파 위에 눕히고 상처를 새로 감아준 뒤, 창고 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도망쳤습니다!" 호라세가 경찰들을 지휘하는 경위에게 말했다.

"참으로 교활하군! 어떻게 해서 그를 놓쳐버린 거지…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았소. 그는 어디로 도망쳤소?"

"정원을 통해요. 그는 정원을 둘러싼 큰 담장을 넘어서 달아났습니다. 원하시면 찾아보십시오."

경찰들의 수색은 당연히 헛수고였다.

형사가 돌아와 호라스 벨몽트에게 물었다.

"실례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파리 경찰청에서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경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인은?"

"미스 패트리아 존스톤. 미국인 기자입니다. 파리를 지나가는 길이에요."

형사는 부하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 밤, 벨몽트는 자신의 방 옆 작은 방에서 잤고, 패트리아는 본방을 차지했다.

다음 날은 별일 없이 흘러갔다. 비크투아르가 훌륭한 식사를 차려내었고,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들처럼 수다를 떨었다.

새벽부터 벨몽은 부상 때문에 목이 말라 있는 죄수에게 음식과 물을 가득 챙겨다 주었다. 그리고는 밤이 되면 어수선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낮잠을 자며 준비했다. 그는 마피아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피아노는 작은 로돌프를 돌려줄 것인가?

그날 밤, 호라스와 패트리샤는 다시 큰 벽 아래에 있는 창고로 향했다. 호라스가 문을 열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새는 정말로 날아간 것이었다. 자취도 없었다.

자물쇠는 열쇠로 잠겨 있었고, 도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사다리는 평소 자리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정말 영악하군, 이 자들." 호라스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내 옆에 붙은 별장 쪽으로 들어왔을 거야."

"누가 그 별장에 살고 있나요?" 패트리샤가 물었다.

"아무도 안 산다. 하지만 내가 설치한 두 개의 비밀 통로를 이용했을 거다. 하나는 지층에, 다른 하나는 내 방이 있는 1층에 난 통로야. 어제 밤에 그 통로를 본 적 있지?"

"당신의 방으로?"

"네가 잘 알다시피, 바로 오늘 밤 네가 잤던 방이야. 아무도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아무도 없었어."

"당연히 들렸을 텐데, 침대 바로 옆에 창문이 있잖아. 하긴, 내가 바보 같군. 그게 아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추측하는 게 아니야. 알고 있어, 패트리샤. 마피아노를 탈출시킨 건 바로 너였지."

그녀는 몸을 떨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도대체 무슨 목적에서요, 신부님!"

"그가 네 아들을 잡고 있는 거야. 어떤 협박을 했겠지… 모성애를 이용한 협박이었을 거야."

당황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패트리샤는 고개를 숙인 채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흘릴 기색이었다. 호라세가 손전등 빛을 그녀에게 비추고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생각에 잠긴 듯 다시 말을 이었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당신을 쥐고 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정신을 차린 듯 어깨를 털어 올렸고, 손가락을 튕겼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비웃는 듯한 작은 선율을 흥얼거리며 창고에서 나와 버렸다.

몇 분 후,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파트리샤와 대화하고 싶었다.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원과 별장 곳곳을 뒤졌음에도 파트리샤를 찾을 수 없었다. 파트리샤는 사라져 버린 것이다.

제5장

호라체는 의사를 불러 Victoire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했다. Victoire는剛才의 공격으로 많이 흔들렸지만, 의사는 안심시켰다. 심각한 부상은 없었고, 멍도 없었다. 신경 안정을 위해 사흘에서 나흘 정도 완전히 쉴 것을 권했다. 그 뒤로는 시골로 내려가면 된다고 했다.

호라체는 늙은 젖먹이 Victoire를 무척 사랑했다. 이 훌륭한 여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라면 그는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튿날 오후 신문을 읽은 그는 다섯 시쯤 되어 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리고 곧바로 Mantes 근처에 있는 '르몽 로즈(Maison-Rouge)' 저택을 매입했다. 그는 얼마 전 그 저택을 둘러본 적이 있었고, 방금 또 한 번의 매물 광고를 본 상태였다.

다음 날, 벨몽은 마송루즈에 건축가와 인테리어 장인을 불러들였다. 그들은 사십팔 시간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벨몽은 새 집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즉시 많은 하인들을 불러들이고, 자신이 가장 신임하고 경계심이 강한 구동료 몇 명을 그곳으로 보냈다.

바로 그날 밤, 마송루즈를 산 지 이튿날 밤이었다. 오트유의 자신의 별장으로 돌아온 오라스는 저녁 식사 후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를 들었다.

"오라스 벨몽입니다. 누구십니까?"

상쾌하고 맑은, 마치 아이 같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로돌프 씨입니다."

"로돌프 씨? 그런 분은 모릅니다."

오라스는 곧바로 전화를 끊으려는 듯 거친 어조로 말했다.

맑은 목소리가 재촉하듯 다시 이어졌다.

"로돌프 씨, 파트리시아 부인의 아드님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로돌프 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머니께서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저 사이에 면담을 갖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훌륭한 제안이군요." 호라스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고민해 보죠, 로돌프 씨. 당신의 시간이 곧 제 시간입니다. 언제든 편하신 대로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디에서 만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는 새로운 계책을 구상하는 눈치였다.

"그럼, 우리 만나볼까요…"

말은 갑자기 끊겼다. 호라세가 분노에 찬 제스처를 취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 안의 전화기에 연결된 전선을 따라 걸어가, 부엌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지나갔다.

전선이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 입구 직전에서 끊겨 있었다. 두 끝단이 축 늘어져 있었다.

부엌에 숨어 있던 누군가가 통화 내용을 엿듣고 있었다. 호라세에게 흥미진진해지던 순간, 동시에 상대에게는 치명적인 위기가 닥치던 찰나에 통화를 차단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상대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 행동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일까?

호라스 벨몽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피아노가 사라진 뒤, 이어 패트리샤의 실종까지 발생한 지 이틀째였다. 그 순간부터 호라스는 마음속 깊이 패트리샤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의심했다.

아들 구원을 위해 도적들을 쫓아낸 패트리샤. '로돌프 씨'를 최종적으로 해방시키고, 그를 마피아노의 손아귀에서 빼내기 위해 스스로 시칠리아인의 감옥에 갇힌 패트리샤.

그녀와 마피아노 사이에 오간 거래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호라스는 그 내용을 직접 들은 것처럼 잘 알고 있었다.

"패트리샤, 내게 굴복해라. 그러면 너에게 아이를 돌려주마."

파트리스야 결국 굴복했을까, 아니면 바로 그 순간이었을까. 어미의 마음속에서 벌어진 그 격렬한 싸움은 정말로 끔찍했다. 파트리스야 적인 벨몽트를 탈출하게 함으로써 배신한 뒤에도, 아들을 매개로 호라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 정도였다.

"엄마가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고 하셔."

면담 중 아이는 호라체에게 분명히 사건의 현장이 어디인지 털어놓았을 것이다.

그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호라체는 전례 없는 감동에 사로잡혀 생각했다. 아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당황한 나머지, 어미가 자기를 희생해 그 비열한 자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호라스 벨몽은 이런 갑작스러운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과잉된 성격 탓에, 사랑의 가장 격렬한 절정에 이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도 견딜 수 없었다. 그토록 추악한 위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그는 충분히 경험도 많고, 동시에 냉철했다. 진실을 바꿀 새로운 요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취해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집에 틀어박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냈다. 하지만 곧바로 그것을 버렸다. 소식을 기다렸다. 자신을 의심했다. 고통받았다. 불안에 떨었다. 그는 그토록 불행했던 적이 없었다.

사흘이 그렇게 지나갔다. 끝이 없을 것 같은, 열기로 타오르는 시간들이었다.

사흘째 아침, 사이공 대로변의 철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벨몽이 창가로 달려갔다. 아이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손가락이 아플 만큼 힘차게, 연이어 두드리는 소리였다.

벨몽은 현관과 정원으로 내달렸다.

도로에서 차가 속도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차는 정자 앞을 급정차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뛰어내려 아이를 붙잡더니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차는 그 자리에 바로 출발했다.

사건은 이십 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벨몽이 개입할 틈조차 없었다.

그가 철문을 열었을 때, 빈 대로에는 주황색 차체 캐브리오레가 사라져 가고 있었다. 마피아노의 차였다.

벨몽트도 다시 별장으로 돌아와 Victoire를 마주쳤다. 휴식을 취한 탓인지 그녀는 기운이 돌아 있었고, 초인종 소리에 놀라 달려나오던 참이었다.

"빨리 Maison-Rouge로 가요. 우리 중 가장 잘나가는 남자 스무 명을 소집해. 그곳을 진짜 요새처럼 만들어야 해요. 누구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밤에는 가장 사나운 세 마리의 말티즈 개를 상주시켜요. 암호와 야간 순찰, 끊이지 않는 감시. 간단히 말해 철의 단속이 필요하죠.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해요. 아마 제가 누군가를 데려올 텐데, 그 사람을 눈의 동자처럼 지켜봐야 할 거예요."

"안녕. Pivote에게 가서 알아서 잘 해봐. 아니, 말대꾸는 안 돼. 질문도 말고, 변명도 하지 마. 내 목숨이 걸린 일이야. 내가 얼마나 그걸 아끼는지 너는 잘 알잖아. 어서 가!"

오트유이 별장에 숨어든 호라스 벨몽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필요 없는 조치였다. 적어도 처음 열흘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벨몽에게 적수가 언제든, 낮이나 밤이나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오가며 엿보고, 자신의 삶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이었다.

그는 자신 주변에 보이지 않는 생자의 유령들이 맴돌고 있는 것을 느꼈다.

때때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의 집에 들어오고 있었다.

별장에는 귀신이 들린 듯했다.

그는 권총을 손에 쥔 채 경계하며 별장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그가 있는 방 바로 옆에서는 누군가 스쳐 지나가는 소리, 숨소리, 때로는 마루판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그곳에 있다는 증거였다.

그가 달려가면, 아무도 없었다. 그림자 하나, 소리 하나 없었다.

가끔 도망가는 발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그는 너무도 악마적인 교활함에 분통을 터뜨렸다.

비밀 통로는 여전히 닫혀 있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들어오는 걸까?

그의 집, 아르센 뤼팽의 집에!

그러나 열세 번째 밤, 고요한 밤중에 벽 쪽에서 가느다란 긁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알코브와 비밀 통로를 가르는 벽면에서 나왔다.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던 오라스는 귀를 기울였다. 긁는 소리가 또렷해지더니, 이상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섞였다. 잃어버린 고양이의 애원인 줄 알았던 그는 벌떡 일어나 전등을 켜면서 패널을 열었다.

어둠 속으로 깊게 파고든 비밀 계단의 발코니에는 한 아이가 서 있었다. 얼굴이 가늘고 사랑스러운, 금발 곱슬머리의 아이였다. 아이는 여자아이를 가장한 차림새였다.

"너는 누구냐? 거기서 뭐 하느냐?" 벨몽은 깜짝 놀라 물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아이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나야, 로돌프."

아이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기진맥진한 듯 보였다.

호라스가 아이를 붙잡아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떨리는 열정으로 그를 쫓아 물었다.

"그녀는 어디 있나? 그녀가 너를 보낸 거지? 그녀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넌 어디에서 왔나? 제발, 말해!"

아이는 몸부림치며 호라스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는 마치 어머니의 기운을 되찾은 듯, 온몸에 생기가 돌았다.

"네, 어머니가 저를 보내셨어요. 저를 구해내서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너무 말하지 마세요. 먼저 행동해야 해요. 저를 따라오세요!"

"어디로?"

"어머니를 찾으러요. 그 남자가 어머니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제 말만 들어주세요!"

비록 패트리시아가 직면한 위험이 극심해 상황 자체가 비극적이었지만, 호라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좋아." 그는 웃으며 말했다. "로돌프 경이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다면, 제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이군. 가보게, 로돌프 공자."

"왜 나를 왕자라고 불러?" 아이가 물었다.

"유명한 소설에 로돌프라는 왕자가 나오거든. 그 왕자는 모든 난관을 가볍게 넘겨 친구들을 구하고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넌 바로 그런 타입이야. 나는 무서워……"

"전두두!" 아이가 말했다. "오세요!"

호라스를 앞서며 로돌프는 비밀 출구 쪽으로 돌아섰다. 손전등을 들고 있었다. 금발 곱슬머리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는 복도를 지나 날카로운 눈으로 어둠을 살폈다.

그가 숨겨진 계단으로 들어서려던 찰나, 호라스가 그를 붙잡았다.

"잠깐. 말하려던 게 있어. 이 출구 끝이 지키고 있을지도 몰라. 그쪽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테니까."

로돌프는 어깨를 으쓱했다.

"오늘 밤은 그렇지 않아."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감시인이 있었다면, 제가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실수로라도 문을 열어주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저를 밖으로 유인하려고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됐어요. 그냥 가봅시다. 어떻게 될지 봐야죠."

아이 고개를 저으며 아는 체하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것도 볼 수 없어요. 제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진짜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좋아." 호라세가 다시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들어가자."

"좋아요." 로돌프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을 잘 알아요. 제가 들어온 길이기도 하죠. 출구는 거리 쪽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어져요. 당신의 차고 근처에 있는 집이죠. 빈 집이고 거리도 한산해요. 저

는 모든 걸 다 확인했어요. 엄마가 설명해 주셨거든요.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게다가 차고에 미리 연락도 했어요. 차를 꺼내 놨대요. 차는 지금 아무도 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차요?"

"8기통 차야."

"헐, 네가 운전해?"

"아니. 당신이 해야죠."

그들은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실제로 차가 기다리고 있던 거리로 들어섰다. 그들은 차에 뛰어올랐다. 호라세가 핸들을 잡았다.

머리도 쓰지 않고 유리창 옆에 서 있던 로돌프 공작이 방향을 지시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정면으로! 빨리 가요, 천벌이 내려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세요."

"어느 거리죠?"

"보마 거리. 오스만 대로와 평행한 길이에요."

차는 폭풍처럼 질주했다. 호라세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운전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묘기를 부렸다. 그 후로 그는 여러 번, 왜 차가 부딪히거나 전복되거나 보도로 올라가지 않았는지 스스로 놀라워했다.

하지만 마피아노의 잔혹한 폭력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패트리시아의 모습과 아이의 격려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속도를 더 높였다.

"오른쪽! 오른쪽!" 아이는 태연하게 외쳤다. "라 보름 거리가 첫 번째 왼쪽 길이에요… 멈춰! 이제 사이렌을 울리세요… 잘했어요. 한 번 더!"

호라스는 바닥이 낮은 작은 저택을 바라보았다. 중간층 창문 앞에는 테라스가 있었다. 사이렌 소리에 중간층 창문 중 하나가 열렸고, 한 여자가 테라스로 달려와 돌 난간까지 나아가 그림자를 살폈다.

"로돌프, 너야?"

"나야, 벨몽!"

호라스는 차에서 내려 있었다. 그는 파트리샤를 알아봤다.

"아, 다 괜찮네!" 그녀가 외쳤다.

하지만 그녀가 몸을 돌렸다. 다른 창문이 열렸고, 한 남자가 화가 난 목소리로 외치며 테라스로 뛰어내렸다.

"제발 들어와!"

"몸을 맡기시오." 벨몽트가 두 팔을 벌리며 명령했다.

패트리시아는 망설임 없이 난간을 넘었다. 그리고 강인한 두 팔에 안겼다. 그 팔은 잠시 그녀를 열정적으로 껴안더니, 이내 부드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엄마! 사랑하는 엄마!"

로돌프는 어눌한 목소리로 외치며 어머니 쪽으로 달려갔다.

위에서 마피아노는 분노에 사로잡혀 위협했다. 그는 곧이어 난간을 넘었다.

"입 다물어, 마피아노. 너 오소리처럼 비명만 지르네!" 호라시가 비웃었다. "아무튼, 좋은 표적이 되어주었군, 친구. 그 엉덩이랄까. 좌우로 대칭을 이루다니!"

그는 차에 싣고 온 무소음 권총을 꺼냈다. 마피아노가 등지고, 손으로 난간을 잡고 점프하려던 순간, 그는 두 발을 쐈다.

양쪽에서 총알이 맞은 마피아노는 거리로 추락했다.

"도와줘! 살인자야!" 그가 비명처럼 외쳤다.

"아니, 괜찮아. 좀 아프겠지만 죽진 않아. 파리 경감에게 너를 빼앗길 수는 없잖아." 호라세가 작별 인사를 하듯 던졌다.

차르륵, 라보마 거리 모퉁이를 돌았다.

자정을 두 시간이나 지나서야, 암호를 교환한 차는 빛나는 메종루즈 안뜰로 들어섰다. 빅투아르가 지휘하는 스물 명의 경호원들이 도착자를 향해 환호성을 보냈다. 개들도 기쁘게 뛰어다녔다. 호라세는 젊은 여자아이와 아이를 꽃으로 가득한 방으로 안내했다.

"허락 없이 그곳에서 움직이지 마. 로돌프도 마찬가진데."

방 창문은 정원을 겨우 두세 미터 높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아래 잔디밭에는 세 명의 경호원이 누워 밤을 새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호라체는 두 손으로 젊은 여성의 어깨를 잡았다. 로돌프가 들을 수 없도록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내가 너무 늦게 도착한 건 아니지, 패트리샤?"

"아니요." 그녀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지만 제시간에 와 주셨어요. 그 악당이 준期限이 정오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로돌프는요?"

"로돌프가 오트유이로 찾아와서 당신의 보호를 받으러 왔어요. 하지만 제가 그를 보내드릴 수 있을 때까지는 마음이 편치 않았죠. 저는 당신을 믿고 기다렸어요. 당신께서 저를 구해 주실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로돌프가 당신을 구한 거예요, 패트리샤. 정말 착한 아이죠.”

제6장

파트리샤는 라 보름 거리 저택에서 구금되어 있을 때, 그리고 아들과 호라스 벨몽트에게 석방되기 며칠 전, 알로-폴리스를 위해 새로운 기사를 썼다. 그녀는 반지로 하녀의 도움을 사서, 그 기사가 뉴욕으로 전보로 보내지게 했다.

이 두 번째 기사는 첫 번째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여러 언어로 번역된 이 기사는 전 세계를 열광시켰다.

벨몽트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파트리샤는 기사에서 자신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벨몽트가 발견한 것들, 특히 '폴 신너'라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와 고립된 문자 'M'의 뜻, 그리고 '마피아'라는 이름의 결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신이 발견한 것처럼 썼다.

파트리샤의 설명은 즉시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그 해명은 완벽할 만큼 명확했고, 그 내용은 숨 막히게 흥미로웠다. 경찰은 상황을 방치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되었다.

오토이에서 경보가 울린 후, 형사들이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별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용의자로 지목된 세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다. 바로 마숑 씨, 미국인 기자, 그리고 노모 비크토르였다. 이 세 사람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공격을 가한 자들도 찾을 수 없었다. 모든 수사를 동원해도 그 공격의 동기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토록 많은 패배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이 사건은 물론, 그 밖의 수많은 미궁 속의 사건들까지 모두 암흑의 마피아와 그 두령의 소행으로 몰아넣는 것이 훨씬 나았다. 비록 그 두령은 도둑질 솜씨로 명성을 떨쳤지만, 결국은 범죄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

이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인물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의 명성과 무죄는 권위에 대한 지속적인 도발처럼 보였다. 경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빠른 복수를 바랐고, 사건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믿었다. 언젠가는 양쪽 진영의 사람들이 경찰의 도움을 간구할 것이며, 그때 모든 사람을 체포해 싸움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계산이었다.

파트리스와 호라스 벨몽은 그리 치열하게 쫓지 않았다. 사법 경찰은 상황을 지켜보며, 피의자들이 자신에겐 안전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잠들게 두기로 한 것이다.

그 결과 파트리스와 호라스 벨몽은 노년 Victoire와 젊은 Rodolphe와 함께, 네 주 동안 Maison-Rouge 저택에서 평온한 휴식을 취했다. 울창한 정원을 갖춘 이 저택은 정말로 매력적이었다.

주요 통로는 티몰 나무들이 아치형으로 뻗어 만든 그늘 아래를 달렸다. 돌로 만든 화분과 대리석 조각상들이 양옆을 지키는 가운데, 이 길은 센 강가를 따라 이어졌다. 앞에는 초원과 꽃이 만발한 과수원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풍경을 자아냈다.

이 고요한 은신처에서 벨몽은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는 타고난 낙천성 덕분에, 원할 때면 가장 무거운 걱정거리조차도 잠시 잊고 현재 순간의 매력을 만끽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때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지키면서도, 마피아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마피아노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벨몽은 패트리샤에게 반해 있었다. 비록 그 마음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두 사람의 친밀함은 오직 우정에 불과했다. 하지만 매일 더 매혹적으로 느껴지는 그녀의 매력, 지혜, 그리고 청춘의 가벼운 웃음소리를 곁에서 느끼며 사는 것은 그에게 너무도 달콤한 일이었다.

작은 로돌프의 존재 역시 벨몽에게 큰 위안과 안식을 주었다. 어머니를 닮은 로돌프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였다. 그와 장난치다 보면, 벨몽은 자신도 다시 한 번 아이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패트리샤는 이들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벨몽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마송루즈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방어 준비를 꼼꼼히 점검했고, 노모 빅투아가 새로 고용한 하인들의 신원도 확인했다.

그 하인들 중에는 벨몽트가 있었다. 그는 여자의 매력에 결코 무감각하지 않은 남자가었고, 비크투아르가 수석 하녀로 승진시킨 앙젤리크라는 젊은 농부 소녀의 건강하고 활기찬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벨몽트는 패트리샤를 사랑하고 있었기에, 앙젤리크를 순수하게 감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얼마나 재미있고 예뻤던가!

화장도, 쌀가루 파우더도 바르지 않은 갓난 같은 얼굴과, 뒤로 끈을 조여 입은 검은 벨벳 코르셋에 쏙 들어가는 날씬하고 유연한 허리선. 그녀는 마치 오페라코미크극의 젊은 하녀처럼 보였다.

그녀는 언제나 분주했다. 채소밭에서는 채소를 고르고, 과수원에서는 과일을 따며, 농장에서는 갓 낀 알을 줍고 다녔다. 입가에는 늘 미소가 맴돌았고, 눈에는 순진한 웃음이 가득했으며, 몸짓은 조화롭고 절도 있었다.

"비크토아르, 이 예쁜 여자를 어디서 구했나?" 첫날 벨몽이 물었다.

"앙젤리크 말이에요? 공급업자가 데려다 줬죠."

"증명서는?"

"훌륭합니다. 근처 성에서 일한 이력이 있거든요."

"어느 성이죠?"

"저기 왼쪽으로 보이는 큰 나무들 뒤 성, 곧 '까르나유 성'이에요."

"좋아, 비크토아르. 예쁜 소녀 곁에 두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리고 시종 피르맹은 어때?"

인물들에 대해 철저히 정보를 입수한 벨몽은 다른 생각, 특히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에 몰두하고 있었다. 날씨는 맑았고, 시골 풍경은 아름다웠다. 가까이 있는 강은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 좋은 놀이터였다.

거의 매일처럼 보트가 강물을 따라 유유히 떠다녔다. 보트 위에는 벨몽과 패트리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종종 목욕을 하곤 했는데, 작은 로돌프는 날이 갈수록 벨몽과 더 친해졌다. 그는 이 귀여운 놀이 친구의 넓은 어깨에 다리를 걸치고 앉곤 했으며, 물속에서 기쁨에 찬 비명을 지르곤 했다.

생각 없는 가벼운 즐거움의 시간들이었다. 그 시간은 소박했지만, 그들의 친밀감은 더욱 단단해졌고, 패트리샤는 자신의 동반자에게 점점 더 깊고 따뜻한 신뢰를 느끼게 되었다.

"왜 그렇게 나를凝視하느냐?"

그가 물었다. 어느 날, 로돌프와 빅투아르가 함께 있는 사이, 두 사람은 보트 안에서 단둘이 있었다. 노를 저던 벨몽은 잠시 전부터 여자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느꼈다.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다. "남의 속마음을 엿보려고 유심히 쳐다보는 버릇이 있어서요."

"내 속마음은 하나뿐이다. 당신을 기쁘게 하고 싶을 뿐이지."

그가 덧붙였다.

"당신의 속마음은 더 복잡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이름은 무엇인가? 그는 아르센 뤼팽인가, 아닌가?'"

패트리샤가 속삭였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당신은 아르센 뤼팽이죠.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뤼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랄 뿐, 당신이 정말 아르센 뤼팽이라면 그건 당신을 막지 못할 거야."

그가 나직이 시인했다.

"나는 정말로 그야."

젊은 여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숨이 턱 막혔다. 그 고백이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좋아. 당신이 있다면 나는 이길 수 있어. 하지만 두렵기도 해."

"무엇이 무서워?"

"미래가 무서워.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 사이에 엄격한 우정이라는 관계를 맺으려는 내 생각과는 잘 맞지 않거든."

"그런 면에서 걱정할 건 없어."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우정의 선은 당신이 직접 정할 거야. 당신은 쉽게 놀라거나, 몰래 유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

"그게… 당신에게 기뻐?"

"당신에게서 오는 모든 것이 기뻐."

"모든 것이요? 정말로?"

"네, 다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녀는 다시 얼굴을 붉혔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패트리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사랑을 받아주겠노라 약속해 줘. 안 그러면 내가 이 물에 뛰어들 거야."

그는 반은 진지하게, 반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건 약속할 수 없어요.”

그녀는 같은 어조로 대답했다.

“그럼 물에 뛰어드는 거야.”

그는 말한 대로 행동했다. 노를 놓친 그는 일어서서, 옷을 그대로 입은 채 상테 강으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는 힘차게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파트리아는 그가 오른쪽으로 달리는 한 척의 보트를 향해 다가가는 것을 보았다. 그 배는 그들 앞을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배를 조종하는 남자는 굽은 등과 하얗게 서리 내린 머리카락, 하얀 수염을 하고 있어 노인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노 저어 나가는 동작은 힘차고 빨랐다. 이는 확실히 장년층의 에너지와 결단력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는 가발을 쓰고 등에 가짜 혹을 붙여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어이! 호라스 벨몽트가 외쳤다. "어이! 마피아노. 이미 우리 은신처를 찾아냈나? 잘했다."

마피아노도 노를 내려놓고 권총을 꺼내 쐈다. 총알은 수면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영하는 남자의 머리 옆 몇 센티미터 지점에서 흩어졌다. 남자는 폭소를 터뜨렸다.

"망할 서투른 놈! 손이 떨리는군, 마피아노. 너의 그 우스꽝스러운 놈을 보내라. 내가 어떻게 쓰는 법을 가르쳐 주마!"

조롱에 시칠리아 남자는 격분했다. 보트 안에서 일어서서 노 중 하나를 휘두르며 상대를 쓰러뜨리려 했다. 그러나 상대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물속으로 가라앉아 사라졌다. 잠시 후, 마피아노의 보트가 흔들렸고 호라스 벨몽트의 머리가 좌현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손 들어! 호라스가 위협적으로 외쳤다. 손 들지 않으면 쏴!"

마피아노는 강물 속 30미터 아래에서 이 상대가 어떤 무기로 자신을 공격했는지 따져볼 여유조차 없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팔을 들어 올렸다.

그때, 벨몽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보트가 기울었고, 시칠리아 사람도 함께 물속으로 빠져나갔다.

벨몽트가 승리의 비명을 질렀다.

"승리다! 적이 후퇴한다! 마피아노와 마피아의 수중 투하! 너 물至少는 할 줄 아니? 불쌍한 놈, 너 죽은 송아지처럼 헤엄치잖아! 고개를 들어, 크레블뢰! 안 그러면 센강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게 너한테 독이 될 거야. 아니면 그 전에 익사하겠지… 아, 어차피 알아서 해라. 어라, 구원자가 도착했군."

강둑에서 두 남자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시칠리아 남자가 탄 배를 향해 헤엄쳤다. 배는 흐름을 타고 쏜살같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기 전, 수영에 능한 호라세가 강둑으로 올라갔다. 그는 언덕 위에 벗어둔 옷가지를 뒤져서 외쳤다.

"마피아 카드 두 장. 또 맥 알레미의 서명이 붙어 있군. 마피아노의 카드와 맥 알레미, 필데스, 에드거 벡커의 카드를 합치면 여섯 장이 돼. 빨리 나누자. 뤼팽의 전리품은 내 것이야!"

보트 안에 있던 패트리샤는 이 장면을 모두 지켜보며 아주 재미있어 했다.

그녀는 벨몽트 근처에 배를 대자, 벨몽트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가장 가까운 길로 끌어당겼다. 그사이 공범 세 명은 강둑 아래에 발을 디뎠다.

벨몽트가 triumphant하게 외쳤다.

"내 황금 양모를 손에 넣었네, 아름다운 패트리샤! 모두 잘 되고 있어. 적이 강바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단 말이야! 내 수레로 오너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노예여. 그리고 나는 당신의 충실한 종일세! 종은 조금 젖었지만, 사랑의 불꽃이 말려줄 거야!"

건초를 실은 수레 한 대가 농부의 손에 이끌려 지나가고 있었다. 벨몽트는 젊은 여성을 수레 위로 올려보낸 뒤, 옆에 앉아 계속 말을 이어갔다.

"두 장의 카드, 패트리샤. 그야말로 보물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들이 성공한다면, 돈은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그날 흘러내릴 파스톨 강(부)의 돈을 내 주머니로 돌릴 방법을 찾지 못할 거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게다가 그 돈은 본래 내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니, 결국 빌려준 것을 돌려받는 셈이 되지!"

수레는 노란 말 한 마리가 끌고 갔다. 그 말은 한평생의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릿한 걸음으로 천천히 나아갔다. 그들은 꽤 먼 길을 돌아가야 했다.

"어쨌든 마송루즈에 도착은 하겠소. 하지만 나는 이 건초를 농장으로 가져가야 하오."

농부가 말했다.

"아, 호라시오가 물었다. "당신은 마송루즈 농장에서 일하시나요?"

"네. 오늘이 바로 건초를 창고에 넣는 날입니다."

"들었니, 파트리시아? 이건 꿈이야! 창고, 초원, 수확하는 건초, 목가적인 모든 즐거움! 그것에 평온함까지 더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녀가 반쯤 웃으며 말했다.

"무엇을 의심하신다고요?"

"당신의 변덕을요! 당신은 갈색 머리카락에서 금발로 쉽게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저를 알게 된 이후로, 전설적인 Patricia님, 당신의 금빛과 청동빛 머리카락은 제 경의를 영원히 사로잡았습니다. 설령 당신이 백발의 미인이 되더라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은빛 관을 쓴 Patricia라니, 꿈만 같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젊은 여성이 웃으며 말했다. "저는 질투심도 강하고 독점欲도 있어요. 가벼운 태도 하나도 용납하지 않죠. 만약 당신이 변덕스러운 남자라면, 각오하십시오!"

그들은 적들의 귀환이 불러일으킨 불안감을 숨기기 위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걸었다.

그들은 넓은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당 양쪽으로는 시비 더미와 거름 구덩이가 늘어섰다. 돌과 시멘트로 만든 낮은 경계석이 그들을 구분하고 있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둥근 탑 모양의 비둘기집이 우뚝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이끼 낀 포도덩굴에 묻힌 고딕 양식의 예배당 아치들이 이어졌다. 아치는 위용을 자랑하는 아치로 이어지며, 그 위에 심하게 낡은 수로가 놓여 있었다.

패트리아는 벨몽의 도움을 받아 마차에서 내렸다. 어스름이 내리앉는 밤, 그녀는 메이존루즈로 향했다. 호라스는 농부와 함께 마구간으로 들어갔는데, 농부는 그에게 말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몇 분 뒤, 호라스도 다시 작은 숲과 정원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갑자기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현관 계단에는 모든 직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손짓을 하며 매우 당황해하고 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젊은 여주인님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대답했다.

"패트리아 존스턴?"

"네. 그 여자가 오는 것을 처음부터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덤불 사이에서 남자 셋이 나타나 그녀를 에워쌌죠. 그녀가 도망치려 했지만, 우리가 달려가기 전에 그 남자들이 그녀를 붙잡아 어깨에 업고 사라졌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호라스는 끔찍한 불안에 사로잡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맞아요, 저도 몇 번의 비명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죠. 그 남자들은 어느 쪽으로 향했나요?"

"새로운 차고와 옛 마구간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럼 정원의 끝부분, 농장 마당 쪽으로 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호라스는 단초도 의심하지 않았다. 마피아노와 그 무리가 센 강을 따라 직선으로 돌아와 메종루즈에 먼저 도착해 매복을 준비했고, 자신과 농부가 마구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 그 함정이 작동했다는 것을.

그는 재빨리 농부를 찾아갔다.

"농장이나 정원에서 센 강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나 통로가 있는지 아시거나 들으셨습니까?" 벨몽이 짧고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농부는 망설임이 없었다.

"물론입니다. 예전에는 코르네유 마을과도 연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전 여기 있던 앙젤리크 자택 하녀가 잘 알고 있으니 그녀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앙젤리크! 앙젤리크!"

하지만 아름다운 앙젤리크는 대답이 없었다. 농부는 스스로 호라세를 구석탑 쪽으로 이끌었다.

옛 수로에 붙어 있는 아치 하나 아래, 벽면의 한 부분이 드러나 있었다. 거칠게 쌓인 석조들이 입구를 막고 있었다.

비밀 통로가 존재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농부는 그곳에서 아주 최근에 누군가 지나갔다는 흔적을 발견하고는 놀랐다.

"방금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보세요, 선생님. 석조들을 제대로 다시 쌓지도 않았어요. 그냥 대충 밀어붙여 놓았죠."

호라세와 농부는 어깨로 한 번 밀어붙여 장애물을 무너뜨렸다. 석조들이 어두운 계단으로 쏟아져 내리며 굉음을 냈고, 그 울림은 오래도록 이어졌다.

"이쪽은 깊숙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철문이 가로막고 있더군요."

그가 등불을 켰다. 호라세도 손전등을 켜 따라 했다.

두백 걸음쯤 갔을까, 철문이 그들을 막아섰다. 다행히 열쇠는 자물쇠 반대편에 꽂혀 있었다. 도망친 이들이 열쇠를 빼내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곧 지하도 안으로 더 선선한 공기가 흘러들었고, 이는 강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였다.

그리고 갑자기, 유리창도, 나무 틀도 사라진 창문 너머로 바깥 풍경이 들어왔다. 그 창문은 기적처럼 여전히 서 있는 초가 집의 것이었다.

진흙으로 반질거리는 바위들이 강둑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놓은 곳 한가운데, 강물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다. 흐릿한 달빛 아래 강물은 반짝였다.

삼백 미터쯤 더 떨어진 왼쪽에는 바위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었다. 그 뒤로는 농장 마당의 키 큰 포플러 나무들이 보였다.

그 마당에서는 큰 불이 타올랐다. 그 너머로는 숲이 우거진 언덕의 검은 실루엣이 드러났다.

호라스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화덕 근처에서 흰색 천으로 만든 텐트가 풍성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 텐트 입구, 천막을 차양처럼 내려쳐 만든 그늘 아래에는 세 남자가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겉보기에 이들은 나무꾼들 같았다.

그들 곁에는 작은 의자가 놓여 있었고, 위에는 병과 접시가 올려져 있었다. 남자들은 음식을 먹으며 마시고 있었고, 한 여자가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

호라세는 잠시 의심했다. 이 세 사람이 마피아노와 그 일당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감히 자신 바로 근처에 숨어 있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는 마피아노가 지닌 미친 듯한 용기와 무모함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곧이어, 불빛 아래에서 그는 그들을 명확히 알아봤다. 저 남자는 틀림없이 마피아노였고, 여자는 파트리샤일 수밖에 없었다.

호라세는 그녀의 얼굴은 분명히 보지 못했지만, 실루엣만으로도 그녀임을 알아챘다. 그는 분노와 경악으로 몸이 떨렸다.

어린 여성의 팔과 마피아노의 접이식 의자가 밧줄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밧줄이 당겨지기라도 하면 마피아노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질 판이었다. 실제로 그는 넘어졌고, 동료들은 그를 보며 폭소를 터뜨렸다.

농부를 지하실에 남겨둔 채, 호라세는 나무 줄기 뒤에 숨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적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식사를 마친 그들은 파이프에 불을 붙여 한 모금의 여유를 즐긴 뒤, 횃불을 들고 다시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횃불의 빛에 비친 눈앞의 풍경. 첫 번째 천막 뒤에는 더 작은 천막 하나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천막 안으로, 일을 마친 여인이 조용히 물러나갔다.

몇 분 후, 횃불이 꺼졌다. 웃음소리와 수다도 자취를 감췄다.

그제야 벨몽트가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는 배를 바닥에 붙인 채 풀숲과 나무 사이를 기어 올랐다. 달빛이 스며들지 않도록, 나뭇가지와 관목이 드리운 그늘을 최대한 활용하며 말이다.

그렇게 그는 천막의 로프를 고정하는 말뚝에 다다랐다. 그리고 주위를 한 바퀴 돌며 첫 번째 천막을 확인했다.

그때였다. 두 번째 천막의 천이 살짝 올라갔다.

hesitation 없이, 그는 그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다.

"호라시온이시죠?"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패트리스?"

"네, 패트리스. 어서 오세요!"

그녀의 손을 잡으려던 순간, 그녀가 덧붙였다.

"어둠 속에서 당신이 오시는 것을 보았고,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열정적으로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귓가에 닿았을 때, 그녀는 숨을 죽여 말했다.

"도망치세요… 베슈 형사와 경찰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마피아가 레드하우스에 당신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호라시온 벨몬트는 경멸 어린 비웃음을 삼켰다.

"아! 그가 내 근처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알겠군. 경찰의 보호가 그를 안심시켜 주는 거겠지."

"도망치세요, 제발." 젊은 여자가 다시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하시나요, 패트리스?"

그녀는 속삭였다.

"무서워요… 당신 때문에 무서워요. 저는 이미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제7장

보름달이 부드럽고 포근한 밤하늘에 맑고 형광등처럼 빛나는 고요한 빛을 쏟아부었다.

잠든 시골의 정적 속에는 땅에서 올라오고 나무에서 날아오르는 수없이 많은 은밀한 소리와 생명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가끔 밤새는 새가 나뭇가지 사이를 부드럽게 날아다니는 소리도 들렸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폭포수 소리는 수정처럼 맑은 선율을 하나하나 떨어뜨리며 흐르고 있었다.

평화로운 밤은 텐트 아래 나란히 누운 두 연인의 휴식을 달게 감싸 안았다.

때때로 호라스는 반쯤 잠든 채 손을 뻗어 움직이지 않는 여자의 팔을 만져보곤 했다. 그녀가 정말 거기 있는지,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일어난 일들이 너무 기이해서 현실인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드디어 새벽이 왔다. 천막 틈새로 첫 햇살이 비쳤다.

호라세가 반쯤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옆에 놓인 손을 더듬었다.

하지만 그는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무서워 떨었다.

손이 차가웠다. 매우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식었다.

호라세가 공포에 질려 누워 있는 형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천막 아래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속에서, 얼굴이 얇은 거즈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

반쯤 벗겨진 가슴, 왼쪽 젖가슴 아래에 단도가 꽂혀 있었다.

공포에 굳어 버린 그는 더 몸을 기울였다.

얼음장처럼 식은 피부에 귀를 대었다.

더 이상 심장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것처럼,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갔다. 죽음은 너무도 갑작스러워, 사랑하는 남자의 품에서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순간 몸이 살짝 떨릴 뿐이었다. 그 남자는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호라스는 옆의 텐트 쪽으로 뛰었다. 마피아노와 그 일행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메이송루즈로 달려갔다.

집 현관문에서 그는 아침 점검을 위해 나가려던 빅투아르와 마주쳤다.

"그들이 그녀를 죽였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빅투아르는 아무 생각 없이 물었다.

"그래서 그녀가 죽었다는 거야?"

호라스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죽었어요."

늙은 유모는 어깨를 으쓱였다.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봤어. 칼이 심장을 관통했거든."

"내가 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왜요? 어떻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증거라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고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성의 직감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믿을 만하죠."

"그럼 당신의 직감은 나에게 무엇을 권하나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부상자를 돌보고, 절대 떠나지 마세요. 만약 다시 공격을 받으면 그녀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녀가 말을 멈췄다. 공원의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휘슬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호라스 벨몽은 깜짝 놀라 경악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패트리스의 신호예요."

"그럼 다 괜찮아요!" 빅투아르이 triumphant하게 외쳤다. "보시죠, 그녀가 아직 살아있고 마피오와 그의 동맹자들을 피했다는 걸요."

기쁨에 넘친 호라스는 열린 창문 너머로 몸을 내밀며 귀를 기울였다.

그때였다. 맹수가 내는 듯한 크고 거친 포효성이 공기를 울리며 퍼져나갔다. 울림은 잠시 이어지다 서서히 잦아들었다.

늙은 젖먹이는 본능적으로 천둥을 맞을 때처럼 십자성을 그었다.

'타이거스야.' 그녀가 말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며칠 전에 순회 동물원에서 타이거스가 탈출해서 여기 성의 '비원'이라 부르는 숲으로 숨어들었다네. 사냥꾼들이 수색을 했지만 타이거스는 다쳤지. 그래서 더 격분해서 위험해졌어. 만약 패트리샤를 만나면……"

호라시우스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낡은 예배당 쪽으로 달렸다. 그곳에 지하 통로의 입구가 있었다. 그는 그 통로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통로를 빠져나왔을 때, 그는 곁에서 여자들의 비명과 반복되는 호루라기 소리, 그리고 맹수의 포효가 섞인 소리를 들었다.

다시 한번 포효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그 짐승은 붉은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벨몽은 능선을 따라 달렸다. 그는 초원 너머로 뛰어올라 텐트 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경악했다. 텐트들이 모두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텐트는 없었다. 천막과 말뚝, 의자 더미만 남아 있었다. 마치 대재앙이 그 곳을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그때, 가까운 강 위에서 한 척의 보트가 소리 없이 멀리 사라지는 것이 호라시우스의 눈에 들어왔다. 그 보트에는 세 명의 남자가 탔다. 그는 단번에 그들을 알아봤다.

"에이, 마피아노! Patricia는 어디 있냐고! 너가 그 여자를 때렸지, 살인자야! 시인해라! Patricia는 죽었니? 어디 있냐고!"

보트 위의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도 모르겠소! 찾아보게나. 그 여자는 아직 살아 있었어. 그런데 호랑이가 우리를 덮쳐서 설치한 장비를 모두 무너뜨렸지. Patricia도 호랑이에게 끌려간 것 같소. 네 문제니까 네가 찾아보게."

보트는 강물 위로 사라졌다.

호라세는 불안감을 억누른 채 귀를 기울이고 주변을 두루 살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더 이상 호루라기 소리도, 포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곳에 기묘할 정도로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는 강도의 충고를 따라 찾아보기로 했다.

성채를 둘러싼 검은 숲이 멀리서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는 성벽의 틈새를 통해 숲으로 들어섰다.

처음에는 나무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다. 성채 바로 근처에는 원시림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백 미터쯤 앞에서 또 한 번의 포효가 울려 퍼졌다. 벨몽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용감했지만 불안해졌다.

분명히 그 짐승은 그의 냄새를 맡고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급히 생각에 잠겼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구경의 권총 하나뿐이었다. 게다가 수풀 사이로 호랑이가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조준할 수 있겠는가?

나뭇잎이 짓밟히는 소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점점 더 가까워진다. 짐승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우렁차지만 은밀한 포효, 격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정체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짐승은 그를 분명히 보고 있었다. 그리고 먹이로 뛰어오를 채비를 하고 있었다.

호라세는 곡예사처럼 민첩하게 몸을 날렸다. 그는 높은 나뭇가지에 손으로 매달려 균형을 잡았다. 곧이어 발끝이 아닌, 뜨거운 주둥이가 그의 다리를 강타하는 충격이 느껴졌다. 이빨이 아니라, 힘찬 충돌이었다.

호라세는 가지 위에 서서 더 높은 가지로 손을 뻗었다. 그는 거뜬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짐승이 닿을 수 없는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

호랑이는 첫 번째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 이상 도발하지 않았다. 곧 호라시는 호랑이가 떠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호랑이는 작은 발걸음으로 숲 쪽으로 향했고, 호라시는 분노에 찬 포효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어 또 한 번의 포효,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호라시는 공포에 떨었다. 그 짐승이 정말로 천막 아래에서 패트리샤를 습격했던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찢겨진 그녀의 시체로 돌아가려던 것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호라시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도 이미 죽은 그녀를 구할 방법은 없었다.

힘없이, 초조함에 몸이 아플 지경이었고, 불안에 갉아먹힌 그는 두 시간이나 나무 위에 머물러 있었다. 기다림은 끝이 없어 보였고, 너무도 고통스러워 결국 그는 그 기다림을 견딜 힘이 다해 버렸다.

위험을 무시한 채, 그는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권총을 손에 쥔 채, 그는 덤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더 밀집된 숲 가장자리까지 나아가 탐험까지 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광장에는 까마귀 떼가 내려앉았고, 그의 앞을 지나가던 작은 들짐승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다. 하지만 호랑이 암컷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헛되이, 지치고 절망한 채로 찾았다. 모기에 쪼이고, 오후로 갈수록 우박이 칠 것만 같은 무겁고 답답한 더위에 짓눌린 채였다.

드디어 그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갔다. 하늘에 첫 번개가 치더니, 이어 우렁찬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저녁을 먹지 않았다. 빗줄기에 진정이 된 듯했지만,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열병에 걸린 듯했다. 그가 품에 안고 있던 Patricia의 그 밤,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잠든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지 상상했다. 살인자가 그림자 속으로 슬며시 들어와, 칼을 들고 Patricia를 찔렀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을 테고.

아마 Patricia는 그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자신에게서 돌리지 않으려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를 지켰다.

그녀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지만 거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상황은 어수선했고, 도무지 설명이 가지 않았다.

패트리샤가 분명히 보낸 호루라기 소리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분명한 호출이었다. 호출을 보냈다는 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호라스는 바랐다. 그랬다.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단서들이 있었고, 그건 어느 정도 희망을 품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폭풍은 더 맹렬해졌다. 천지를 진동시키는 천둥소리가 울려 퍼지던 찰나, 세 마리의 경비견이 갑자기 기이하고도 불길한 울음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사슬을 끊고 달아난 듯했다. 호라체는 그 소리를 들었다. 미친 듯이 달리는 발소리가 공원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개들은 서로를 쫓고 또 쫓았다. 도대체 어떤 귀신들을 쫓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채, 나무와 덤불 사이를 헤치고 농장 마당까지 미친 듯이 달렸다.

악몽 같은 소음이었다. 신비롭고 비극적인, 미친 듯한 소동이었다.

방어선으로 둘러싸인 저택이 마치 야만인 기마대들의 습격을 받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칼을 휘두르며 방어선 안으로 들이닥쳤다.

호라스 벨몽트는 밤의 어둠 속에서 환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적들을 감지했고, 보았다. 칼과 횃불을 들고 죽음을 안기고 불을 지피는 적들의 모습을.

끊임없이 이어지는 광포한 짖음과 열광적인 비명. 때로는 쫓기는 먹이의 절박한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호랑이 암컷의 격분한 포효가 들려왔다.

호라스는 방어대 지휘관들을 불렀다. 그들은 파수 중이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밤은 캄캄했고 비는 폭우처럼 쏟아졌다. 그들 멀리 갈 수 없었고, 더구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미친 듯한 바람이 정원을 계속 쓸어갔다. 그 바람의 거친 기운은, 옛 전설에 나오는 저주받은 사냥꾼의 악마적인 통과를 연상케 했다.

새벽이 오자 폭풍도 조금씩 잦아들었다. 개들은 여전히 제멋대로 뛰어들고 있었다. 마치 충동적으로, 통제할 수 없이 뛰어다녔다.

소나기는 그쳤고, 빗방울은 주저하는 듯 섬세한 비로 변했다. 마치 그 비가 전장의 흙을 적셔주려 온 것만 같았다.

하늘이 밝아졌다. 악몽이 걷히고, 사람과 짐승의 마음이 평정을 찾았다. 개들은 여전히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마치 조심스러운 듯, 두려운 듯했다. 밤새 어리석게 굴었던 대가로 채찍질을 맞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 채찍질은 주인이 직접 내렸다. 흥분된 신경을 풀기 위해, 그는 개들에게 아낌없이 채찍을 가했다.

"도대체 왜 그래? 왜 이럴까?"

그가 말했다.

"무슨 전설 속 괴물을 쫓았나? 날아다니는 용인가? 종말을 알리는 괴물인가?"

그가 갑자기 멈춰 서서 말했다.

"아, 저게 뭐지?"

그것은 푸들이었다. 죽어가던 푸들이었다. 머리는 짓눌려 찌그러졌고, 배는 갈라져 터져 있었다. 아직 떨리는 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밖으로 드러난 창백한 창자 더미에 엉켜 있었다.

뤼팽은 그 작은 시체를 귀로 잡아 쥐었다. 그리고 trophies처럼 들어 올리며 부하들에게 보여 주며 외쳤다.

"보라. 이 짐승을 보라. 그들이 사냥을 하며 쫓아낸 야수 말이다."

부하 중 한 명이 죽은 개를 살펴보더니 말했다.

"세상에, 이 개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개잖아!"

"뭐? 잠자는 숲속의 미녀? 무슨 소리야?"

"아니, 한 세기 동안 버려진 성에서 자고 있는 그 여자를 말해요!"

"어떤 성?"

"까마귀 성이야. 저기, 곶 너머 숲속에 있는."

"그럼 백 년째 잠들어 있는 여자가 있다는 말이야? 넌 미친 거 아니야? 동화 같은 소리잖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서 잠자는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긴 하더군요."

"너는 그 여자를 알고 있나?"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그들 역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이 지역 전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여자의 할아버지가 프랑스 혁명 시절, 루이 16세와 왕실 일가의 처형을 지지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로 십 년 동안 까마귀 언덕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 후로 잠들었다는 거죠."

"그 성에 혼자 있다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먹고 마시잖아!"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여자는 산책도 하나요?"

"가끔 마을에 내려가기도 한대요. 하지만 그녀를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녀는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걸어도 잠을 자는 거라고요. 잠자는 사람처럼, 보는 척만 하는 눈빛으로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건 확실하답니다."

호라스 벨몽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나중 가서 저 여자에게, 불쌍한 푸들 죽인 걸 사과하러 가야겠군. 그 성이 정확히 어디 있지?"

"오, 그 성은 그냥 허름한 오두막이랍니다. 무너진 건 널조각으로 고쳐 놓았죠. '원시림'이라 불리는 숲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그녀는 잠을 자면서도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건가요?"

"매우 드문 일이지요. 하지만 얼마 전, 한 사냥꾼과 법원 집행관이 도망친 호랑이를 찾아와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사람들은 사방을 뒤졌고, 마을의 모든 사냥꾼들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죠. 결국

호랑이가 꼬마들의 숲에서 목격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잠자는 여인'은 법원 집행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총에 맞아 다치고 화가 난 그 호랑이를 거두었어요. 지금은 숲에서 완쾌했지만 여전히 성이 나 있죠. 직접 가서 잡아보세요!'"

"그 집행관은 아직까지도 그 호랑이를 잡으러 달려가고 있답니다…"

오후가 되자 벨몽은 푸들 시체를 짚으로 채운 상자에 넣게 했다. 그는 상자를 들고 언덕 위의 큰 숲 쪽으로, 그리고 돌출된 바위 지대로 향했다.

진흙투성이의 길이 구덩이투성이로 언덕을 올랐다. 그 길은 채워진 해자를 지나, 절반쯤은 잘라낸 나무와 참나무로 덮인 바르바카나의 테라스 아래로 이어졌다.

그 뒤, 푸른 잔디밭 끝자락에는 수세기에 걸쳐 썩어 있던 오래된 칼바리가 서 있었다. 그 아래로 아이비 덩굴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그 덩굴 너머로는 세 부분이나 무너져 내린 건물의 흐릿한 윤곽이 보였다. 돌덩어리들은 멀리 굴러떨어졌고, 이제 그것들도 아이비와 이끼에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방문자들에게는 존재와 적대감을 드러내는 단서가 있었다. 사방에 검은 판자에 흰색으로 쓴 글이 적힌 기둥들이 우뚝 서 있었다.

'사유지.'

‘입장 금지.’

‘위험한 개.’

‘늑대 덫.’

보이는 문도, 드러난 출입구도 없었다. 가시덤불 사이로 이끼 낀 계단 잔해들을 따라 한 창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안은 텅 빈 방들뿐이었다. 천장도 없었고, 바닥은 잔디와 다년생 식물, 진흙 웅덩이로 채워져 있었다. 만약 그걸 길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구불구불한 길이 폐허 사이를 지나갔다.

호라세는 그 길을 따라 한 길이가 긴 아스팔트 덮개 건물을 발견했다. 한 방 한가운데 박혀 있었지만, 그곳이 유일한 살 만한 곳으로 보였다.

그가 문을 열고 불렀다.

“여기 사람 있나요?”

배쪽에서 문이 닫히는 쾅 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그쪽으로 걸어가 좁은 방을 지나쳤다. 방 안에는 간이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무 테이블 위에는 알코올 램프가 있었고, 그 옆에 냄비에 감자가 끓고 있었다. 냄비 곁에는 우유가 담긴 그릇도 있었다.

숲속의 잠자는 공주는 침입자를 만나 도망쳤다. 밥은 그대로 두고 말이다.

호라체는 발걸음을 계속하려다 멈칫했다. 바로 앞, 두 발짝 거리에서 야수의 주둥이가 그의 앞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8장

짐승 뒤쪽, 마당 너머에는 짙은 숲의 나무들이 빽빽하게 모여 식물성의 성벽을 이루고 있었다. 그 성벽을 가로지르는 좁은 틈새, 가지와 잎사귀 사이로 파인 어두운 터널이 보였다.

구레유 성의 노부인, 즉 '까마귀' 부인은 이 길로 빠져나갔을 것이다. 호랑이처럼 날렵한 그 여인은 그를 데려다 준 뒤, 다시 원치 않는 방문객을 향해 돌아서고 있었다.

남자와 짐승은 잠시 동안 서로를 응시했다. 움직이지 않는 채로.

호라스 벨몽은 다소 당황한 심정으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자네, 만약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저 녀석이 발톱을 쭉 빼고 자네를 긁어부수며 머리를 뜯어갈 테니.'

하지만 그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그는 평소에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해, 자신의 차분함을 시험해 보고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이 만남을 그리 불쾌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거친 맹수 앞에 서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다는 사실에, 오히려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의지와 '자기 통제력'을 단련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이 아니었던가.

1분이라는 시간이 한 세기처럼 길게 흘렀다.

그는 버텨냈다. 처음에는 자신을 거의 압도하던 공포가 이제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그는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거의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

갑자기, 그를 놓지 않고 쏘아붙이는 차갑고도 단호한 시선 앞에 굴복한 듯, 그 짐승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방향을 돌렸다. 그리고 공기를 냄새로 더듬으며, 푸른 덩굴로 이루어진 터널 쪽으로 사라질 채비를 했다.

벨몽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두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부엌 식탁에서 우유가 잔뜩 담긴 사발 하나를 들어, 조심스럽게 호랑이 쪽으로 내밀었다.

호랑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을 정했다. 마치 예의를 차리는 듯한 행태로, 그녀는 다가와 우유를 마셨다. 혀를 세 번, 네 번 굴리는 사이, 사발은 비었다.

그리고 평온을 되찾은 호랑이는 다시 구멍 난 벽 쪽으로 돌아갔다. 젖은 잔디 위에, 그곳을 지나 간 노부인의 흔적을 코로 더듬었다.

호라세는 호랑이가 여전히 뒷다리를 조금씩 절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았다. 사냥 때 입은 상처 때문이었다. 그는 그걸로 결론을 내렸다. 이 호랑이가 까마귀들의 은둔자라는 이상한 여인에게 치료받고, 그녀에게 심복이 되었음을 말이다.

그는 짐승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 화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문에 잠금을 걸고 다시 오두막을 나섰다.

손에는 권총을 쥐고, 그는 뒤를 돌아보며 붉은 집으로 향했다.

그는 이 일을 무사히 끝냈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었다.

이틀 후, 그는 드나들기 힘든 숲을 탐험할 용기를 냈다. 그리고 다시 그 신비로운 낡은 저택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택이 버려진 듯 보였다. 잠자는 미녀도, 호랑이도 없었다. 그는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손에 삼각형의 날카로운 칼날을 든 무거운 칼을 쥐고 있었다. 목적은 맹수를 유인해 배를 갈라 죽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피해자의 원한이 풀릴 터였다.

그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슬픈 결론에 도달했다. 아침에 어리석게도 그녀가 죽은 줄 알고 떠났을 때, Patricia는 아직 살아 있었

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후 호랑이가 그녀를 죽여 낙엽 아래 파놓은 어딘가로 데려갔을 것이다.

Velmont는 Maffiano의 은신처도 찾아내어 그들을 응징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 세 도적의 존재를 드러내는 단서 하나도 찾지 못했다.

수시간 동안 그는 복수와 학살을 갈망하며 헛되이 헤매다 말았다.

벨몽은 지친 몸으로 돌아왔다. 패트리샤의 운명에 대해 그가 가진 끔찍한 확신을 비크투아르에게 털어놓았지만,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그 짐승이 죽인 것도 아니고, 마피아노가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또 당신의 여성적인 직감인가?" 벨몽이 비통한 어조로 비웃었다.

"충분합니다. 게다가 로돌프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없는 것을 의아해하지도 않죠. 그는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고, 신경이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니까요. 만약 어머니가 죽었다면, 분명히 소식이 들렸을 거예요."

벨몽은 어깨를 으쓱했다.

"예지라니… 너는 그런 것을 믿는구나?"

"네!" 노파가 확신을 담아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다시 한 번 벨몽은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그것이 바보 같은 망상일까? 짜증이 난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나는 살아 있는 여자를 품에 안았어. 아침이 되자 그 여자는 죽어 있었지."

"그래. 하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 여자는 아니었어."

"그럼 대체 누구였다는 거야?"

빅투아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들어 봐. 그 유명한 밤 이후로, 하녀 앙젤리크가 사라졌어. 그리고 나는 확실한 정보를 입수했어. 그 앙젤리크가 마피아노의 애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녀는 그의 동조자들을 잘 알고 있었지. 그들의 요리를 해주었고, 매일 밤 그들을 만나러 갔다고."

호라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럼, 죽은 사람은 앙젤리크였다는 거야? 나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그렇다면 설명해 줘. 왜 앙젤리크가 패트리샤의 자리를 차지했을까? 왜 나를 텐트 안으로 유인했을까? 그리고 왜 마피아노가 그녀를 죽였을까? …왜? …왜?"

"앙젤리크는 너에게 다가갈 기회를 잡았지. 오랫동안 원하던 바였어. 네가 그녀가 너를 바라보는 시선을 못 봤다고?"

"그래, 그녀가 나한테 반했단 말인가? 기분 좋은 소식이군. 그리고 마피아노는 질투 때문에 그녀를 죽였다고? 불쌍한 녀석. 그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운이 없군. 그들 모두는 나를 더 좋아했어. 패트리샤도, 앙젤리크도. 그런데 왜 나까지 죽이지 않았을까?"

"너 자신이 그에게서 마지막 분배권을 얻는 카드를 빼앗았다고 하지 않았나? 그는 그 카드를 너에게서 찾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고, 네가 죽으면 영원히 되찾지 못할까 봐 겁을 먹었지. 게다가 한 번 결심한 도적이라도, 함부로 호라스 벨몽트를 죽일 수는 없는 법이니까."

그가 고개를 저었다.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래도 너무 믿지는 말지. 어쨌든, 가정해 보자. 빅토르, 너는 참으로 뛰어난 추리력과 논리를 가지고 있군!"

"그래, 나를 믿는 거야? 확신이 서는 거야?"

"네 주장에는 논리적 구멍이 없어 보여.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편하니까. 불쌍한 앙젤리크여!"

그는 야만적으로 살해당한 하녀를 불쌍히 여겼다. 하지만 동시에 떨리는 기대감으로 생각했다. 패트리샤는 아직 살아있다고.

이 대화 다음 밤, 벨몽은 노모양에게 깨어났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비비며 그녀를 향해 외쳤다.

"너, 완전히 미쳐버렸니? 아니면 여자特有的인 새로운 직감이 있어서 나를 깨운 거야? 새벽 네 시에? 정신 나갔거나, 집에 불이라도 난 게 아니야!"

하지만 그는 빅투아르의 격앙된 얼굴을 보자 말을 멈췄다.

"로돌프가 자기 방에 없어요. 제가 봐도, 그가 이렇게 밤새 외출하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룻밤을 밖에서 보내다니! 열 살짜리가! 어쨌든 젊은이들이란 그런 법이지. 그래도 너무 일찍부터 시작하는군… 어디로 갔다고 생각해? 파리로? 런던으로? 로마로?"

"로돌프는 어머니를 무척 사랑해요. 제가 보기엔 어머니를 만나러 간 것 같아요. 둘이 약속을 한 게 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밖으로 나왔다는 거지?"

"창문으로요.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럼 경비견들은?"

"한 시간 전쯤 짖던 걸 보면, 아마 그가 떠날 때였겠지. 그런데 오늘 새벽 다섯 시에도 짖더라. 매일 밤 그 시간엔 돌아오는 거야."

"소설 같은 소리야, 비꼬는 건가? 뭐, 어쨌든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그런 게 하나 더 있어요."

노모가 말을 이었다.

"저택 주변을 맴도는 남자들이 셋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당신을 쫓아다니는 사티로스들인가 봐, 비꼬는 건가?"

"장난하지 마세요. 그들은 경찰이에요. 경비원들이 당신의 가장 큰 적 중 한 명을 발견했다고 해요. 부경 베슈."

"베슈? 적이라고? 그건 좀 과장된 거야. 아니면 경찰청에서 나를 체포하기로 결정한 건가? 믿기지가 않네. 내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

그는 생각에 잠겨 눈썹을 찌푸렸다.

"그래도 눈은 뜨고 있을게. 가라. 잠깐만. 한 마디 더 하겠다. 내 금고가 누군가 만진 것 같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세 개의 버튼이 어긋나 있었어."

"이곳에는 당신과 나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소. 그리고 내가 한 짓은 아니지."

"그럼 내가 비밀번호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걸 깜빡했다는 말이군. 생각해보면 이건 심각한 문제야. 금고 안에는 내 지시서와 유언장, 그리고 여러 금고의 열쇠들이 있어. 내 은신처를 찾아내 내 모든 것을 털어갈 단서들도 들어 있지."

"성모 마리아여!" 유모가 손을 모으며 외쳤다.

"성모 마리아는 이 일에 관여할 게 못 돼. 너는 철저히 경계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무슨 큰일?"

"네 처녀의 명예지." 호라스가 차갑게 말했다.

그날 저녁, 호라체는 나무에 올라가 정원의 철문, 특히 농장 쪽을 감시하는 초소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나뭇잎에 몸을 숨기고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 그의 기다림은 보답을 받았다.

성당의 종이 자정을 치기도 전에, 울타리를 훌쩍 뛰어 넘는 둔탁하고 끊기는 발소리가 그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길고 유연한 대형 맹수 형체를 잠깐 보았다.

개들이 목욕탕에서 울부짖었다. 호라체는 나무에서 내려와 로돌프의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발소리 하나 내지 않으면서 창가에 다가가려 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방 안은 환하게 밝았다. 몇 분 정도 시간이 흘렀다. 감시자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본 것은 발코니로 돌아오는 호랑이였다. 호랑이는 자신도 모르게 들어왔던 그 발코니로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거대

하고도 종말을 알리는 듯한 위용이었다. 호랑이는 앞발로 난간 위쪽 난간봉에 올랐다.

그 등 위에는 로돌프가 누워 있었다. 그는 괴상할 정도로 큰 목을 양팔로 꼭 감싸 쥐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터져 나오듯 크게 웃고 있었다.

호랑이는 힘차게 도약해 꽃밭으로 뛰어들더니, 여전히 웃고 있는 자신의 짐을 안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다시 개들이 맹렬하게 짖어댔다.

그제야 비크투아르가 베란다 그림자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숨어 있던 자리에서 나왔다.

"자, 봤어?" 그녀는 두려움에 가득 차 물었다. "이 야수가 그 불쌍한 애를 어디로 데려갈 거야?"

"어머니 품으로겠지."

"세상에, 정말로요?"

"파트리스야. 까마귀의 여자와 함께 다친 짐승을 돌보고 치료했겠지. 이미 반쯤 길들여져 감사하는 그 호랑이는 파트리스에게 마음을 열고, 충실한 개처럼 그녀의 명령에 따를 거야."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비크투아르가 감탄하며 외쳤다.

"나랑 그런 거야. 늘 그래." 벨몽이 겸손하게 말했다.

그는 농장 안을 달리기처럼 지나쳤다. 그리고 까마귀 성으로 이어지는 초원을 가로질러, 반쯤 지워진 숲길을 따라 성으로 향했다. 그는 오두막의 창문을 기어올라 들어갔다. 그러자 그는 절규할 듯한 기쁨에 찬 외침을 터뜨렸다.

거실의 안락의자에 앉아 있던 파트리스는 무릎 위에 아들을 안고 있었고, 아들에게 입맞춤을 퍼부었다.

발몽이 다가갔다. 그는 경외심에 찬 눈으로 그 젊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당신…… 당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행운인가! 당신이 아직 살아 계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소!"

"마피아노가 누구를 죽였소?"

"앙젤리크요."

"그녀가 어떻게 천막 안으로 들어갔소?"

"제가 도망가게 만들더니 제 자리를 대신 차지했어요. 그제야 그 이유를 깨달았죠."

패트리샤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아르센 뤼팽을 사랑했답니다."

벨몽이 무심한 척 말했다.

"선택이 좀 엉망이군."

"사이다, 그 호랑이 같은 여자가 앙젤리크를 죽어가던 천막 아래서 발견해 갔어요. 제가 막을 수도 없었죠.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패트리샤가 오한을 느꼈다.

"마피아노는 어디에 있소? 동조자들은?"

"아직 근처를 배회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소. 아, 불쌍한 자들!"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아 열정적으로 입맞췄다.

"내 사랑! 내 사랑!… 여전히 무서워하지 않지, 그렇지? 사이다가 너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어?"

"아니요, 전혀요, 어머니. 사이다는 제가 흔들리는 것을 피하려고 천천히 걸어요. 확신합니다. 어머니의 품 속에 있는 것만큼이나 편안합니다."

"그래, 너와 너의 기묘한 탈것은 잘 지내는구나. 좋지만, 이제 잠을 좀 자야 해. 사이다도 그래야 해. 사이다를 우리 집으로 데려다 주렴."

아이는 벌떡 일어나 거대한 짐승의 귀를 잡아끌었다. 그리고 방의 다른 쪽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파트리아의 침대가 있는 알코브 근처로, 옷장 안에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다.

사이다는 앞으로 나아갈수록 아이에게 뚜렷한 반항을 보였고, 그 반항은 짜증 섞인 으르렁거림으로 나타났다. 결국 사이다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주인의 침대 앞에 웅크린 채, 머리를 다리에 맞춘 채로 으르렁거림을 더 크게 냈다. 동시에 꼬리를 치며 마루를 두들겼다.

"그래, 사이다." 패트리샤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무슨 일이지, 내 아름다운 친구?"

호라스는 호랑이새끼를 주시했다.

"보아하니," 그가 말했다. "무슨 사람이 침대 아래, 혹은 적어도 알코브에 숨어 있는 것 같군. 사이다가 그들을 알아챈 모양이야."

"정말이야, 사이다?" 패트리샤가 물었다.

거대한 짐승은 더 격앙된 목소리로 답했다. 그리고 다시 네 발로 서서, 강력한 주둥이로 침대를 밀쳤다. 침대 철제는 옆벽에 부딪혔다.

세 번에 걸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실제로는 침대 밑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내지른 비명이었다. 이제 그들은 반쯤 드러나 있었다.

패트리샤는 재빨리 뛰어가 그들을 구원하려 했다. 호라시우스도 뒤따라 나섰다.

"자, 말해 봐라. 안 그러면 너희는 끝장이다. 몇 명이나 있느냐? 셋이지? 그중에는 유명한 베슈도 있군. 자, 대답해 봐라, 내 마음속의 경찰관아."

"네, 저입니다. 베슈입니다."

경찰이 대답했다. 그는 여전히 바닥에 누운 채였다. 사이다가 털을 세우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에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리고 네가 여기 온 목적은 나를 체포하는 것이었지?"

벨몽트가 물었다.

"먼저 사이다를 멈춰 주세요, 친구. 그러면 그녀도 좀 순종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운이 없네요! 제가 그녀를 물러나게 해 드릴까요?"

"그게 제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베슈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래, 난 너에게 거절할 수가 없군, 다정한 친구여!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그쪽이 낫지. 안 그럼 네 아름다운 몸이 상할까 봐 두렵거든!"

"자, 패트리아 존스턴. 우리에게서 이 호위병을 치워 주시오."

젊은 여성은 한 손으로 호랑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호랑이는 증기 기관처럼 고함을 지르며 그녀의 몸에 비비고 있었다. 그녀가 불렀다.

"로돌프! 내 사랑!"

아이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그러자 패트리아가 밖을 향해 손짓하며 명령했다.

"사이다, 네 작은 주인을 모셔갈 시간이야. 가요, 사이다! 가요, 아름다운 여인아!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지?"

호랑이는 경청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베슈를 바라보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라면 그와 함께하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순종적인 그녀는 명령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맡겨진 임무에 자부심을 느끼며.

그녀는 로돌프 앞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강력한 등을 내밀었다. 아이는 그 등에 올라탔다. 머리를 툭 치고, 목에 팔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외쳤다.

"앞으로!"

거대한 짐승은 힘차게 달렸다. 두 뛸 사이에 방을 벗어났다. 잠시 후, 멀리서 개들이 밤하늘을 향해 짖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호라세가 말했다.

"빨리, 베슈. 이불 밑에서 나와 친구들을 데려가. 십 분 안에 돌아올 거야. 어서 해라! 너 내게 체포장을 가지고 있잖아?"

베슈는 다시 발을 디뎠고, 그의 동무들도 뒤를 이었다.

"응, 항상 그거야." 그가 옷의 먼지를 털며 말했다.

"너의 체포영장도 좀 구겨졌겠네. 그리고 사이다에 대한 영장은?"

베슈는 기분이 상해 대답하지 않았다. 오라스는 팔짱을 낀 채 말했다.

"푸르네우, 봐라. 너는 사이다가 정당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서명한 문서 없이는 그 철제 마차에 발이 묶이는 걸 그냥 당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부엌 쪽 문을 열었다.

"가라, 내 친구! 네 작은 동무들과 함께 가라! 얼룩말처럼 뛰어라! 가장 가까운 기차에 올라타서 푹 쉬어라. 이번에는 바닥이 아니라 침대에서 말이다. 내 조언을 따르라. 이건 친구의 조언이다. 안 그러면 사이다가 아침 식사로 경찰의 스테이크를 먹을 테니까!"

두 명의 작은 동무들은 이미 도망쳐 나갔다. 베슈도 그들을 따라갈 채비를 하고 있었지만, 오라스가 그를 붙잡았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마, 베슈. 누가 너를 형사로 임명했나?"

"당신이죠. 그리고 제 감사의 마음은……"

"그걸逮捕하려는 태도로 표현하는군. 어쨌든 용서하마. 베슈, 내가 너를 분대장으로 승진시켜 주마. 좋아? 그럼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 반, 경찰청으로 오라. 상사들에게 전권을 위임받으라고 부탁해라. 내가 너를 필요로 하니까…… 이해했지?"

"네. 감사합니다. 제 감사의 마음은……"

"어서 가!"

베슈는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다. 호라체는 돌아서서 패트리샤에게 물었다.

"당신이 바로,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말이오?"

"네, 저예요. 어머니 쪽이 프랑스 사람이어서요. 여기에 살던 노파는 정신이 온전하진 않았지만, 이상한 분이었죠. 바로 제 친척이에요. 제가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그분을 만나러 왔어요. 그분은 저를 아주 아껴주셨죠. 하지만 불행히도 곧 병이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황폐하고 버려진 옛 저택을 저에게 물려주셨죠."

"저는 그 저택을 둘러싼 전설을 이용해, 사람들의 호기심을 막아냈어요. 이 근처 사람들은 그 전설을 믿었으니까, 누구도 이 곳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죠."

호라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해하겠네요. 당신은 제가 이 '마송 루즈'를 사게 만든 거군요. 거리가 가까워서요. 당신은 안전한 은신처를 확보한 셈이 되고, 동시에 제 집에서 돌봐주는 로돌프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죠.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으니까요. 맞습니까?"

"맞아요, Patricia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저도 기뻤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으려 몸을 움직였으나, 이내 참아냈다. 젊은 여성은 다정하고 과감한 정표에 다소 소극적으로 보였다.

"사이다는요?" 그가 물었다.

"이해하기 쉬워요. 서커스단의 동물원 도망친 사이다는 사냥꾼들에게서 부상을 입은 뒤, 이곳으로 피신했어요. 제가 상처를 치료하고 돌봤죠. 고마움을 느낀 사이다는 저에게 충성스러운 애정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보호 아래에서는 마피아노의 위협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오라시는 Patricia에게 고개를 숙였다.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Patricia! 저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더 일찍 안도시켜 주지 않았나요?" 그는 약간의 원망을 담아 덧붙였다.

젊은 여성은 잠시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얼굴은 거의 적대적인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대답했다.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날 밤, 텐트 아래에서요."

"하지만 나는 그 여자가 당신인 줄 알았어, 패트리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됐어요! 바로 그 점이, 제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죠. 그런 여자를 저와 비교하다니! 마피아노의情妇이자, 그의 끔찍한 동조자들의 하녀요. 제가 그렇게 쉽게 몸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기억을 당신의 마음에서 지울 수 있겠어요?"

"더 아름다운 기억으로 대체하면 되지, 패트리샤."

"그는 더 이상 아름답지 못할 거야. 존재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나를 대신해 다른 여자를 데려왔어. 나는 그 여자와 경쟁하고 싶지 않아!"

이런 질투심으로 가득 차 기뻤던 호라세가 다가왔다.

"경쟁? 당신, Patricia? 미쳤어요? 당신은 경쟁자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그분! 바로 당신, Patricia! 진짜, 유일한 당신을!"

열정에 사로잡힌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아 무작정 끌어당겼다. 그녀는 화가 나서 몸부림쳤다. 용서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기에 더 격분했다.

"나를 놓쳐요! 내가 당신을 증오해요. 당신 배신했어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이 피할 수 없는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전까지 그녀는 그를 밀어냈다. 그러나 그는 팔을 풀지 않은 채, 얼굴을 그녀의 쪽으로 기울였다.

문짝 두 개가 요란하게 열리며 열렸다. 돌아온 여우새끼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웅크리고 반쯤 몸을 펴고 있었다. 눈은 초록색 별처럼 빛나며, 곧장 덤빌 채 준비하고 있었다.

호라스 벨몽은 패트리샤를 놓아주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맹수를 향해 똑바로 응시하며, 조심스럽고 약간 투덜거리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어, 너였구나? 네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같군. 패트리샤, 너의 작은 고양이 정말 잘 훈련됐네. 후, 존중받는 법이 남다르군. 좋아, 좋아. 나도 존중해! 다만, 내가 우습게 보이고 싶은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를 조롱하고 있으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멈춤쇠가 달린 넓고 날카로운 칼을 꺼냈다. 그 칼은 이제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칼을 열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오라쓰? 파트리샤가 놀라며 외쳤다.

'친애하는 친구여, 저는 당신의 그 까칠한 감시자 앞에서 제 체면을 지킬 생각입니다. 오라쓰 벨몽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쫓겨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양이 같은 여자가 보는 앞에서 당장 저를 안아주지 않으면, 저는 이 녀석의 배를 갈라버릴 겁니다. 그러면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지겠지요? 알겠어요?'

파트리샤는 망설이다가 얼굴이 빨개졌다.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오라쓰의 어깨에 기대어 입술을 내밀었다.

‘세상에,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체면은 지켰군요! …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자주 존경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짐승을 죽이게 둘 수는 없었어요.” 파트리샤가 속삭였다. “그의 보호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에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호라스가 반박했다. 하지만 그는 평소와는 달리 melancholy한 어조로 덧붙였다. 그 목소리는 젊은 여성을 깊이 울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더 붉은 얼굴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정신을 가다듬었다. 자신이 가혹한 모욕으로 여겼던 그 기억은 아직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호랑이에게로 다가가 머리에 손을 올렸다.

“조용히 해, 사이다!”

그 야수들은 기쁨에 가득 찬 포효로 화답했다.

“진정해, 사이다!” 벨몽도 정신을 차리며 되뇌었다. “가만히 있어라. 이분이 무사히 돌아가시게 해야지. 시끄럽게 굴면 안 돼.”

그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는, 잠시 벗어 tiger 앞을 지나갈 때였다. 그는 엄숙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문턱에 다다랐을 때, 돌아서서 패트리시아에게 말했다.

"또 만나자, 패트리시아. 너는 정말 매혹적이야. 사이다 곁에서, 맹수를 진정시키는 아름다운 여인처럼 고대 신처럼 보인다. 그리고 나는 신들을 무척 좋아해. 정말이야. 또 만나자, 패트리시아!"

호라스 벨몽은 곧장 메이존루즈로 돌아왔다.

빅투아르는 큰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과 창문은 신중하게 닫혀 있었다.

주인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그에게 달려갔다.

"로돌프가 여기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짐승이 그를 데려다 줬고, 이미 잠들었을 거예요."

"그 호랑이 같은 여자와 어떻게 지냈니?"

"아, 아주 잘 지냈어요! 서로 말도 섞지 않았죠. 게다가 저는 큰 재봉가위를 준비해 뒀거든요."

"가엾은 사이다!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네. 네가 침대를 뒤집어엎을 뻔했잖아, 빅투아르?"

"두 번이나요. 그 야수만큼 큼지막한 건 없어요. 하지만 무척 온순해 보여요."

"정말 사랑스럽군."

벨몽이 웃으며 동의했다.

"이제, 호라스 벨몽이 다시 말을 이었다.

'빅투아르,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해.'"

"이 시간이라니?" 놀란 젖먹이가 외쳤다. "내일까지 미룰 수는 없을까?"

"안 돼. 절대 안 돼."

"그쪽 앉으세요. 저 큰 소파에."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호라스의 표정이 진지해져, 비키르트를 살짝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가 말을 시작했다.

"모든 역사가들은 나폴레옹 1세가 통치 마지막 해에야 진정으로 위대해졌으며, 그의 군사적 재능이 1814년 프랑스 원정 때 정점에 달했다고 동의합니다. 그를 무너뜨린 건 배신자들 때문이었죠. 베르나도트가 적과 동맹을 맺은 순간 라이프치히 전투의 패배는 이미 정해졌고, 모로 장군이 소아송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블뤼허는 이미 궤멸되었을 겁니다. 파리 항복도 마르몽의 계략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테고요. 다들 동의하시죠?"

늙은 젖먹이는 눈을 깜빡이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라슈는 매우 진지한 어조로 계속했다.

"지금 내 상황은 이렇단다, 빅투아르. 샹포베르에서 크로네에서, 몽미라이에서. 승승장구했지. 하지만 발밑의 땅이 미끄러지고 있어. 패배가 코앞이다. 내가 굳건히 쌓아 올린 제국과 부가 곧 적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들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나는 파산하고, 무력해지고, 패배하고, 무너지고, 죽어갈 것이다…… 생트헬레나로 가는 길이지."

"배신당했다는 말이야?"

"그래. 이제 네가 일찍이 경고했던 사실이 확실해졌어. 누군가 내 방에 들어와 금고의 열쇠와 서류를 훔쳐갔단다. 그 열쇠와 서류가 있으면 내 재산을 모두 빼앗아 자신 것으로 만들 수 있어. 실제로 약탈은 이미 시작됐지."

"누군가 네 방에 들어왔다고? 정말로?" 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모르겠어."

그는 그녀를 깊이 응시하며 덧붙였다.

"비크투아르, 너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니?"

그녀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를 의심하다니, 내 아들아!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걸!"

"네가 내 금고 열었다는 건 의심하지 않아. 대신 내가 없을 때 누군가 들어와 내 물건을 뒤졌음을 네가 알았다는 건 의심하지. 사실대로 말해 봐, 비크투아르."

"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시인했다.

그가 너그러움 어린 눈빛으로 그녀의 고개를 들어 올렸다.

"누가 왔어? 패트리스지? 맞지?"

"네. 며칠 전, 당신께서 계실 때 아들을 보러 왔다가 혼자 방에 들어가 있더군요. 그런데 자물쇠 숫자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당신 외에는 아무도 모를 텐데…"

"그건 신경 쓰지 마. 내가 점점 실마리를 잡고 있어. 하지만 들어봐, 비크투아르. 그 여자의 방문을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 그녀가 살아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녀가 내게 말했어. 당신에게 알리면 당신이 죽을 위험에 처할 거라고. 절대 침묵을 지키라고 맹세하라고 했지."

"무엇에 대해 맹세했단 말이야?"

"영혼의 구원에 대해." 노파가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호라스는 팔짱을 끼며 분노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네 영혼의 구원을 내 생명의 안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네가 나에 대해 지녀야 할 의무보다 네 구원을 더 중시한다는 뜻이지?"

노유모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다. 여전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손에 묻은 채, 그녀는 절규하듯 울부짖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두드려지는 소리가 났다. 거실 문이었다. 호라스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문을 열지 않고 문틈을 통해 소리쳤다.

"무슨 일인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신사가 계십니다, 반장." 팀장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있나?"

"네, 반장!"

"좋아. 내가 말해줄게. 제자리로 돌아가, 에티엔."

"네, 반장!"

발소리가 멀어지자, 호라스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은 채 외쳤다.

"너야, 베슈?"

"네! 돌아왔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장?"

"물론이지."

"있나?"

"있어."

"문 밑으로 밀어넣어 줘. 고마워, 친구."

공식 문서 한 장이 문 밑으로 밀려 들어왔다. 호라스가 몸을 굽혀 그것을 주워, 꼼꼼히 살폈다.

"완벽해."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완벽해! 절차상 문제없어. 단 하나 흠이 있군."

"무슨 말입니까?" 놀란 베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영장, 찢어져 있잖아, 친구!"

호라세는 영수증을 네 조각, 여덟 조각, 열여섯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 찢어진 종이를 단단한 공 모양으로 뭉친 뒤, 문을 열었다.

"자, 여기 그 물건이요, 친애하는 친구."

그는 공 모양의 종이를 베슈에게 건네며 말했다.

"아… 아, 도대체 이런… 이런 식으로 될 리가 없어."

베슈는 분노에 떨며 말더듬을 했다. 호라세가 손짓으로 그를 달랬다.

"그렇게 큰소리를 치지 마라. 품위가 아닌 걸세. 그래, 옛 친구, 하나 더 물어볼 게 있네. 차는 가지고 있나?"

"네, 있습니다."

베슈가 대답했다. 언제나 그랬듯, 호라세의 냉정함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다.

"파리 경찰청으로 나를 태워다 주게. 이해하겠지? 네 경부 승진 문제를 처리해야 하니까.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게."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우리는 발끝에서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파트리스아를 방문할 거네. 할 말이 좀 있으니까. 같이 갈래?"

"아니요."

베슈가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잘못 생각했어. 사이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야.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보면,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거든."

"그게 문제야." 베슈가 말했다. "나와 동료들은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싶지 않거든."

“각자 취향이 있는 법이지.” 뤼팽이 말했다. “그럼 코르네일스 저택 방문은 다른 날로 미루는 게 좋겠군. 여러분,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그는 다정하게 베슈의 팔을 잡았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기다리다 들어온 두 명의 경찰관을 데리고 대문 쪽으로 향했다. 해는 이미 뜬 지 오래였다. 그들은 도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차를 탔다. 호라스 벨몽은 기분이 아주 좋았다.

아침 아홉 시, 그는 베슈의 중재로 경찰청장 면담을 성사시켰다.

클로드 오라시 벨몽 백작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신사였다. 그는 이미 행정부에 큰 공을 세운 바 있어, 경찰청장은 그를 매우 정중하게 맞이했다.

길고도 예의 바른 대화 끝에 벨몽은 경찰청장을 나섰다. 그는 베슈의 임용을 얻어냈고, 유용한 단서를 제공했으며 귀중한 정보를 입수했다. 양측의 합의는 완벽했다.

제9장

호라스 벨몽은 차 안에서 가짜 수염과 살짝 색이 들어간 안경을 쓰고 자신을 위장했다.

열 시가 되자 차는 인도 옆에 멈췄다. 시계 종소리가 마지막 타음을 울리는 순간, 벨몽은 앙젤만 은행의 문을 나섰다.

천장 아래에서는 은행 직원 두 명이 회원증을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현관에서는 영국 경찰 같은 건장한 경비원 네 명이 초를 서고 있었다. 서류를 다시 한 번 더 확인받았다.

드디어 모든 절차를 끝낸 뤼팽은 호라스 벨몽이라는 이름으로 신원 확인을 받았다. 그는 이미 그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둔 상태였다.

간수들이 그를 데리고 화려한 대리석 계단 쪽으로 향했다.

계단 아래, 지상층에 다다랐다. 두꺼운 철문으로 보강된 거대한 철창 앞에 서서 간수들은 정해진 리듬으로 문을 두드렸다.

'한, 두·세·네, 다섯.'

잠금 장치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금고실로 이어지는 복도로 통하는 철창 문이 하나 열렸다.

이 금고실로 이어지는 길은 그밖엔 없었다. 철제 격자를 넘어야 했고, 방 끝까지 가서야 비로소 열리는 청동 문도 통과해야 했다. 천장은 철못으로 박힌 참나무 판자로 단단히 보강되어 있었고, 벽면은 강철판으로 철통같이 막혀 있었다.

방 안에는 사십 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벽을 따라 놓인 안락의자에 앉아 있거나, 중앙의 작은 단상 주변에 모여 있었다. 단상 위에는 사무국 관계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 중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창백하고 마른 얼굴의 젊은이였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혁명기의 관료 행세를 하며 로베스피에르의 태도를 흉내 냈고, 동시에 모던한 청년의 복장을 갖춰 입었다. 한쪽 눈에 단안경을 끼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었으며, 넓은 벨벳 칼라와 높은 넥타이가 돋보이는 긴 코트를 입고 있었다.

나머지 사십 명은 거의 모두 근육질에 턱이 각지고, 거칠고 평범한 얼굴을 한 사내들이었다.

종소리가 마지막 인원을 알리자, 그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호라스 벨몽은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관찰했다. 그리고는 가짜 감탄을 섞어 오만하게 외쳤다.

"만세, 갱스터 동지들!"

효과가 좋지 않았다. 사십 명은 모두 모욕을 당한 듯했다. '갱스터'라는 말이 불쾌하게 들린 것이다. 그들은 불만스러운 수군거림을 터뜨렸다.

그때, 단상에 선 창백한 청년이 나섰다. 그는 연필칼로 테이블을 툭 치며 침묵을 되찾고는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우리를 모르십니다. 과거에 마크 알레르미 씨에게 우리 사안에 필요한 정보를 팔았던 프랑스 측 연락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입을 열었다. 날카롭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그 약함을 주먹을 쥐고 무자비한 태도로라도 만회하려 애쓰는 듯했다.

"신사 여러분, 오늘이 바로 우리 행동 위원회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첫 번째 총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우리 편에 합류한 여러분께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협회는 수세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용감하고 종교적 신념이 깊은 남성들에 의해 결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르네상스라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교황을 돕고자 했습니다.

당시 교황들은 로마와 라틴 문명의 정신을 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프랑크인이나 게르만인 같은 북방의 야만인들로부터 그 정신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이 협회는 최근 두 명의 뛰어난 인물, 즉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감사와 우정의 마음에서 존경을 바쳐야 할 두 친구에 의해 다시 활성화되고 젊어졌습니다. 바로 맥 알러미와 프레데릭 필드스입니다.

이들은 현대 사회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회의 정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또한 단결을 다졌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노력에 걸맞은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리 일꾼들, 즉 활동가들을 더 높은 권위에 복종시키자는 거였죠. 그 권위는 독립적인 인물들과 변함없는 도덕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높은 권위를 '전체적 질서와 규율 이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줄여서 CODI, 즉 C.O.D.I.

이 이사회는 우리가 직접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원시적인 청교도처럼 엄격하고 강경한 40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의 약점이나 자신의 실수도 용서하지 않죠. 지옥의 40왕들이라 할 만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냉철하고 자유로운 정신으로, 정확히 판단하고 심판하며 타격을 가할 줄 압니다.

경청하십시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경계심도 양심도 없는 다양한 요원들을 동원해야 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초기 11

인 위원회를 통제하고, 전체 노력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돌려주기 위해 회계를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윤에서 CODI는 먼저 자신 몫으로 절반을 떼어 간다. 나머지 절반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이들에게 돌아간다. 실수의 여지는 없다. 특혜도, 부당함도 없다. 우리의 장부는 철저하게 최신 상태로 유지된다. 우리의 회계 장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C.O.D.I.는 단속과 도덕, 감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이 기관은 위원회의 지시를 거스르지 않는다. 초기 열한 명의 위원들이 마피스트 협회를 다시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직에 청사진과 자료를 제공했다. 그리고 그들의 창의성과 노고로 조직을 부강하게 만들었다.

열한 명이었다. 열한 명의 영감 받은 선지자들이었다. 놀라운 업적을 이룬 실천가들이었다. 그들의 실수와 범죄 때문에 일부는 비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야 한다.

"개인적인 사업에서 얻은 성과는 이미 아시죠. 그 혜택도 직접 보셨고, 덕분에 당신의 생활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놀라운 활약상이나, 지난 일 년간 개인이 쉽게 숨길 수 있었을 전리품을 정직하게 중앙 금고로 보내준 고결함까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칭찬할 필요도 없죠.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에게는 그 정도가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마피아가 그들에게 큰일을 이루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성공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마피아를 위해 봉사하고 부를 쌓아 올리는 일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의 장부는 단 한 푼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일에 감탄을 표합시다. 정의와 정직 위에야 비로소 영속적인 것이 세워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초기부터 함께한 동료들 중, 저는 특히 두 명의 인물을 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의지와 실행력을 찬양하고 싶어요. 먼저 맥 알러미, 그리고 프레데릭 필드스입니다.

작은 사업은 그 규모만큼의 결과しか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조직에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각자의 의지를 고취할 만한 거대한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맥 알러미가 한순간의 천재성으로 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폴 시너'라는 이름이 바로 그 마법 같은 단어였습니다. 이 이름은 처음부터 우리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옛 친구였던 패트리샤 존스턴이, 이제 우리는 그녀를 적대적이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깁니다. 그녀가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세상에 폭로했죠.

마피아 대 아르센 뤼팽. 바로 이것이 우리 사업의 놀라운 진실입니다."

"아, 그 순간이 내 마음속과 뇌리에 얼마나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는지! 바로 그날, 『알로-폴리스』지의 정직한 기자 맥 알러미가 내 앞에서 뤼팽에 대한 증오를 외쳤던 그 순간 말이다. 그는 뤼팽을 '비참함의 끝판왕', '가장 매력적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악당', '가장 교활하고, 가장 유능하며, 가장 부유한 자'라 불렀다. 나는 이 세 마디를 반복한다. '가장 부유한 자'.

'뤼팽의fabuleous한 부는 정직한 사람들의 가난에 대한 모욕이다. 그리고 내가 타격하려는 것도 바로 그 부다.'

아르센 뤼팽, 백만장자, 나아가 억만장자. 이 시대에 이것이 수치스럽지 않다면 무엇이겠는가? 이런 추악함이 군림하는 문명은 이미 심판받았다. 그가 훔친 것들을 생각해 보라. 죽은 채 묻혔던 부를 깨워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들. 고대 로마의 유산, 프랑스 왕들의 보물, 중세 수도원의 재물. 이 모든 것이 이 사기꾼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다. 그에게 얼마나 막강한 힘인가. 무한한 자원인가. 참을 수 없는 권력인가.

하지만 몰수할 수도 있다. 나는 비공식 정보를 통해, 그리고 직접 부분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 있다. 아르센 뤼팽은 자신의 모든 부를, 다이아몬드와 보석, 부동산과 영지, 별장과 저택, 궁전을 모두 미국 금화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프랑스 은행과 아르센 뤼팽 은행, 두 곳의 금고가 있다. 그리고 아르센 뤼팽 은행은 바로 여기, 앙겔만 은행이다. 뤼팽의 금고는 우리 바로 옆, 이 요새 안에 있는 것이다. 잠금 장치의 열쇠와 비밀번호를 내가 쥐고 있다. 달러화 주화, 금괴, 금화. 이 모든 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다."

"이건 매클 알러미의 작품이자, 내 작품입니다. 바로 내 작품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을 모두 모은 이유도, 내 정직함과 신의를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죠. 여기 열쇠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 적힌 비밀번호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벽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장하고 결의가 단단한 사십 명의 용사들입니다. 아르센 뤼팽의 수십억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연장에는 박수 소리가 폭풍처럼 일었다. 소리는 치솟았다가 잦아들더니, 다시 커져 끝없이 울려 퍼졌다. 모자가 요동쳤고, 마피아노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만세, 알러미! 만세, 필데스! 만세!"

창백한 청년이 침묵을 요구하며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자부심을 안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우리 뜻깊은 합의를 확인하시고, 제가 사업 계획을 어떻게 치밀하게 추진해 왔는지 잘 이해해 주신다니 기쁩니다. 이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갑시다. 금고가 우리의 주목을 기다리고 있죠.

다만 금고 열기 전에, 누가 어떤 몫을 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나눠 가질지 정하는 목록을 지금 만들어야죠."

그는 차분한 어조로, 각 항목 사이를 잠시 멈추며 읽어 나갔다.

"번호 1: 마크 알러미?"

마피아노가 대답했다.

“의문의 살해로 죽었습니다. 카드도 사라졌죠.”

“번호 2: 프레데릭 필데스?”

“의문의 살해로 죽었습니다. 카드도 사라졌죠.”라고 마피아노가 다시 말했다.

“번호 3: 마피아노?”

“네, 여기 있습니다.”

시칠리아 남자가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당신의 카드는?”

“이 사안은 나중에 검토하고, 최고 군사 법원의 결정을 통해 처리하겠습니다. 계속합니다. N4는?”

“N5는?”

“두 명 모두 살해당했습니다. 한 명은 포츠머스에서, 다른 한 명은 파리에서요. 카드가 도난당했습니다.”

“제보합니다. 카드가 도난당했습니다.”

다른 참석자 중 한 명이 대답했다. 아르센 뤼팽은 그 남자를 알아봤다. 마피아노의 직접적인 공범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오트유와 메종루즈 습격 사건에 관여한 적도 있었다.

"N7은? N8은?"

이번에는 마피아노가 다시 대답했다.

"사흘째 행방불명입니다. 그들 카드도 이미 도난당했습니다."

"N9는? N10은? N11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젊은 의장이 요약을 시작했다.

"요약하자면, 초기 회원 열한 명 중 현재 자리에 있는 이는 단 두 명뿐입니다. 네 명은 이미 사망했고, 다섯 명은 행방불명입니다. 최소 여덟 장, 아마도 여덟 장 이상의 회원 카드가 도난당했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 불참한 회원들은 소집에 응하지 못했으므로, 항소할 권리 없이 회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세 분을 다시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번호 9번? 10번? 11번?"

"11번, 여기 있습니다!"

한 남성이 외쳤다.

그 순간, 자리에 있던 모든 이에게 놀라움이 퍼져 나갔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의장이 물었다.

수염을 기르고 선글라스를 낀 한 남성이 군중 사이로 나섰다.

"제 이름을 묻습니까? 물론, 지금 부르신 바로 그 11번입니다."

"카드를 보여 주십시오."

"이것입니다."

한 장의 카드가 창백한 얼굴의 젊은이에게 건네졌다. 그는 카드를 읽어 내려갔다.

"폴 시네, 11번."

"맥 앨러미의 서명도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갖춰졌죠. 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정보, 곧 이 기업의 토대가 된 정보를 팔아치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당신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보증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마피아노는 신비로운 인물 11호를 굶주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시칠리아 남자가 외쳤다. "저는 사라진 모든 카드를 훔친 도둑이니, 이 분을 보증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보증하오, 마피아노. 당신이 맥 앨러미와 프레데릭 필데스를 살해한 살인범이기 때문이오." 다른 한 사람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순간 분위기가 격앙되기 시작했다. 의장이 나서서 진정시키려 했다.

"두 동업자 사이의 분쟁은 나중에 최고 이사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임무는 금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때 열한 번이 한발 더 다가서서 연단 위로 올랐다.

"이 공개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가 높고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어떤 자격으로 그런 금지를 내리십니까?"

주재자가 사건을 통제하려는 헛된 노력을 기울이며 물었다.

"제 자격으로요. 게다가 열한 장의 카드는 아직 진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호명을 이미 했습니다."

주재자가 항의했다.

"규정에 따르면 호명은 실수나 누락이 없도록 세 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 열 번? 우리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까? 더 이상 호명할 번호가 남지 않았습니다……"

"열두 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성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리고 남자의 외투를 던져 버리자 한 젊은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하얀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당당하게 걸어서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번호 11번 옆에 자리 잡았다.

"제 신원 확인 카드입니다."

그녀가 단장에게 카드를 건네며 말했다.

마피아노는 놀라 외쳤다.

"패트리샤 존스턴! 알레르미의 아들의 연인이자, 늙은 알레르미의 비서, 우리를 발목 잡았던 그 기자!"

"마피아노가 증오와 사랑으로 쫓아다닌 그 용감한 여인이오."

번호 11번이 큰 소리로 선언했다.

"그녀는 당신의 연인이오."

마피아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녀는 내 약혼자요."

번호 11번이 패트리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정정했다.

"누가 감히 그녀를 모욕하면 사형에 처하오!"

단장을 맡고 있던 창백한 청년이 웃음을 터뜨렸다.

"감정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소." 그가 말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마담. 모든 카트에는 거미 모양의 내 개인 도장이 잘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카트에는 맥 알러미의 서명만 있군요. 이 이상한 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알로폴리스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저에게는 맥 알러미와 살해 몇 시간 전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가 떠날 때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며, 올해 9월 5일까지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되자 봉투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이 카드를 지닌 자가 10월 20일 화요일, 파리의 한 은행 주소에서 열리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의 연설을 들으며, 사건 경과와 제 권리에 대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금고만 열면 되겠군요."

"금고는 절대 열지 않을 겁니다." 11번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단호하게 외쳤다. "저의 의지는 이 점에 대해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으르렁거리는 위협의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는 사십 명이나 되는데, 당신은 혼자일 뿐입니다!" 회장이 경멸하는 어조로 내뱉었다.

"내가 주인이고, 너희는 고작 사십 명일 뿐이다."

그것은 위협적인 대답이었다.

열한 번 번호를 단 남자가 단상 위로 뛰어올랐다. 그는 금고로 통하는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총을 한 손에 하나씩 쥔 채 문 앞에 버티어 섰다.

그에게 다가가려던 정통회 의원들이 어수선하게 물러나,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모여들었다.

창백한 청년이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자존심이 신중함보다 더 강했다. 그는 위험을 무시하며 세 걸음을 내딛고는 비명처럼 외쳤다.

"우리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요구합니다…"

"내 행동 하나만 봐도 너를 때려눕힐 거야, 꼬마야!"

창백한 청년은 더욱 창백해졌지만,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여러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 그 용기를 어디에서 얻었는가…?"

그는 주머니에서 무기를 하나 다시 챙기더니, 순식간에 손동작을 취했다. 가발과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드러난 얼굴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섬뜩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아르센 뤼팽!"

그 이름이 입에서 터지자, 자객들은 모두 뒤로 물러섰다. 공포에 질린 침묵이 흘렀다.

그가 계속 말했다.

"아르센 뤼팽. 모든 카드를 쥐고 있는 사람, 즉 이 금고 속에 들어 있는 수십억의 재산을 모두 소유한 권리증서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

"맥 알러미와 필데스가 마피스트들의 지시를 받아 나를 공격하고, 그들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 나를 향한 성전을 조직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이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이 일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거처, 동조자, 피신처, 동굴, 지하 통로, 은신처 등, 곧장 이 금고로 이어지는 단서를 제공했죠. 바로 내가 몰래 재산을 모아들인 곳입니다."

"위험한 수법입니다." 의장은 아직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결과는 명확합니다. 정관에는 이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유한회사에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만족스럽지 않다면 법정으로 가십시오. 그전까지는 이 돈은 제가 가져가고, 그대로 간수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것은 법과 양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입니다."

파트리샤가 뤼팽 쪽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군가 한 발이라도 쏘면, 그들은 배고픈 늑대 떼처럼 당신에게 덤빌 거예요."

"그들은 감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아르센 뤼팽이라는 인물이 도둑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 명성을요."

"틀렸소. 분노와 탐욕에 눈이 멀어 광기 어린 무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있어요. 저요…"

그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군중 속에서 총성이 터졌다. 총알이 뤼팽의 허벅지를 꿰뚫었다. 그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으나 곧 다시 일어섰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벽에 기대야만 했다.

"너희 같은 비겁자들이라니! 하지만 나는 너희의 익명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겠소. 이 지하도로 한 발짝이라도 들어서는 자는 내가 쓰러뜨리겠소. 만약 또 총성이 울리면, 나도 응수하겠소. 첫 총알은 누구에게 떨어질까? 마피아노 씨, 당신일까요?"

그는 무기를 들고 그들을 위협했다. 다시 한번, 그들은 모두 물러섰다. 그때 창백한 청년이 나섰다.

"아르센 뤼팽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방금 전에 거래안을 제시했죠. 그걸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용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당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의 부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져갈 뿐입니다. 당신이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 부를 온전히 간직하는 것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액수가 너무 커서, 당신 혼자서는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합리적인 분배를 받아들이세요. 우리에게 백만 프랑을 주면, 당신에게는 수백만 프랑이 남을 테니까요."

반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누구도 그런 희생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다. 손만 대면 얻을 수 있는 거대한 부가,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들을 미치게 만들고 있었다.

뤼팽이 답했다.

"로베스피에르로, 내 친구들이나 나나 의견이 같습니다. 그들은 모두를 원하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게 더 낫다고?" 가짜 공약당원이 theatrical하게 외쳤다.

"네! 백 번이나 네! 뤼팽은 패배했다. 이제 뤼팽이 아니다."

"하지만 너는 이미 졌어, 뤼팽."

"아니야.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 자, 이제 잘 봐라, 동지들!"

그가 손을 휘저었다. 앞사람들이 바다로 나가려다 뒤따르던 동료를 밀쳐냈다.

하지만 뤼팽은 순식간에 재킷 단추 두 개 사이로 권총을 숨겨 넣었다.

다른 한 자루는 여전히 적들을 향해 겨누고 있었다.

그는 자유로운 손을 입가로 가져갔다.

손가락 두 개를 혀에 대고, 거리 노름꾼이라도 부러워할 만큼 능숙하게 피리를 불었다.

좁은 공간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져 귀가 아플 지경이었다.

모든 비명과 협박, 저주가 그쳤다. 초조한 기다림 속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제10장

그 순간, 사건은 돌발적으로 터졌다. 그 신호에 대한 끔찍한 응답이었다.

위층 바닥을 따라 연쇄적인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한 개, 두 개, 상자 뚜껑을 거꾸로 엎어놓은 듯이 상자 바닥들이 하나둘씩 떨어졌다.

그리하여 머리 위에는 열다섯 개, 각 열에 열 개씩, 총 스무 개가 아닌 백오십 개의 직사각형 구멍이 뚜껑이 열린 함정처럼 벌렁 벌어졌다. 그리고 이 백오십 개의 구멍을 통해 총열 백오십 개가 내려와 자리 잡았다. 그 끝의 작고 죽음 같은 검은 구멍이 군중을 노려보고 있었다.

"조준!"

뤼팽의 금속성 목소리가 명령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당당하고 위협적이면서도 미소 짓는 모습이었다. 마치 자신의 상처를 잊은 듯했다.

그는 더 큰 소리로 반복했다.

"조준!"

순간이 비극으로 변했다. 공포에 질린 사십 명은 움직이지도 않았다. 총살대의 총구를 맞은 사형수들처럼 굳어 있었다.

뤼팽이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자, 동지들! 용기를 내자! 당황하지 마라, 젠장! 정신을 차리려면 스트레칭이 제격이겠군. 시작해! 경례! 손은 엉덩이에! 고개를 똑바로! 준비됐나? 다리 굽혔다 펴기를 하며 팔도 함께 들어라. 발끝은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뭐야, 마피아노! 자고 있나, 친구야? 주의해, 마피아노 씨. 내 왼쪽 벽 쪽으로 친구들 무리 사이에 숨어 있는, 갱단장 같은 그 녀석 말이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총검들이 마피아노 씨를 노리며 일제히 움직였다. 마피아노는 주저하면 죽을 줄 알았다. 그는 부끄러움 따위 잊고 뤼팽의 명령에 복종했다. 그는 가슴을 내밀고 머리를 뒤로 젖혔다. 양손을 허리에 올리고는, 성실한 어린아이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명령된 체조를 최선을 다해 해 보였다.

"멈춰!"

뤼팽이 명령했다.

복종은 즉각적이었고, 움직임은 갑자기 멈췄다. 그때, 1층에서 내려온 이동 경찰 한 소대가 철문 뒤로 나타났다. 최근 부사장이 되어 그 직책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 베퉁이 그들을 지휘하고 있었다.

뤼팽은 베퉁 부사장을 향해 소리쳤다.

"들으시오, 친구. 제가 상테 형무소와 맺은 약속대로, 최상급 갱스터 사십 명을 넘기겠습니다. 살인자, 납치범, 보석상 절도범, 은행 강도 중에서도 손꼽히는 영악한 놈들이죠. 그 무리의 두목은 마피아의 수장 마피아노 씨. 피로 물든 손을 가진 음흉한 자입니다."

열려 있는 철창 너머로 갱스터들이 한 명씩 줄을 지어 나왔다.

"자, 뤼팽!"

부경감이 공격적인 어조로, 다가오며 던진 말이다.

"저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금기 대상입니다. 총독의 지시를 받으셨죠?"

"네. 마피아, 즉 C.O.D.I.의 이들을 감금하기 위해 백오십 사 명의 요원과 경관을 동원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제가 요청한 건 백오십 명이었습니다."

"네게 해당되는 건 네 명뿐이야, 뤼팽!"

"너 미쳤나?"

"전혀 그렇지 않아. 총경의 지시야."

"오, 파리가 이제 나를 놓아주는구나?"

"그래. 네가 써온 수법과 꾀에 지쳤어. 네가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것보다 드는 게 더 많아."

뤼팽은 폭소를 터뜨렸다.

"바보들아! 그리고 베슈, 너는 정말 바보야. 뤼팽 체포령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뤼팽이 구이 닭처럼 우리 입에 쏙 들어올 줄로 아느냐?"

"네 체포 명령이야. 생포로." 베슈가 말했다. 그는 적의 냉정함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가까이 다가갈 용기는 내지 못했다.

뤼팽은 다시 한번 크게 웃었다.

"생포라니! 내가 새장에 갇혀 그랑 팔레에서 전시될 생각인가?"

"그게 딱 맞아."

"아이 같군."

"갱스터들과 맞서면 우리 편은 이백 명뿐이오."

"이십만 명이라도!"

베슈는 논리로 설득해보려 했다.

"당신이 다쳤다는 건 잊었소? 피투성이에 거의 죽어가는 몸이잖소."

"거의 죽어간다니, 내 마음의 친구 베슈! 하지만 그 마지막 사분의 일이 가장 훌륭하오. 생명력 사분의 일만 남았어도, 당신들 모두에게 계산을 붙여주겠소, 우리 양들아!"

베슈는 어깨를 으쓱였다.

"당신은 정신이 나갔소, 불쌍한 뤼팽! 더 이상 힘이 없잖소…"

"예비군은요? 계산에서 제외하시오? 내 근위병을요? 항복하지 않는 부대 말이에요. 카브론을 아시죠?"

"그 근위병을 동원해 보시오."

"불쌍한 베슈, 그렇게 말씀하시다니요?"

"조심하시오. 당신이 짓눌릴 거요."

"당신부터 하시오."

"아니, 당신이 먼저 하시오. 영국인 여러분, 먼저 쏘시오."

베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만만해 보였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부하들에게 외쳤다.

"주의해! 뤼팽을 향해! 조준해!"

백오십 명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뤼팽을 향해 몸을 돌리고 총구를 겨누었다. 하지만 그들은 발포하지 않았다. 부상당하고 혼자 서 있는 남자를 사살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한없이 비겁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망설임이 그들의 손가락을 멈추게 했다.

베슈가 분노에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쏘라! 쏴라, 이놈의! 당장 쏴!"

"쏘라고요! 뤼팽이 말했다. "무슨 겁이 나요?"

그의 얼굴은 죽음처럼 창백했다. 피를 많이 흘려 기력이 쇠약해져 비틀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파트리샤가 그를 부축했다. 그녀도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다.

"이제 때가 됐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마도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죠." 그가 답했다. "하지만 어쨌든,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다면, 저를 사랑한다고 인정하세요." 그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살아남길 바라는 거야."

"나도 알아. 너 없이는, 너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한 어조로 대답했다.

"알고 있어. 내가 원하잖아, 네가 살아남길……"

"약속하는 거야?"

"그럼, 행동해."

그가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갈 때, 그녀도 호루라기를 꺼냈다.

그것은 예전에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은제 호루라기였다. 그녀는 그것을 핸드백에서 꺼내 입에 대었다. 날카롭고 길게 이어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불었다.

그 소리는 절박하고, 명령조 같았으며, 절망적인 파동처럼 복도를 타고 퍼져 나갔다. 지하 창고와 정원까지 그 울림이 닿았다.

그리고는 침묵이 찾아왔다.

긴 침묵이었다. 애절하고, 수수께끼 같으며, 무서운 침묵.

이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들은 어떤 기적 같은 도움을 준비해 둔 걸까? 즉각적이고, 번개처럼 빠르며, 단호한 개입이 있을 것인가?

그때였다.

멀리, 건물들 깊은 곳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더 또렷해졌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게이트를 닫아라!" 베슈가 비명처럼 외쳤다.

"게이트를 닫아라." 뤼팽이 차분하게 동의했다. "게이트를 닫고, 너희 영혼의 안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도둑놈들아!"

그는 무릎을 꿇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다. 그는 의식 불명 상태와 싸우며, 타고난 끈질긴 에너지를 총동원했다.

파트리샤가 몸을 숙여 그를 안았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집요한 신호를, 절박한 호출을 계속 보냈다.

뤼팽은 의지의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의 약점을 억눌렀다. 그는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베슈, 너는 불쌍해. 군대를 불러라. 온 군대를 다 불러들이라고. 전차와 대포까지 다 동원해서."

"그럼 당신은요? 당신도 군대가 있단 말인가요?"

"나? 내가 부르는 건 '대전의 병사'들이야.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여! 일어나라, 땅과 지옥의 모든 힘들이여!"

뤼팽은 정신이 나간 듯 보였다. 파트리샤는 갑자기 휘파람을 멈췄다. 더 이상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공포의 비명이 방 안을 가득 메우며 거친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때 기마병이 쏜살같이 달려와 구조에 나섰다. 공격자들에게는 예상치 못했고, 놀라움에 질린 기묘하고도 위력적인 구원이었다.

"사이다! 사이다!" 젊은 여성이 절박한 기쁨에 차 외쳤다. "사이다! 와, 사이다!"

호랑이가 날쌔게 달려왔다. 경찰들은 깜짝 놀라 벌벌 떨며 도망쳤지만, 철제 울타리 앞에서 짐승이 잠시 주저했다.

울타리에는 철판이 달린 창호처럼 생긴 장치가 있었다. 그것들이 울타리 높이의 3분의 2까지 올라와 있어, 필요할 때 첫 번째 발판이나 중계 지점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발판이 없더라도 울타리를 넘을 수 없을까? 날카로운 창끝과 천장 사이에는 충분히 건너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호랑이는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고 판단한 듯했다. 갑자기 그것은 힘차게 점프해 새처럼 공중으로 솟구쳤다. 날카로운 창끝에 걸리지 않고 살짝 스치듯 지나쳐, 부드럽게 패트리시아와 뤼팽 앞에 다시 착지했다.

그때 베슈가 병사들을 모아 울타리 쪽으로 다시 이끌고 왔다.

"쏘라, 젠장!" 그가 고함을 질렀다.

"직접 쏘시오."

경비대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동료가 옳은 말이오."

뤼팽이 말했다.

"먼저 쏘시오, 베슈. 하지만 일러두마오. 사이다는 누가 쏘고, 누가 자신을 다치게 했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만약 당신이 감히 팔을 뻗어 그녀를 조준한다면,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구."

"사이다는 식인종이오, 베슈를 먹는 식인종이요."

이렇게 도전을 받자, 영웅적인 베슈가 총을 쏘았다. 호랑이처럼 생긴 여자는 살짝 맞았지만, 그 자리에서 튀어 오르며 분노에 찬 포효를 질렀다.

공격자들은 주저했다. 만약 그들 중 세 네 명이 지휘관을 따르고, 마음을 가다듬어 질서 정연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격을 이어갔다면 사이다는 패배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 뜻밖의, 기묘하고 무서운 적의 등장, 그리고 놀라운 뤼팽과의 초자연적인 듯한 협력 관계에 깊은 공포를 느꼈다. 이 인물은 그들에게 초인적으로 보였으며, 전례 없는 새로운 힘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평정을 되찾을 수 없었다.

야생동물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알려진 규칙도, 일반적인 경찰술의 기술도 아니었다. 그들은 이런 싸움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베슈조차도 정신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모호하고 미신적인 공포에 사로잡혔다. 호랑이와 인간의 동맹이라니. 경찰서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는가.

베슈가 도망쳤다. 그 뒤를 이어 제멋대로인 기동대 경찰들이 쫓아나왔고, 그들 사이를 사십 명의 갱스터들이 누비고 다녔다. 더 이상 그들을 감시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호랑이 여자와 이미 한판 붙었던 마피아노는 도망치는 데 가장 앞장섰다. 가짜 뮈스카디l도 발걸음을 재촉했다.

"경찰 백오십 명, 갱스터 사십 명. 총과 브라우닝이 그 수만큼이나 많았는데, 아르센 뤼팽과 그의 사랑스런 여자, 그리고 큰 야생 고양이 하나 앞에 다 도망쳤군. 정말 영웅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세상이야. 천벌이야. 정말 세상이 뭐람, 경찰이 뭐람!"

승리의 기색이 역력했지만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던 뤼팽은 힘없이 비웃었다.

사이다는 의무를 다해 한숨을 돌렸다. 승리를 거둔 전사처럼, 그녀는 여주인의 발치에 누웠다. 여주인은 그녀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었다. 눈꺼풀을 내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사이다는 낮게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1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사이다는 갑자기 일어서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뤼팽의 의식을 돌보던 패트리시아와, 정신을 차려가던 뤼팽 모두 긴장했다. 첫 번째 전투는 이겼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발소리가 들렸다. 그림자들이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철문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실패에 분노한 그들은, 손에 쥘 수 있는 거액의 돈이라는 유혹에 끌려 다시 비밀 통로로 돌아왔다. 철창 사이로 무장한 팔들이 뻗어 나왔다.

"조준, 발사! 조준, 발사! 조준, 발사!"

뤼팽은 '라상'이라는 동요의 곡조에 맞춰 흥얼거렸다.

사이다가 철창 쪽으로 기어갔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몸을 웅크려 뛰어오를 채비를 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공격자들은 또다시 공포에 질렸다. 그들은 다시 도망쳤다.

"빨리, 뤼팽이 말했다. "적의 반격이 가능해. 얼른 빠져나갑시다."

"패트리샤, 금고 열쇠와 유용한 문서들을 줍시오. 오늘 밤에 돈을 옮기고, 모든 걸 지방으로 보낼 거요. 앙겔만 은행은 확실히 안전하지 않군. 자, 서둘러요!"

"당신을 태워 온 차가 여전히 마당에 있죠?"

"네, 에티엔이 지키고 있어요. …아니면 그가 체포됐을 수도 있고요."

"왜요? 그가 내 부하이고 차가 내 소유란 걸 아무도 모른다고요. 게다가 베슈가 도착했을 때 나나 사이다를 잡으려 한 사십 명의 갱단원들에 정신이 팔려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경찰들과 함께 도망쳤을 때는 사이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일만 생각했을 거예요. 자, 서둘러요!"

"하지만 마당까지 걸을 수 있겠소?" 파트리샤가 놀란 눈으로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어쩐다는 것이오!"

그는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곧 다시 쓰러질 뻔했다.

"자, 웃으며 말하자면 상황은 그리 좋지가 않군. 나는 따뜻한 음료와 붕대가 필요하오. 가서那两个를 가져오지. 사이다가 나를 마당까지 실어다 줄 거요. 로돌프를 코르네유로 실어다 준 것처럼."

사실 그 소년이 그랬듯, 뤼팽도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힘센 짐승은 그 무게를 느끼지라도 한다는 듯, 은행 안 복도를 지나 뜰로 향했다.

뤼팽의 차 중 가장 큰 차가 있었다. 넓고 깊은 차체였다. 에티엔 분대장이 지키고 있었다. 호랑이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모든 적과 심지어 호기심 많은 이들을 쫓아냈다.

패트리시아와 뤼팽은 아무도 보지 못한 채,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채 차 안 좌석에 올랐다. 호랑이는 그들 앞에 웅크리고 앉았고, 에티엔은 운전석에 앉았다.

"경찰들은 다 갔나?" 뤼팽이 물었다.

"네, 보스. 수갑 찬 도둑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출구에서 붙잡았죠."

"위로용 명함이라도 하나 주마, 하고 장난스럽게 뤼팽이 말했다. '하! 정말로 내가 잡히기를 그렇게 원했나? 여론을 자극하기 위한 작은 과장일 뿐이지. 뤼팽이 체포된다면 난감해질 테니까.' '자, 에티엔, 출발하자! 마송루즈로, 서둘러!'"

차가 시동을 걸고 은행 안마당을 거리로 나섰다. 장애물 없이 순조롭게 마송루즈까지 도달했다.

영지에 도착해 Patricia가 아들을 만나러 올라가는 사이, 뤼팽은 현관부터 목청을 높여 triumphant한 목소리로 외쳤다.

"승리다! 승리다!"

노모가 계단을 내려다보며 나타나, 감격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내 어린 주인님?"

"네가 부른 적 없는데."

"'승리다'라고 외치셨잖아요."

"내가 한 말은 '승리를 노래했다'는 거야. 불쌍한 노모여, 네 이름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프던지."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줘."

"그렇지! 내가 이 위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마. 원하느냐? 테르모필레? 톨비아크?"

"기독교 이름 하나쯤은 정해 줄 수 없겠어?"

"승리의 여신 이름이라니? 자, 잔 다르크는 어때? 장갑이 끼듯 딱 맞을 거야. 그런데 왜 얼굴을 찌푸리는 거야? 네를 모욕할 의도는 아니었어. 안심해라. 굳이 찾지 않아도 다른 이름을 찾아주마. 우선 내 업적을 들어보라."

그는 중학생처럼 깔깔 웃으며 그 위업을 들려주었다.

"재미있지, 안 그래, 내 친구? 몇 년 만에 이렇게 신나게 놀았어. 그리고 앞으로 경찰과 벌일 싸움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 코끼리도 길들이고, 악어도 길들여, 쏘네트 뱀도 잡아야지. 그러면 아마도 경찰은 나를 좀 놔둘 거야. 그리고 새로운 동료를 구할 때면 얼마나 절약이 되겠어. 상아도 얻고, 악어 가죽으로 신발도 만들 수 있고, 쏘네트 뱀의 방울로는 문고리도 만들 수 있잖아. 이제 나를 좀 먹이고,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줘!"

"당신 다쳤어요?" 비크투아르가 놀라서 물었다.

"별일 아니야. 긁힌 자국일 뿐이야. 피를 좀 흘렸지만, 뤼팽에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혈압이 오르는 걸 막아주지. 자, 빨리 가자. 당장 떠나야 해!"

"하지만 지금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내 동전을 찾으러 가자."

부상은 별것 아니었고, 뤼팽은 상처를 간단히 감고 가볍게 식사를 했다. 그후 한 시간 정도 쉬며 컨디션을 다잡은 그는, 상쾌한 기운이 돌자마자 차고에 있는 자동차 2호와 3호를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했다.

뤼팽은 패트리시아와 함께 첫 번째 차에 올랐다. 그리고 네 명의 부하들이 두 번째 차에 탔다. 이들은 뤼팽이 고른, 가장 체격이 좋고 결단력 있는 정예들이었다.

"우리는 그 노년 앙겔만의 집으로 돌아간다." 뤼팽이 패트리시아에게 설명했다. "가져갈 작은 물건들이 좀 있을 테니까."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두 대의 자동차가 은행에 도착했다. 뤼팽은 패트리시아를 동반하고, 부하들을 뒤따르게 한 채, 지층의 큰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고실로 향했다.

그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자물쇠의 글쇠를 돌려 첫 번째 금고의 문을 연다.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비어 있었다. 금고가 텅 비어 있었다. 보물들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뤼팽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비웃듯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금고가? 텅 비었군. 내 저축은? 다 먹혔고. 내 돈은? 날아갔네."

그를 지켜보던 파트리시아가 물었다.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생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말할 때 속으로 깊이 파고들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척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그는 은행 경비원 한 명을 불렀다. 무서운 호랑이 부인이 사라진 것을 눈치챈 경비원이 다가왔다.

"앙젤만 씨를 부르시오."

그는 다시 명상에 잠겼다.

싸움 동안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던 앙젤만을 불러왔다. 몇 분 뒤,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앙젤만이 뤼팽에게 손을 내밀었다.

"친애하는 호라스 벨몽트 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잘 지내십니까?"

뤼팽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도둑맞은 사람처럼 삽니다. 내 돈을 훔친 건 당신이지요. 금고가 모두 비어 있습니다."

앙젤만이 깜짝 놀랐다.

"비어?! 금고가 다 비어 있다니? 불가능해! 아……"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숨을 헐떡이며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심장이……. 심장이요. 심장병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저를 망치게 될 겁니다. 왜 더 신중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돈을 훔쳤다면, 누가 훔쳤단 말입니까?"

"의심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즉각적인 진실을 요구한다. 금고 자물쇠 다섯 개에 대응하는 숫자를 누가 알려주었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누구냐?"

그의 눈빛은 냉정하고도 가혹했다.

앙겔만은 결국 무너졌다.

"마피아노입니다."

"돈은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은행가 앙겔만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 벨몽트 씨, 어디로 가시는 거죠?"

"이 흥미진진한 수수께끼를 푸는 겁니다."

뤼팽은 여유로운 걸음으로 금고실을 나섰다. 다른 방을 가로질러, 발을 구르며 거대한 대리석 계단 쪽으로 향했다.

앙겔만이 그 뒤를 쫓아 나섰다.

"벨몽트! 아니, 벨몽트! 제발, 가지 마세요. 아니, 벨…"

앙겔만의 목소리는 목구멍에서 막혔다. 그리고 은행가는 다시 실신해 계단 첫 단계에 주저앉고 말았다.

파트리시아는 간수들과 뤼팽의 부하들의 도움을 받아 그를 일으켰다. 그들은 그를 1층 방으로 옮겨 안락의자에 앉혔다.

잠시 후 그는 의식을 되찾아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 개자식… 그의 계략이 눈에 보인다. 하지만 내 아내는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거야. 그녀를 잘 알아.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을 거야. 아, 저 배신자! 그는 모든 것을 허용된 줄로 착각하는군. 바로 저런 녀석들과 일하다 보면 이런 꼴이 나는 법이지."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파트리시아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를 따라가!" 그녀가 짧게 명령했다.

은행가는 신음했다.

"불가능합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병이 있으니까요, 알죠… "

그는 우울한 침묵에 빠졌다. 파트리시아는 방 반대편으로 가서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10분이 흘렀다… 15분이 지났다…

앙겔만은 절망에 겨워 울부짖었다. 이어지는 말 없이 더듬거리며, 아내의 순결과 용기, 침묵을 지키던 자신의 성실함, 그리고 그녀에 대한 끝없는 신뢰를 떠벌렸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반대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그때 마침 발소리가 들렸다. 이어 승리를 자축하는 듯한 가볍고 기쁜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뤼팽이 다시 나타났다.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앙겔만은 주먹을 불끈 쥐며 뤼팽을 향해 외쳤다.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진실은 네가 도둑질했다는 거야." 뤼팽이 태연하게 말했다.

"이틀째 그걸 준비해 왔지. 네가 대형 순회 서커스 단장과 거래를 해서 트럭 열여덟 대를 빌렸잖아. 이사 간 건 바로 어제 밤이었어. 네가 타른에 있는 성으로, 가파른 절벽 위에 우뚝 선 거의 오를 수 없는 성으로 내 돈이 이제 막 움직이고 있어. 사흘째로."

"내 돈이 거기에 있다면, 나는 그 돈을 영원히 잃게 되는 거야. 다시는 볼 수 없지."

"그건捏造야. 농담일 뿐이야. 연극 같은 소리야!" 은행원이 반박했다.

"그 정보를 준 사람은 신뢰할 만해." 뤼팽이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마르티네즈의 아내, 마리테레즈라고? 거짓말이야! 왜 그녀가 너한테 말해 주겠어?"

아르센 뤼팽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가에 교활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미소가 맴돌 뿐이었다.

앙겔만은 다시 쓰러졌다.

그때 파트리아가 멀리서 말을 듣지 않고 지켜보던 중, 다가와 뤼팽을 따로 불러 짧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그녀의 손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재빨리 빼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아니요. 당신은 저를 또 배신했어요!"

"파트리샤, 배신한 건 당신이에요. 마피아노는 자물쇠 숫자를 알아낼 재간이 없었어요. 전 세계에 단 한 사람, 당신만이 그걸 알 수 있었죠. 모험에서, 그리고 당연히 제 마음속에서 '폴'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폴 시네르'라는 이름의 첫 글자 '폴'이 왜 그렇게 중요해졌는지 당신만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왜 제 비밀을 마피아노에게 털어놓았나요?"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망설임 없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 일은 라보姆 거리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감금하고, 테라스 위 방에 가둬 놓던 시절이었죠.

저는 로돌프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마피아노는 끔찍한 결말을 하루 더 미뤄주겠다는 조건으로, 금고 열쇠가 될 다섯 글자 단어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금고 자물쇠가 다섯 개의 버튼으로 작동한다는 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폴(Paule)'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그 단어를 사용해 보았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하루의 휴식은 저에게 로돌프를 보내고, 당신과 로돌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후, 로돌프를 죽이겠다는 협박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는 저에게 다른 비밀을 털어놓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로돌프를 위해 떨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떨었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으로 행동할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죠.

저는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불안에 떨며 말을 마쳤다.

뤼팽은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패트리샤. 용서해 줘."

그가 물었다.

"너도 나를 용서해 줄까?"

"아니요. 당신이 저를 배신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음 주에 미국으로 떠나요."

"언제?"

"토요일이에요. 보나파르트 호에 좌석을 예약해 뒀어요."

그가 미소 지었다.

"나도 그 배를 탈 거야. 오늘은 금요일이잖아. 우리에겐 나흘이 남아. 내 네 명의 형사들과 함께 트럭을 쫓아갈 거야. 내가 그들을 따라잡겠지. 그리고 루앙으로 데려와. 내가 안전한 은신처를 몇 군데 알고 있어. 금요일 밤이면 르아브르에 있을 거야.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붙어 있는 객실에서 함께 항해할 거야."

그녀는 항변할 힘조차 잃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입맞춤하고는 자리를 떴다.

감격에 몸이 비틀거리던 앙젤만이, 그가 문턱에 닿기도 전에 그를 따라 나섰다.

"그럼 나는 파산하는 거야." 불운한 은행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도 차고에 주차해 둔 돈이 있잖아."

"아니야! 내가 맹세할게!"

"아내의 혼수돈은?"

"나머지 돈과 함께 보내 버렸어."

"어느 트럭에 실려 있어?"

"14번 트럭이야."

"14번 트럭은 내일 여기서 다시 회수해서, 내 개인적인 선물과 함께 앙젤만 씨에게 직접 전달할게. 걱정 마. 나는 신사의 품위를 지키는 법을 알아."

"당신은 내 친구야, 호라스! 나는 당신을 결코 의심한 적이 없어!" 앙젤만이 감사의 뜻을 담아 그의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나쁜 놈은 아니라고 인정하지. 가식적인 겸손으로 말하는 거야." 뤼팽이 말했다. "앵겔만 씨에게 깊은 존경을 표해 주게. 그렇지? 아, 잠깐, 선물 이야기를 하자면… 조언을 하나 구해. 트럭 15호를 그녀에게 보내면 실례가 될까?"

앵겔만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좋아, 친애하는 친구여. 오히려 그렇지. 그녀는 매우 감동할 거야…"

"그럼 결정된 거야. 안녕, 앵겔만. 내가 이 근처를 지날 때마다 다시 보게 될 거야…"

"물론이지. 식탁은 항상 차려져 있고, 내 아내도 기뻐할 거야…"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지."

패트리샤는 로돌프와 함께 마송루즈로 돌아갔다. 아르센 뤼팽은 상처와 피로를 아랑곳하지 않고 네 명의 수하와 함께 트럭들을 쫓아 나섰다.

그는 이틀 내내 쉬지 않고 일한 끝에, 모든 일이 원상 회복되었을 때 비로소 마송루주행에 오를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피로사로 쓰러졌을 테지만, 뤼팽은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빅투아르가 아이를 재우듯 이불을 꼭 덮어주었다.

"잘했어. 다 해결됐어. 이제 자자. 스무 시간 동안 푹 자는 거야!"

"추우진 않지, 내 사랑? 열이라도 없지?" 빅투아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유쾌하게 몸을 쭉 펴며 말했다.

"하느님, 너 왜 이렇게 수다스럽니? 자, 내버려 둬라. 승리의 영웅이니까."

"정말 추우진 않지, 내 사랑? 확신해?" 그녀가 다시 물었다.

"떨려. 피로에 완전히 무너졌어." 그가 마침내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따뜻한 그로그라도 마실래? 양동이에 담은 술이라도?"

"병 하나? 사모트라키라니, 꿈만 같군! 자, 네가 성씨를 보충할 승리의 이름을 원했지. 사모트라키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기품이 서려 있군. 그로그를 한 잔, 병을 한 개, 사모트라키라니!"

하지만 늙은 유모가 그로그와 병을 가져왔을 때, 아르센 뤼팽은 깊은 잠에 빠져 모든 것을 잊은 뒤였다.

"아이처럼 푹 자고 있구려." Victoire가 탄식하며 말했다.

그녀는 그로그를 마셨다.

제11장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돌아가는 보나파르트 호의 갑판에 앉아, 호라스 벨몽과 패트리샤는 나란히 자리를 잡고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패트리샤, 지금쯤이면 당신의 세 번째 기사가 『알로-폴리스』에 실렸겠군요."

갑자기 호라스가 입을 열었다.

"물론이죠. 사흘 전에 전보를 보냈으니까요."

패트리샤가 대답했다.

"그리고 제2등석 갑판의 최신 뉴스 게시판에 실린 전보 내용을 일부 읽었어요."

"그 기사에서 제가 여전히 멋진 역할을 하고 있나요?"

벨몽이 가짜 무관심한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훌륭해요, 특히 금고 장면이요. 사이다를 이용하시다니, 그 아이디어는 가장 기발하고 독창적인 발상이라 평가받았죠. 경찰을 호랑이로 상대하다니요. 물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천재적인 한 수였어요."

호라스의 가슴은 자존심으로 가득 찼다.

"세상에 얼마나 큰 소동이 일까요!" 그가 말했다.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거예요. 큰 영광과 주목을 받게 되겠죠."

패트리샤는 박수 받는 배우의 허영심 같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영웅처럼 환영받을 거예요." 그녀가 단언했다.

그가 톤을 바꿨다.

"당신은 물론이죠, 패트리샤. 하지만 나한테는 아마 전기의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당신 미쳤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당신이 이겼죠. 그 악당들을 모두 잡은 것도 당신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친구,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뤼팽을 사슬에 묶어 승리자의 전차에 끌고 오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녀는 그의 말에 놀라 바라보았다. 특히 그의 무겁고 진지한 어조에 더 불안해했다.

"저 때문에 당신에게麻烦가 생기지는 않겠죠?"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떻게요? 저는 국가로부터 상을 받게 될 테고, 미국에 정착하라는 조건으로 명예의 빌딩과 '공공의 적 1호'라는 칭호까지 얻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결말이, 얼마 전부터 이야기하셨던 그거죠? 꼭 필요한 희생에 관해서요."

그녀가 잠시 멈춰 섰다. 아름다운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저를 떠나려 하시는 건 아닌지, 가끔 무서워요."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 없인 저에게 행복이란 없어요, 친구."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나 없이는… 패트리샤… 나, 도둑놈이자 사기꾼인 그 인간 말이에요? 나, 아르센 뤼팽을 두고요?"

"당신은 제가 아는 어떤 사람보다도 고결한 마음을 가졌어요. 가장 섬세하고, 가장 이해심이 깊으며, 가장 기사도적인 분이에요."

"구체적으로요?" 그는 다시 가벼운 어조로 물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로돌프를 미국으로 데려가는 게 싫었습니다. 숨어 있는 적들이 그를 노릴까 봐 두려웠죠. 그래서 마송루즈에 남겨두고 빅투아르에게 맡기라고您在 제안하셨잖아요."

"사실상 그의 이름은 사모트라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과 사이다의 보호 아래 두라고 하셨죠."

아르센 뤼팽이 어깨를 으쓱였다.

"선량해서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한 일입니다. 어서요, 파트리시아. 제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왜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그녀는 시선을 돌리며 속삭였다.

"당신의 말 때문에 얼굴이 붉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시선 때문이에요. 숨겨진 당신의 생각 때문이죠."

그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갑시다. 최근의 전보가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좋아. 가자!»

그도 일어나며 말했다.

그녀는 그를 최신 뉴스 게시판 쪽으로 이끌었다. 게시판에는 몇 통의 전보가 붙어 있었다. 내용은 이랬다.

«뉴욕. 프랑스행 다음 배 '르 보나파르트'호가 저명 언론지 '알로-폴리스'의 기고자 패트리아 존스턴을 실어 온다. 그녀는 최근 시칠리아 출신 마피아 마피아노가 이끄는 갱단을 체포하는 데 성공해 프랑스 경찰의 영예를 드높였다. 마피아노는 다수의 범죄, 특히 뉴욕에서 J. 맥앨러미와 프레드릭 필데스를 살해한 혐의자로 지목된 바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마피아노는 프랑스에서도 여러 죄악을 저질렀기에, 그는 추방되지 않을 것이다.

'시 당국은 패트리아 존스턴Miss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다른 소식은 이렇게 전했다.

"르아브르에서 온 전보에 따르면, 아르센 뤼팽이 보나파르트 호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명한 도둑이 하선하기 전부터 최강의 경계 태세를 갖추어 그를 체포할 예정이다.

파리 경무국의 가니마르 형사는 어제 뉴욕에 도착했다. 그는 사십 년 전 처음 뤼팽을 잡았던 인물로, 이제 다시 그를 붙잡기 위해 모든 편의를 제공받을 것이다.

프랑스 경찰은 미국 해안 경비대와 군 당국, 그리고 미국 경찰 대표들이 보나파르트 호를 맞으러 나가는 경찰 정박정에 함께 탑승할 예정이다."

세 번째 소식은 이렇게 표현했다.

«알로-폴리스 지는 알르미 주니어 사장이 요트를 타고 자신의 협력자 패트리샤 존스턴을 만나러 간다고 보도했다. 하선할 때를 위해 경찰 특수부대가 동원될 예정이라고도 했다.»

«완벽하군, 호라세가 외쳤다. 우리 뜻대로 대접을 받겠군. 나는 경찰 동원이라는 영예를, 너는 아이의 아버지라는 대접을 받겠지.»

조롱 섞인 말과 전보의 내용을 읽은 패트리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 Threat가 너무 많아, 그녀가 말했다. … 알르미 주니어 쪽은 두렵지 않아. 하지만 당신, 내 친구, 당신의 처지는 끔찍해요.

"사이다를 휘파람으로 불러보세요." 뤼팽이 농담조로 말했다. "하지만 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진지한 어조로 덧붙였다. "저는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다. 설령 제가 체포당한다 해도, 저를 기소할 증거는 하나도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저 알레르미 주니어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우리 같이 여행한 게 실수였을지도 몰라요." 파트리샤가 말했다. "르아브르 이후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만 해보면 금방 밝혀질 테니까요."

"아니에요. 밤에는요. 저는 당신의 선실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저도 당신의 선실에는 간 적 없어요."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후회해요, 파트리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럴지도요." 그녀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관능적인 아름다움이 빛나는 그녀의 얼굴. 긴 시선이 오간 뒤,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입술을 내밀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단둘이 저녁을 먹었다. 뤼팽은 샴페인을 요구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새벽녘, 파트리시아는 세수를 하고 여행 준비를 했다. 호라스 벨몽, 다시 말해 아르센 뤼팽은 이미 자리에 없었다.

문에는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고, 자물쇠는 두 번이나 잠겨 있었다. 그런데 문득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선실 안을 채우는 것을 느꼈다. 확인해 보니 환풍창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그가 저곳으로 나갔을까? 무슨 뜻이었을까? 환풍창으로는 갑판으로 올라갈 길이 거의 없었다.

파트리시아는 동행자의 흔적도 찾지 못한 채, 보나파르트 호에서 아침 식사를 이어갔다. 식사를 마치고 갑판으로 올라가려던 참, 누군가 그녀에게 편지를 건넸다. 헨리 막 알레르미가 면담을 요청한 것이었다.

주저 없이 젊은 여자는 거절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긴 기다림. 패트리샤는 초조한 마음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항구는 온통 배들로 가득 찼다. 요트와 모터보트, 토피돌이 오갔다. 하늘에서는 수중비행기들이 날아다녔다. 부두 주변은 엄청난 활기로 가득했고, 군중은 빽빽하게 몰려들었다.

수많은 소리가 뒤섞였다. 사이렌의 경고음, 증기 분출 소리, 짐을 내리는 소리, 사람들의 외침까지.

패트리샤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뤼팽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뤼팽으로부터 소식을 듣기 전에는 하선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희망은 헛되지 않았다.

오후 5시경, 그녀는 저녁 신문 첫면에서 경찰이 발표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제 밤 한참이 지나서야, 현대를 대표하는 최강의 법외인이 몇몇 동조자와 함께 맥알러미 주니어의 요트 '알로-폴리스'를 습격했다.

갑작스러운 기습에 당한 선원들은 무장을 해제당했고, 선장들은 자신의 선실로 감금됐다. 공격자들은 순식간에 배의 주인이 됐다.

이 비현실적인 상황은 정오 무렵까지 이어졌다. 그때야 포로가 된 선장들이 벽에 뚫은 구멍을 통해 서로 연락할 수 있게 됐고, 한 명이 동료들의 문을 열어젖혀 선원들을 구출했다. 그리고 곧이어 해적들과의 격전이 벌어졌다.

비록 끝까지 저항했지만, 해적들은 결국 수적 열세에 굴복하고 항복했다. 아르센 뤼팽 자신도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수에 밀려 패배했다.

그는 배 안을 온통 헤매는 맹수처럼 쫓기다, 끝내 선미 난간 쪽으로 쫓겨났다. 하지만 잡히려는 순간, 그는 바다로 몸을 던졌고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 광경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그가 다시 물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경찰은 아침부터 경계 태세를 갖췄다. 강변에는 순찰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항구에는 정박선들이 배치되었다. 기관총까지 장전해 놓은 상태였다.

지금 시각은 오후 세 시 삼십 분. 아직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지 않아 해적단의 두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

대형 경찰서의 수장은 아르센 뤼팽이 상륙하지 못하고, 자기가 끝장난 줄 알고 지쳐서 의도적으로 배를 가라앉혔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제 곧 시체를 찾으러 갈 참이다.

그렇다면 뤼팽은 왜 맥알머리의 요트를 공격했을까? 공격 당시 요트 위에 없던 맥알머리 씨는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한다.

유명 프랑스 형사 가니마르 역시 그 이유를 모른다. 하지만 그는 뤼팽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파트리스는 그 글을 읽고는 심장이 터질 듯이 떨렸다. 아르센 뤼팽이 실종되었고, 아마도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자 그 떨림은 공포로 바뀌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르센 뤼팽이 그렇게 끝나다니. 아르센 뤼팽이 물에 빠져 죽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니마르 형사가 옳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젊은 여성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여기서 더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당장 내려가야 할까? 뤼팽은 어디에서 나를 만나려 할까? 그리고 정말로 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한 시간이 더 흘렀다. 또 한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으로 나온 신문 호수가 그녀에게 새로운 소식을 안겨 주었다. 그녀는 그 소식을 열정적으로 읽었다.

신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방금 전, 알로폴리스의 사내 사무실에서 맥 알러미 주니어를 발견했다. 그는 의자에 묶여 있고 입에는 막이 끼워 있었다. 금고는 강제로 열렸고, 1,500달러가 훔쳐졌다. 그 자리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남아 있었다.

“돈은 전액 돌려보내겠습니다. 저는 노르망디 호의 승선권을 끊어 내고 지불해야 했거든요. 귀국 길에는 승객들의 시계와 지갑을 대상으로 한 실연 마술 쇼를 준비 중입니다. A. L.”

맥 알레미 주니어 맞은편, 마치 그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자세로 다른 안락의자에 가니마르 형사가 앉아 있었다. 속옷과 플란넬 조끼 차림이었던 그는 역시 묶이고 입이 막혀 있었다.

형사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아르센 뤼팽이 자신을 묶고 옷을 벗겨 입어 위장 탈출했다고만 밝혔다. 헨리 맥 알레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침묵을 지켰을까? 이 두려운 모험가는 두 피해자에게 어떤 협박을 가했을까?

기사를 읽은 패트리샤는 자부심 어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뤼팽이야말로 초인적인 존재가 아닌가! 얼마나 대담한가. 얼마나 완벽하게 상황을 장악했는가.

하지만 이제 이 배에 머물러봐야 무슨 소용이랴. 뤼팽이 자신을 데리러 올 곳은 이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둘러 내렸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선 그녀는 깜짝 놀랐다. 방 안은 꽃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원탁 위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식탁 옆 안락의자에는 한 손님이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당신!"

그녀는 친구의 품으로 뛰어들어가며 소리쳤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여러 번의 키스 후 그녀에게 물었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오, 당신이라면요. 당신은 항상 어떤 위기도 잘 헤쳐나갈 테니까요!"

그들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파트리샤, 모든 것이 해결됐소."

"뭐요? 무슨 일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녀는 놀라며 물었다.

"당신의 장래죠. 저와 주니어는 당신을 침묵시킨 사이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긴 논쟁 끝에 우리는 합의를 보았죠."

뤼팽은 샴페인 잔을 따라 마셨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가 당신과 결혼한다는 거죠."

패트리샤가 몸을 떨었다.

"좋아요. 하지만 저는 그와 결혼하지 않아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알겠어요. 당신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어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원하던 결말이었나요? 하지만 저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어요. 절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가 그녀를凝視하며 말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자유라고 생각해요."

"왜요?"

"당신에게 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패트리샤."

그녀는 다시 몸을 떨었다.

"내 아들은 내 것입니다."

"당신과 그 아버지를 위해."

"제가 그를 돌보고, 키웠습니다. 그는 제 것뿐입니다. 로돌프를 돌려주라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뤼팽은 슬픈 어조로 말했다.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보라, 패트리샤! 헨리 맥알러미가 당신과 결혼하고, 그의 아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이혼을 원하고 있소. 로돌프는 흠집 없는 성씨와 미국에서 가장 큰 부 중 하나를 물려받게 될 것이오. 내가 그 아이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최근

경험은 내 금고가 적들의 탐욕을 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소. 그들의 음모가 항상 실패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침묵이 흘렀다. 패트리샤는 절망에 빠진 듯 보였다. 뤼팽은 더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로돌프는 어떤 성씨를 달게 될까? 그의 사회적 지위는 어떨까? 뤼팽의 아들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또 한 번 침묵이 내려앉았다. 패트리샤는 망설였지만, 희생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야 해요."

"결혼식은 여섯 달 후에야 합니다, 패트리샤…"

패트리샤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은 미친 듯이 기쁜 빛으로 가득 찼다.

"여섯 달!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여섯 달! 그것은 곧 영원이나 다름없어요."

"알차게 쓰면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서두릅시다." 뤼팽이 말했다.

그는 샴페인 잔 두 개를 가득 채웠다.

"저는 주니어의 요트를 샀습니다. 프랑스에 돌아가는 길은 그 요트를 이용할 생각입니다."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경찰은 저를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그들이 너무 필요하니까요. 저는 주지사랑 사이가 좋습니다. 가니마르 형사는 벡슈를 먹여 버릴 겁니다. 제가 미리 일러뒀으니까요. '나의 평온과 당신의 침묵, 이걸로 교환합시다'라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그 '옷 벗기기' 사건 말입니다. 연말 특집 기사에 '속옷 차림의 경무관'이라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영원히 웃음거리가 될 테고요. 대신 그는 제가 마피아노의 단두대 행렬을 구경할 수 있는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패트리샤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직 그들 두 사람만을 생각했을 뿐이다.

"저도 함께 요트로 돌아가요, 뤼팽."

기쁨으로 얼굴이 붉어진 그녀가 말했다.

"정말 멋질 거예요. 가능한 한 빨리 떠납시다."

뤼팽은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당장, 이 순간 바로요! … 바다를 건너면, 우리는 센 강을 거슬러 올라가 메종루즈에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하죠. 당신은 로돌프를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멋진 일이 될 거예요!"

그는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패트리샤도 그 말에 맞춰 화답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